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7년 가을호(통권 제240호)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7010









▲ 김영삼 대통령께서 임석한 가운데 공군 최강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서산 기지의 전력화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 대통령은 기지현황 보고, 기지 초도순시, BLACK EAGLE 특수비행 관람, KF-16기 시승 등의 행사후, 부대 창설과 최신편 KF-16 전력화에 따른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6.18)



▲ 제98기 사관후보생 임관식이 참모총장을 비롯한 내외귀빈, 가족·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참모총장은 훈시에서 "투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을 당부하였다. (7.2.)

공 · 군 · 동 ·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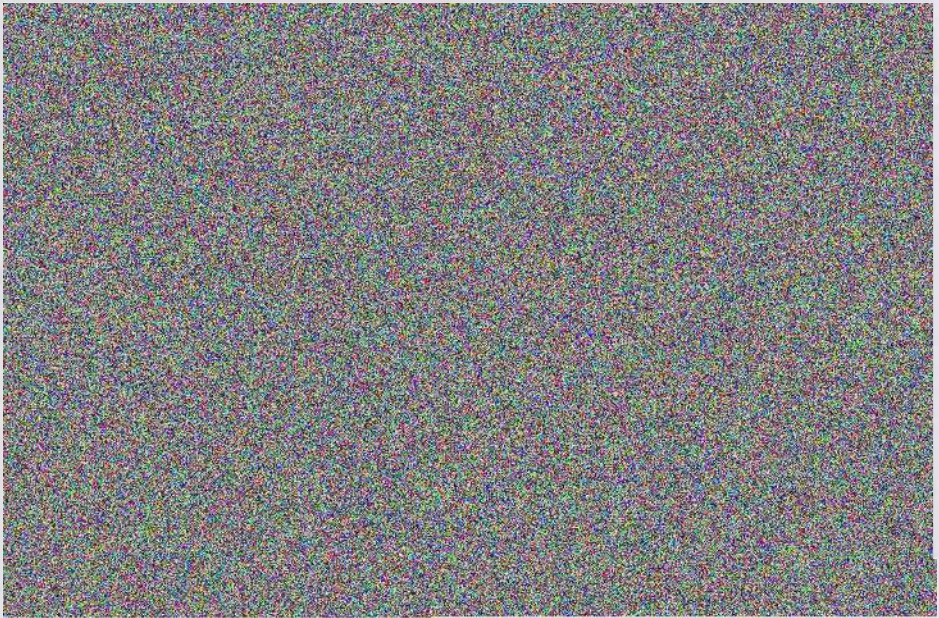
- ▲ 공군본부를 방문한 태국 공군 총사령관 아몬 내위말리(Amom Naewmalee) 대장을 접견하여 아·태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공군의 발전방향 등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군 간의 한결같은 우의와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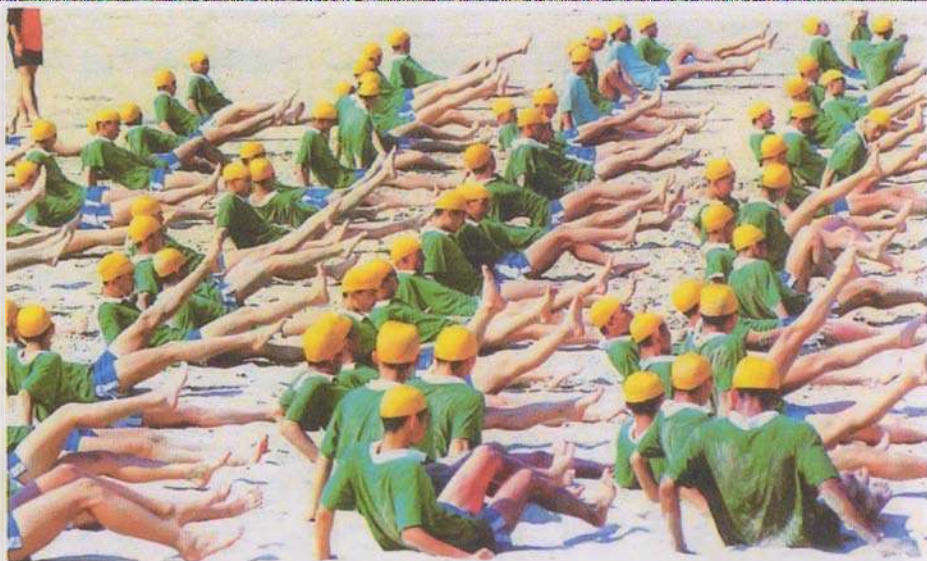
- ▲ 공군본부는 계룡대 인근 지역에 대한 가을맞이 자연정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전 국토 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이날 행사에는 약 500여 명의 장병 및 군우원이 참가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였다. (8.30.)

사관학교 생도 하계 집중 훈련

공군의 예비 보라매들이 각 학년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터 4주간 하계 집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학과 시간에 습득한 이론지식을 현장에서 실습·체험하고 강인한 체력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행군 훈련



▲ 수영 준비 운동



▲ 보트 실습 훈련

'97 하계 군 자녀 교육

공군본부는 8월 12일부터 2박 3일간 대학 1학년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계 군 자녀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양강좌, 공군사관학교 방문, 전쟁기념관 및 3땅굴 견학, 전사적지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이번 교육은 군 자녀들에게 투철한 안보의식과 공군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 공군사관학교 방문



▲ 전쟁기념관 견학

공군

AIR FORCE QUARTERLY

EG00291

1997년 가을호(통권 제240호)



參謀總長 指揮方針

最高の 戰備態勢
科學的 教育訓練
總和的 安全管理
斬新한 空軍文化

공군본부

글 차례

- 권두화보 ————— 4
- 권두언 확고한 대적관 확립/정훈공보실장 대령 서홍교 ————— 10
- 보라매칼럼 필승의 정예공군 육성/준장 구정희 ————— 12

○ 특 집 I 공군의 오늘과 내일

- 21세기를 위한 공군의 준비/대령 김은기 ————— 15
- 참신한 공군문화의 정립을 위하여/중위 박치문 ————— 27
- 미래를 향한 공군상/원사 최반중 ————— 33
- 전역병의 마지막 인사/병장 김일두 ————— 37

○ 특 집 II 공군 장병들에게

- 공(公)과 사(私)의 조화가 아름답다/정보전략연구소장 윤은기 — 40
- 공군난단 신비람 나는 직무수행 문화 창조를 위한 제언/준장 김호동 — 43
- 항공기의 운항과 환경문제 I /중령 이기영 ————— 50
- 대안적(對案的) 미래(未來)/중령 권석원 ————— 60
- 항공우주군 건설의 초석 위성통제체계 구축/중령 한경표 — 66
- 화 보 ————— 73

● 기 획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 용주사(龍珠寺)와 정조/중위 윤재홍 ————— 81
 -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아십니까?/중위 응홍근 ————— 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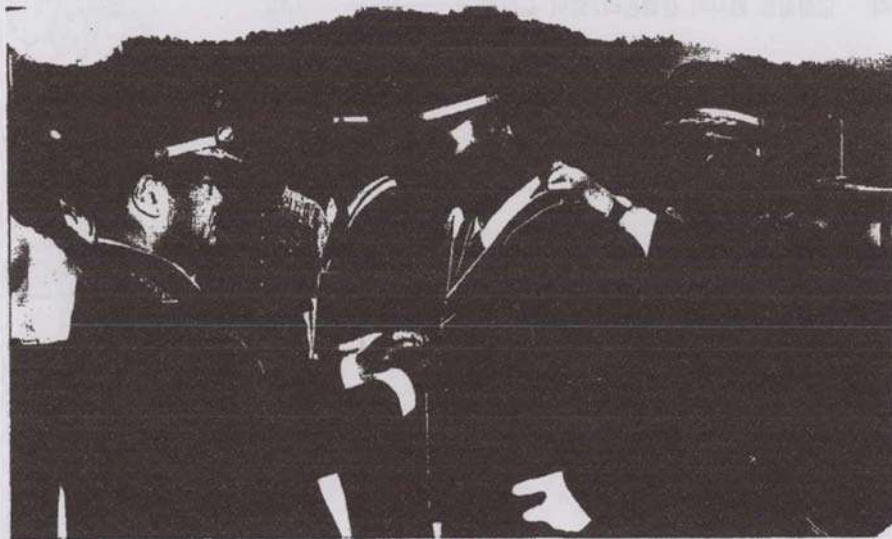
글 차례

- 여기, 화랑도 정신이 깃든 한송정(寒松亭)이 있다/중위 박진규-91
- 나의 제언 세계일류 공군을 위하여/중령 김종욱 ————— 96
주체적 자아로서의 참모습/일병 우성영 ————— 100
 - 시사안보 홍콩반환 과정과 그 의의/정치학박사 김영진 ————— 103
탈 냉전기 동북아 패권각축과 우리의 대응/중위 허영재-110
 - 만 화 말년의 의무?/고석현 ————— 117
 - 독 후 감 마이클크라이튼의 "에어프레임"을 읽고/중위 홍승진 — 125
사람들이 모이는 테마파크의 비밀/상병 김종진 ————— 129
 - 건강관리 만성질환 환자의 생활관리/중위 김성진 ————— 132
 - 공군문단
— 수 필 — 늦쇠대야의 미소처럼/대위 이상규 ————— 137
— 영화평 — 사람과 전쟁의 서사시, ENGLISH PATIENT를 보고
/공군가족 신경주 ————— 140
— 소 설 — 젓가락/병장 정재규 ————— 143
— 시 — 수석(8)/중위 전호명 ————— 150
— 시 — 지금 나에겐/병장 김세철 ————— 151
 - 글을 기다립니다. ————— 152

공군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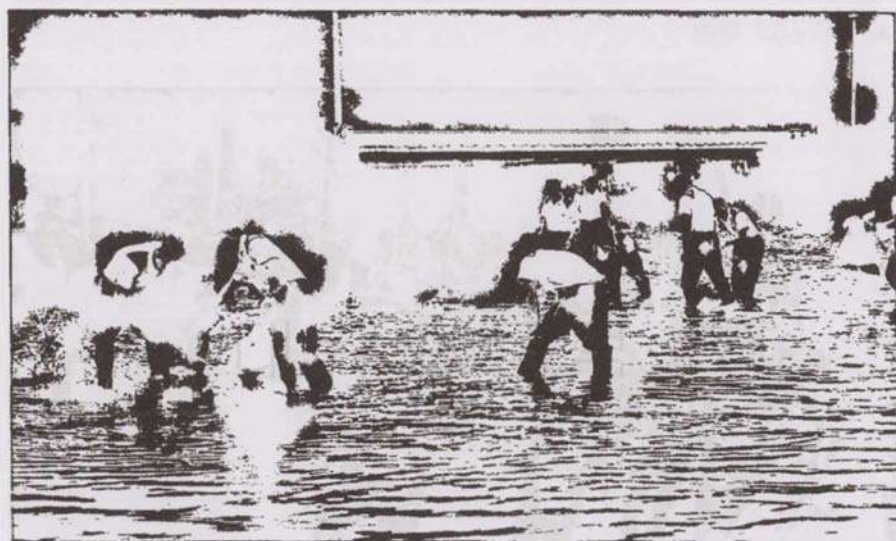
▲ 김영삼 대통령께서 임석한 가운데 공군 최강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서산 기지의 전력화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 대통령은 기지현황 보고, 기지 초도순시, BLACK EAGLE 특수비행 관람, KF-16기 시승 등의 행사후, 부대 창설과 최선에 KF-16 전력화에 따른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6.18)



▲ 제98기 사관후보생 임관식이 참모총장을 비롯한 내외귀빈, 가족·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참모총장은 훈시에서 "투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을 당부하였다. (7.2.)



▲ 공군본부를 방문한 태국 공군 총사령관 이몬 내위말리(Amom Naewmalee) 대장을 접견하여 아·태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공군의 발전방향 등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군 간의 한결같은 우의와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7.10.)



▲ 공군본부는 계룡대 인근 지역에 대한 가을맞이 자연정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전 국토 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이날 행사에는 약 500여 명의 장병 및 군무원이 참가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였다. (8.30.)

사관 학교 생도 하계 집중 훈련

공군의 예비 보라매들이 각 학년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터 4주간 하계 집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학과 시간에 습득한 이론지식을 현장에서 실습·체험하고 강인한 체력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수영강화 훈련



▲ 행군 훈련



▲ 수영 준비 운동



▲ 보트 실습 훈련

하계 군 자녀 교육

공군본부는 8월 12일부터 2박 3일간 대학 1학년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계 군 자녀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양강좌, 공군사관학교 방문, 전쟁기념관 및 3땅굴 견학, 전사적지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이번 교육은 군 자녀들에게 투철한 안보의식과 공군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 공군사관학교 방문



▲ 전쟁기념관 견학

확고한 대적관 확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시기 직업상 관계로 비교적 외국에 많이 다녔으며 남한의 발전상에 대하여서도 나름대로 일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직접 보고 들은 한국의 현실은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만방에 빛을 뿌리고 있는 한국의 발전된 현실을 보면서 짧은 기간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여 놓은 남녘 동포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북한 김정일 정치체제는 철두철미한 수령의 개인독재체제이며 정권도 당도 군대도 다 수령의 개인 소유물이며 심지어 민족도 국가도 수령의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인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오직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전쟁의 위협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그럴 리가 없다는 지나친 낙관론에 젖어있는 안보불감증의 만연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정일 김일성 김두관 김도형



徐 弘 教
대령/정훈공보실장

62년 쿠바사태시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처하여 소련의 미사일을 쿠바로부터 철수시켰다. 이는 공산주의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 오직 강력한 힘만이 공산주의를 굴복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전쟁을 막고 통일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남한이 제 역할을 못하고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민족과 역사 앞에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전쟁을 막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며 우리 민족의 안전과 미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단결하여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모험적 기습 전쟁도발을 막는 길은, 우리가 그들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아무리 전쟁을 해보았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황장엽은 "내 말에 의문을 갖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으로 민족적 비극의 재연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황장엽의 경고에 대하여 우리 공군 장병은 "강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한시도 잊지 말고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로 주어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

필승의 정예공군 육성



구 정 회
준장/제16전투 비행단장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일 죽는다는 사람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 최선(最善)을 다 하고, 영원히 살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배우며 살자"는 말을 마음에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지금도 이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휘관이 이러한 삶을 숭선할 때 부하들의 마음에 음각(陰刻)되리라 기대하면서, 지휘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직과 자원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통솔하고, 부대원들에게는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시킴으로써 세계 일류 정예 공군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대의 손과 발이 되는 사병에서부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와 두뇌의 역할을 하는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그들 각자는 부대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구성원들로 자신의 역할을 성실

히 수행해야만 한다.

인본주의 중심의 안전활동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유기적인 관계와 기능을 발휘하면서 원활하게 회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이 커서도 안되고 작아서도 안된다. 모든 부분과 톱 사이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 것이다.

군과 부대 운영도 이와 같다. 공군의 주는 조종사라고 해서 비행 분야만 중시 되어서는 안되며, 항공기 정비와 물자지원을 담당하는 군수분야와 후생복지, 기지방어, 교육훈련, 그리고 정신교육 등 모든 부서와 분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만 전투 승수(乘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반임무에 대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과 전우애로 뭉쳐진 희생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대장병들은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나의 몫을 다하자. 오늘은 더 잘하자"는 단구호(團口號)를 제창하면서 자신이 부대발전의 주체임을 항상 인식하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자신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 나아가 부대와 부대원들에 대한 사랑이 먼저 충만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사랑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바탕되어야 한다.

부자(父子)로 이루어진 군대는 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부자 간의 사랑 속에 모든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조직으로 우리 군이 성장한다면 백전불패의 강한 군대로 육성될 것이다. 또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사고도 사라질 것이다. "병사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겨라. 그러면 그들은 깊고 험한 계곡이라도 그대를 따를 것이다. 그들을 소중한 자식같이 보살피라. 죽음을 무릅쓰고 그대 옆에 있을 것이다." 막 태어난 신생아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으나,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 사고는 예방된다. 많은 희생을 가져 온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픈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최첨단 고가 장비를 운영하는 우리 공군의 안전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다. 지상 및 공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현존 전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감독계층이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인본주의 중심의 안전활동의 전개해야 할 것이다.

비행안전 101작전, 총력안전 122작전 등의 개념과 구호가 진정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에서부터 일선 장병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서 총화적 안전활동을 전개해야만이 가능하다. 결국 사랑과 안전은 등식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개발

과거에는 군이 사회에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전수해 주었으나 현재의 군은 행정처리 절차, 정보화 마인드 등 여러 면에서 사회로부터 배우고 있다. 왜 군에 뒤져 있던 사회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앞서 가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사회는 무한(無限)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현실에 안주하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군의 밝은 미래를 영위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공방위임무완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앞을 대한 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금년도 전반기에 배움의 시기를 놓친 장병을 위해 부대 내에 전문대학분교를 유치한 바 있다. 이 교육에서 장병들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어학실과 컴퓨터 실을 운영하고 주부대학 과정도 개설하여 군가족으로서 공군과 부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병들이 자신을 능력을 개발하는데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업무수행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업무처리 권한을 하급 지휘관에게 대폭 위임하여 중간 계층이 활기를 띠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권한과 책임의 확대는 곧 신뢰를 의미한다. 그것은 장병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함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역할을 한다. 결국 권한과 책임의 확대는 장병들의 의식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효과를 무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통합적 조직관리로 공군목표달성

군 지휘관리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인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국방임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고귀한 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적절히 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휘관에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이 공군과 부대 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군의 전 장병이

합심(合心)하여 부대를 유지해 나가면서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자 간의 관계와 같은 돈독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장병들이 부대 발전의 주체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부대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체(要諦)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지난 번 부대 내에 설립한 전문대학 과정에 입학하였던 한 장병이 내게 보내온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희 33명은 은 비록 늦게 시작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열심히 배우고 익혀 도와 주신 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근무를 하든지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동료들에게 배플 줄 아는 인간이 될 것이며, 고여 있어 썩는 물이 아닌 항상 흘러가는 명경 같은 맑은 물이 되어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이 장병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평소 생활신조로 삼고 있는 서두의 말을 답장으로 대신한다. **등근**

21세기를 위한 공군의 준비



김 은 기

대령/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처장

I. 서론

준비된 자는 여유있게 선도할 수 있고 준비 되지 않은 자는 허겁지겁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세상이다. 옛날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도 따라가면서 준비하여 보조를 맞출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따라가기도 바쁜 세상이 되었다. 시간이 사람을 기다리는 법은 없으며 우리가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건 되어 있지 않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간은 간다. 그래서 미래는 분명 준비한 자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구소련 붕괴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도 이러한 이유로 각 군마다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전쟁 모의연습(War Game & Simulation)을 통하여 다음 세기에도 지금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지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미육군의 'FORCE XXI,' 'AAN(Army after Next), '미공군의 G-GLOBAL ENGAGEMENT : A VISION FOR THE 21st CENTURY AIR

FORCE,' AIR FORCE 2025, SPACECAST 2020, 미해군의 FOR WARD.... FROM THE SEA,' 미해병대의 'OPERATIONAL MANEUVER..... FROM THE SEA' 등을 들 수 있다. 세계 석학들은 21세기가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도 막연하나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막연한 소망 그 이상의 것, 즉 구체적인 계획 하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립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II. 21세기를 향한 공군의 비전

비전은 "조직이 중,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미래상"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우리의 소망을 실현하고 성큼 우리 앞에 다가선 21세기를 공군의 르네상스기로 활짝 열어가

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노력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비전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현 가능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의 실현 시기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21세기 미공군의 전략적 비전인 'Global Engagement'를 예로 살펴보면, 21세기의 첫 4반세기(2025년을 의미)를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 6개의 핵심구비능력(Core competencies)-공중 및 우주에서의 우세(Air and Space Superiority), 범세계적 공격(Global Attack), 신속한 범세계적 이동성(Rapid Global Mobility), 정밀교전(Precision Engagement), 정보우세(Information Superiority), 즉응적 전투지원(Agile Combat Support) -을 제시하고 있다.

미공군이 전략적 비전 설정시 사용한 사고의 틀은 "2025년도 국가가 군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무엇을(What), 어디서(Where), 어떻게(How), 언제(when) 국가의 요구에 군이 부응할 것인가를 자문자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로 되돌아와 그러면 우리 공군비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목표 하에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기준 시점의 설정으로서 이 시점은 미공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1세기 첫 4반세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리 미래 예측이라 하더라도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미공군이 21세기 미공군의 비전을 설정 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가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미국의 경우처럼 미래에 대해 실제적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 연구나 전문적 분석평가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예측에 참고할 수 있는 학문적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예측가능한 미래 시점의 설정을 위해서는 객관성과 유용성이 있는 자료의 선택적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미공군이 연구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자료 사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해도 '왜 미국의 자료이어야 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우리와 많은 경우에 있어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정보화사회라 특징지우고 있고 동·서양간의 기술 및 정보교류가 현재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기술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는 매우 근소한 것이며 이를 일반화해 볼 때 많은 분야에 있어 기술의 보편화 현상은 우리와 미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를 관심점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자료는 객관성 면에서 다른 나라의 자료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군의 비전설정 시 유사한 시기를 예측자료로 사용한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다음은 목표설정 부분이다. 군의 비전은 비전 달성 시점에서의 국가이익과 안보, 사회 상황, 기술발전의 경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예측하고, 국방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우리 공군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공군은 잘 설정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공군목표는 타군의 경우보다 최소한 7년이 앞선 1982년도에 설정되었는데 1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도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30년이 경과한다 해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먼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군은 전쟁억제의 주요 요소로서 특히 공군은 그 특성상 응징보복 능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전쟁억제의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군으로서 우주(Space)를 포함한 영공을 방위해야 하는 것은 주임무이고, 전쟁이 발발했을 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이며 국민의 군대로서 군이 국익증진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목표가 2025년도에도 가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가 설정한 시점에서 현 공군목표의 유효성은 정당성을 갖는다.

한편 우리 공군은 1996년도 작성된 "미래 지향적 공군발전 개선방향('96. 4. 30)"에서 공군의 비전(지표로 표기)으로 "세계 일류정예공군건설"을 공식화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일류(World Class)'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는 아닐 지라도 전략적 핵심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국보다 우수하거나 대등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일류 공군이라 하면 미국, 독일,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이 해당되지만 이스라엘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머지않아 일본, 중국도 포함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공군의 지표가 실현하고자 하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다소 막연한 감이 있으며, 지표라고 하기 보다는 '대전제'라고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미공군은 '세계일류 공군'을 계속 지향하면서 'Global Engagement'라는 좀 더 구체화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공군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용어 자체에서 형상화가 가능한, 보다 구체화 된 비전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의 나아갈 방향 설정과 제반 공군활동의 지침이 될 비전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비전 설정을 위해 우리는 먼저 21세기 초반, 국가가 우리 공군에 대해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2025년도에 국가가 우리 공군에 대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미공군의 예를 인용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무엇(what)을 요구할 것인가?

- 어느 곳,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의 이해/이익이 위협받게 될 때 이를 보호
- 새로운 도전과 임무에 적절히 대처
- 적의 기습으로부터 방호
- 전략적 및 작전적 선택방안 제공
- 과학과 기술을 변화에 적절히 대응

둘째, 어떤 상황하(Where)에서 요구할 것인가?

- 전통적 및 비전통적 환경(비정상적 환경)
- 화생방 무기(NBC Weapons) 위협 하 또는 화생방 무기 사용 후
- 범세계적 정보권(Global infosphere)

셋째, 어떻게 (HOW)요구에 응할 것인가?

- 전장(Battle space) 우세에 의한 국가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
- 최소 인적 손실로
- 공중 폭격시 의도되지 않는 주변 피해 최소화
- 국가적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소요로
- 국가적 가치에 의거하여
- 합동 작전시 동반자로서

넷째, 언제 국가의 요구에 응할 것인가?

○ 요청을 받았을 시 즉각적으로

이상에서 살펴 본 사실만을 바탕으로 우리 공군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 다소 염려되는 점도 있으나 '비밀 언덕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용기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공군인 이 문제로 고민할 수 있도록 '화두(話頭)'를 던진다. 명실공히 우리들의 비전이 설정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감히 '21세기 공군 비전안(案)'으로 '범세계적 시야(Global View),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를 제시해 본다.

먼저, '범세계적 시야'란 전세계를 대상으로하여 국제적 역학관계와 정세 판단 및 동향파악이 가능한 우리 방식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미로서, Software측면에서의 '사실 관찰에 필요한 방법 및 판단에 필요한 지식'구비와 Hardware측면에서의 정보수집 수단 구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상호 간의 역학관계와 국제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21세기에는 더욱 발달된 교통 및 통신수단으로 인하여 각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이다. 생활권역이 크게 확대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연유로, 비록 우리나라가 극동아시아 지역에 속하여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알 경우 전체에서 괴리되어 있는 만큼의 부정확한 결심이 불가피 하게 될 것이므로 '범세계적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능력구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선별적 관여는 세계화되어질 국가 간의 문제와 국내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책임있는 독립적 주체로서 국가적 이익에 따라 공군의 관여 여부(공군의 관여는 이미

공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될것임)가 선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범세계적 시야'의 구비를 필요로 한다.

한편 우리가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군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전을 실현할 주체로서의 공군력을 바로 이해할 때만이 바른 출발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공군력에 대한 바른 이해

공군력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장방식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군력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항공기의 등장이 전쟁수행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세대별 구분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구분방식이 비전 설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일반론적 고찰을 이용하고자 한다.

군사 분야의 발전은 계속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의 전쟁 수행방식은 일반적으로 특성별 구분이 가능한 세 개의 세대로(Three distinct generation)분류할 수 있다.

제1세대 전투는 활강식 머스킷 총(Smooth bore Musket)사용과 열과 오(Line and Column)를 중심으로 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 전술은 부분적으로 기술발전의 요인에 따라 발전 되었는데, 열(Line)은 화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형성되었고, 총의 사격 빈도를 높이기 위하여 엄격한 훈련을 필요로 하였다. 제1세대의 전투 수행방식은 무기체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근대 전투에서의 선형전술에서 쉽사리 목격할 수 있다. 한편,

제1세대 전투에서는 작전술(Operational Art)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폴레옹 등 특별한 개별 지휘관에 의해 사용 되었을 뿐이다.

제2세대 전투 수행방식에는 나선형 총열을 지닌 머스킷 총(Rifled Musket)와 후장식 총(Breechloader) 및 가시철사(Barbed Wire), 기관포(Machine Gun), 간접화력(Indirect Fire : 포병에 의한 화력투사) 등의 발전이 반영되었다. 전술은 화력과 이동(Fire and Movement)에 기초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선형을 유지하였다. 방어(Defense) 때에는 적의 전선 돌파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한편, 공격시에는 소규모 부대에 의한 횡적분산으로 전선 돌파를 시도하였다. 제1세대 전투 수행방식과의 근본적 차이는 전술이 주로 간접화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으로, 프랑스 금언이 이를 잘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포병은 승리하고 보병은 정복한다. (The artillery conquers, The infantry occupies)"는 것이다. 대량의 화력이 대규모 병력을 대치한 것이다.

제2세대 전술은 1980년대까지 미육군은 물론 한국군의 교리에 포함되어 야전에서 활용되었다. 아이디어 측면(Ideas)에서의 발전도 있었으나 발전의 원동력은 주로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였으며, 질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큰 변화를 보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화기(Heavier Artillery)와 항공기'였다. 작전술은 페르시아 육군이 최초로 채택, 적용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군이 그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나라가 채택하게 되었다.

제3세대 전투방식은 전장 화력이 증가됨에 따라 발전된 면도 있으나, 변화의 주 원동력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일군의

경우로서, 소모(Attrition)보다는 기동(Maneuver)에 중점을 두고 공격 시 근접전투를 통한 적 전력의 궤멸보다는 돌파구를 형성하거나 우회기동을 통한 적전투력의 와해를 피하는 비선형전술(Nonlinear Tactics)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1918년말에 형성된 이 전술의 기본개념은 탱크의 출현으로 2차 대전시 작전적 수준을 변화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전격전(Blitzkrieg)개념으로서 작전술의 근간을 장소에서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 세대들의 전투양식은 두가지 주원동력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제4세대 전투방식의 변화를 선도할 주원동력은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한 답은 두가지 모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으로 활동중인 Lind는 Marine Corps Gazette('94년 12월호) 기고문에서 제4세대 전투 수행방식의 변화를 주도할 원동력으로 아이디어, 특히 비서구적 아이디어를 상정하고 있으며, 최근 미 공군함모총장을 사임한 Ronald R. Fogleman 대장은 미공군협회가 주최한 세미나('95.2.)에서 기술과 아이디어(개념과 교리) 등에 있어 창조적 사고를 포함) 두가지 모두를 상정하고 있다. 우리의 논점이 '공군력에 대한 이해'임으로 공군의 시각을 지닌 Fogleman 장군의 관점을 따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기술의 발전이 전투 수행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기술과 아이디어 모두를 제4세대 전투 수행방식의 원동력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공군력을 이해하려한다면 지금까지의 공군력에 대한 통념적 생각부터

공군의 오늘과 내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공군체복을 입고 있는 장병들까지도 공군력을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정보등 기능적 측면에서만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군력은 '국가안보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간상, 전력의 집중 측면에서 그리고 점하고 있는 위치와 조기경보 및 전장감시 측면에서 적보다 월등한 우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중과 우주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탐구 및 통제 가능한 독특한 능력의 집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공군의 특성인 속도, 고도, 거리, 융통성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분산하거나 집중적 사용이 가능하고, 단시간내 한 전장으로 부터 다른 전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실시간 전장 감시 및 표적식별과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 등 3차 공간을 활동영역으로 하고 있음에 따른 다양성과 이점이 있음은 물론, 군사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밀성 및 치명성이 매우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군사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꾸준히 이루어져, 현재에도 출격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도록 폭탄의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고 GPS의 활용에 의한 정밀도의 향상으로 원거리 폭탄투하로도 근거리 폭탄투하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LASER 등을 이용한 직접 에너지(DIRECT Energy) 무기가 실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등 군사영역으로서 공중 및 우주공간과 PLATFORM으로서 항공기 및 위성이 그 효율성을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미 바뀌어져가고 있다. 현재도 이러한 진전 기술 발전이 가속화 될 21세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환경이 조성될 것임으로 우리의 대비와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군력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어 있

지 않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사는 형상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과거 공군력 증강을 전투기 댓수 증가로 이해했던 지엽적 통념에서 벗어나 공군의 전력증강이 일개군의 전력 증강이 아닌 국가적 수준의 전력증강이라는 점과 우주가 공군의 활동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우리가 먼저 인식함은 물론 국민과 타군에게도 알려야하며, 합동전역(Joint Campaign)을 수행함에 있어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을 최대한로 창출할 수 있고, 전시 전구(Theater) 전체를 단일 임무 지역화 할 수 있으며, 전술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평소 그 선천적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히, 적은 경비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공군이야말로 3군 전력 중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전력이라는 점을 이해 시키는 일에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 조국의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 혁신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공군력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총력을 경주하여 지금부터 차근 차근 21세기의 우리공군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21세기를 위한 공군의 준비

Fogleman 장군은 '95년도 2월 미국 Florida 주 Orland에서 개최된 미공군협회 주최 심포지움에서 'Getting the Air Force into the 21st Century' 라는 주제로 연설한 바 있다. 그는 연설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공군의 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하였는 바, 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특성상 기술에 기인(Technology based)하고 있는 항공우주력(Air and Space Power)"은

우리에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기술의 발달에 맞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항공우주력을 운용하지 못할 경우, 특히 기술의 진보가 매우 빠른 정보에 기초한 훈련(Information - Based Disciplines)분야에서 혁신적이지 못할 경우 우리는 다음 세기에 지금과 같은 우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음 세기 초 수행하게 될 전투(Warfare)의 특징은 첫째, 정보(Information)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 바, 정보를 보다 빨리 분석하고 대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쪽이 이기게 될 것이며, 적의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관찰(control and Monitor)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전쟁 수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정밀 공격의 가치이다. 정보작전과의 결합에 의해 표적의 포착으로부터 파괴시키기까지의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 상황에서 항공우주력은 핵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항공우주력의 특성인 속도, 거리, 융통성, 치명성 등은 원하는 지점에 재빨리 도달할 수 있게 하며, 재빠른 도달은 억제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만약 억제 및 영향력 행사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공중으로부터 교전할 수 있는 항공전력의 경제성은 국가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 (Vital to our nation)”

“표적당 몇 대의 항공기를 배당할 것인가(Aircraft-per-target)를 계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 갔으며, 이제는 항공기당 표적을 몇 개 배당할 것인가 (Targets-per-Aircraft)를 생각할 때가 왔다.

항공우주력을 이용한 공중 및 우주로부터의 동시 공격은 충격과 기습(Shock and Surprise)이라는 고전적 방법에 의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전쟁사에서 중요한 전환은 항상 충격과 기습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것은 전술적 차원 뿐만 아니라 작전적 전략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1세기에도 미국은 지상전을 수행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육군과 해병대가 필요하며, 바다를 지키고 해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해군이 필요하다. 오직 공군의 항공우주력만이 적의 공군력, 해군력 및 지상군 전력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으며, 적국의 지휘부와 경제력의 중심을 일시에 곤경에 빠트릴 수 있다.”

“공중 우세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F-22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F-22 사업은 공군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인 것이다.”

다소 많은 분량을 인용하였지만 우리는 Fogelman 장군의 연설 내용이 시사하는 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공군의 활동 영역안에 수용해야 할 공간으로서 대기권 밖의 우주공간(Space)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더 이상 지체 없이 발전시켜야 할 분야로서의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분야, 기술진보에 따라 공군력의 선천적 다재다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할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 및 구비,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공군만의 소아적 집단이기주의에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한 것임을 국민과 타군에게 설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논리의 개발과 연구의 필요성 등이

공군의 오늘과 내일

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활동영역화 해야 할 두 개의 공간(Space)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공간(Space)과 가상공간(Cyber Space)이다.

먼저, 우주공간으로 공군의 활동영역을 확장 시켜야 할 필요성으로서 범세계적 시야(Global View)를 갖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구에 대한 지식은 정보활용상 양과 질(Quantity and Quality)은 물론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실시간에 상황정보의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는 안보 유지에 큰장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공개 함으로써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거나 협상시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994년 북한 핵개발의혹 및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 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이러한 능력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설이 있음). 또한 전쟁시 우주감시체계를 통하여 입수된 전장 및 전구(Theater) 정보의 전투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됨으로써 우군의 진퇴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주를 거점으로 Laser를 이용한 공격 및 적의 미사일 탐지, 요격 등 우주공간에 머물면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비행체를 운영하거나 우주공간을 활용한 운송수단의 발전등은 장차전 수행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 일, 러, 주변 3국이 모두 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지 않는다면 자국국방을 구호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상공간(Cyberspace)은 어떤

한가?

'가상공간'은 원래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라고 하는 미국 태생 공상과학소설 작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0년대 초 어느 날 깁슨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비디오 상가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아이들의 정신을 온통 빼앗고 있는 비디오 게임기 스크린 이면의 상상의 영역, 즉 그 영역이 실재하지는 않지만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영역을 '가상공간'이라 이름지었다. 그 후 깁슨은 그의 소설에서 '가상공간'을 컴퓨터로 인해 생성된 또 다른 공간으로 묘사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수많은 컴퓨터 시스템, 특히 인터넷으로 연결된 수백만대의 컴퓨터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가상공간의 영역을 군사적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군사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컴퓨터의 군사분야 활용 이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해커들의 가상공간 침범을 효과적으로 차단 시킬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며, 지휘, 통제 및 전장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체계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사활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용에서뿐만 아니라 보호대책까지도 완벽히 수립, 대처해나가야 한다.

미국은 이미 적대국은 물론 이해 대상국가의 정책결정/결심과정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시키는 한편, 미공군 자체적으로 OSI 내에 컴퓨터 보안 전담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96년도 미국방부 컴퓨터망에 침투했던 해커를 색출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또한 이제 지나간 이야

기로 치부되고 있지만 걸프 전 당시 이라크의 지휘통제 컴퓨터 망에 바이러스(Virus)를 장치하였다는 풍문과, 지휘통제상 필요한 자료에 미국이 접근, 전송에 기여했다는 후문이 들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명칭을 부여한 것이 바로 Information Warfare 이며, 이 시대에 국가의 이해와 반하는 국가나 조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C41 수단으로 이용하는 컴퓨터 및 SoftWare의 자급자족에 대한 중요성을 안보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 공군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4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을 바탕으로 한 (Knowledge-based) 인재양성, 기술을 바탕으로 한 (Technology-based) 무기체계 및 장비구비, 정보를 바탕으로 한 (Information-based) 전장 공간관리 및 지휘, 통제(BM C2 : Battlespace management, Command and Control), 우주공간을 거점으로 한 (Space-based) 감시체계 및 공격방어 체계 구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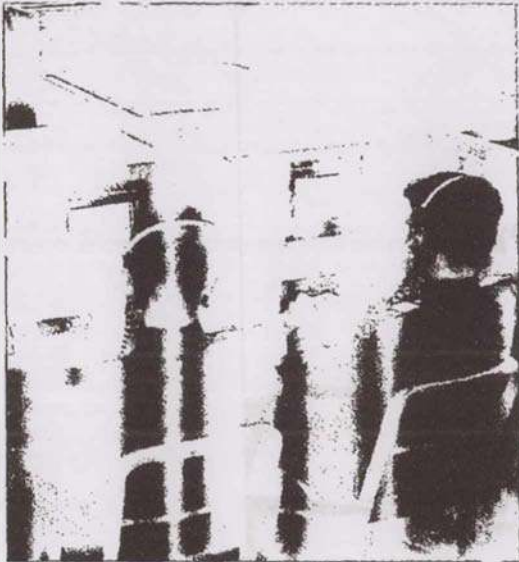
지식을 바탕으로 한 (Knowledge-Based) 인재 양성

Fogleman 장군은 앞서 소개한 연설에서 21세기 미국군의 핵심은 우수한 인력(Good People)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재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거의 절대적이다. 21세기 우리 공군은 꼭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기술 집약적 무기체계와 장비를 운용하여, 신속 대응력으로 국가방위에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극도로 전문화된 조직체로 매우 빠른 작전 템포하에

운영될 것이며 그로 인해 분권화된 기능수행이 요구될 것임으로 공군 장병 개개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임무에 대해 분명한 인식 및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군력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유사군종간의 대칭적 교전 (Symmetric Engagement)은 물론 비유사군종간의 비대칭적 교전 (Asymmetric Engagement)의 효율성과 방안을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 시켜 장차전에서 공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만 기회가 다가왔을 때 우리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임으로 우리는 이를 가능케 할 인재양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제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Technology-Based) 무기체계 및 장비 구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공군장병에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수단은 무기체계일 수도 있고 장비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무엇 일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는 이제 전략적 사고에 입각한 기술을 바탕으로 장병의 무장(Equipping) 시킬 필요가 있다. 미래 우리의 안보 환경의 예측할 때 중국·일본·러시아를 도외시 할 수 없으므로 무기체계 획득 및 공동개발 시 반드시 주변국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무기체계 구매 및 공동 연구개발에 있어 파트너로는 유럽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식 무기체계로의 승부는 이미 결판이 난 상태이다.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도 이와 같으며 유사하여 구소련의 무기체제로 무장한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우리는 열세일 수밖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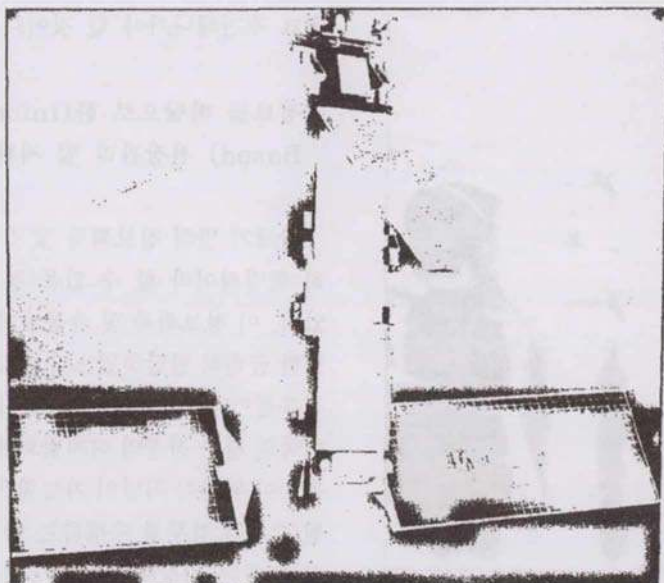
없다. 한편 유럽은 냉전 구도하에서 구소련식 무기체계와의 대결을 전제로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미국과의 기술 교류가 있었는가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자존심에 의한 독자성 추구가 한몫을 하여 미국과도 다른 독특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무기체계 판매시 자국의 안보에 위협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유럽은 우리나라와 거리적, 역사적으로 적대관계가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군사 협력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변국과 다른 무기체제로 장비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 능력에 대해 불완전한 평가를 강요할 수 있게 됨으로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기체계 및 장비구비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 아닌 독특함에서 추진해나가되 첨단장비의 고가화 현상을 감안하여 공동개발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를 바탕으로 한(Information-Based) 전장관리 및 지휘통제(BM C2)

금세기 말의 정보획득 및 유통체계 발달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 정보획득 및 유통체계의 군사 분야활용 또한 급속히 발달하였으나 이것이 몇몇 선진국의 점유물이 된 듯한 인상을 쉽사리 지울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전장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지상군간 적·아 위치식 식별이 가능함은 물론 근접항공지원(CAS)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 좌석 내에서 전선에 있는 지상병력을 적·아 식별이 가능하게 되었고, 공군의 AWACS와 같은 역할을 하는 J-STARS의 전력화로 지상군의 전장 감시 및 지휘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JTIDS (Joint Tactical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의 실용화로 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조종석 내에서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전선의 상황파악을 실시간/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전장 전투까지도 후방사령부에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작전 템포가 급속히 빨라질 장차 전장, 특히 공군력 운영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조종사가 판단하여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사령부에서의 전황 판단에 의한 상황처리가 아닌 전장에서의 전황판단에 의한 상황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령관 중심이 아닌 전투요원 위주로 전장관리 및 지휘통제(BM C2)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을 거점으로 한(Space-Based) 감시 체계 및 공격방어 체계구축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주 공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우주 공간을 주로 감시체계 및 정보유통의 거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나 미국은 향후 10년 이내 우주통제는 국방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Spacecast 2020에서 방어적 대우주(the Defensive Counterspace)와 공격적 대우주(the Dffensive Counterspace)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주 공수 및 우주 보급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우주공간은 넘겨다 볼 수 없는 '그림의 떡인가?' 우주의 점유없이 미래는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경쟁이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우주공간의 군사적 사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현실을 바탕으로 한 사고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사활을 걸고 우주 공간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필요도 있다. 제3공화국 당시 전세계에 흩어져 있던 과학자들을 한민족의 이름으로 불러 과학입국을 실현했던 것처럼 배달민족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주강국으로의 입국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달린 우주공간의 거점화로 범세계적 감시체계 구축 및 국가의 생존을 위한 공격 및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하겠다.

V. 결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조직의 미래가 결정된다.

비전은 실현 가능해야 하며 용어자체가 손에

잡힐 듯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세계일류정예 공군건설'은 막연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시점의 설정이 없어 비전이라기 보다는 대전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먼 훗날처럼 느껴지지만 금시 현실로 다가올 202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비밀언덕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전 공군인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화두(話頭)'로서 '범세계적 시야, 선택적 관여(Global View, Selective Engagement)'를 감히 21세기 초 공군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바른 출발점을 설정하기 위해 비전 실현의 주체가 될 공군력의 바른 이해를 촉구하였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 될 수밖에 없기에 21세기를 맞이하는 공군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이 인식하고 활동

영역화해야 할 두 개의 공간으로 우주공간(Space)와 가상공간(Cyber Space)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관심을 가지고 연구발전시켜야 할 네가지 기본요소로 지식을 바탕으로한(Knowledge -Based) 인재양성, 전략적 사고하에 기술을 바탕으로한 (Technology -Based)무기체계 및 장비구비, 정보를 바탕으로한(Information-Based) 전장 공간 관리 및 지휘통제, 우주공간을 거점으로 한 (Space -Based) 감시체계 및 공격·방어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우주강국으로의 입국과 실재하는 영토는 없지만 분명히 실재하는 가상공간의 정복을 실현시킬 21세기 자랑스러운 내일의 우리 공군을 꿈꾸며 부족하지만 이 글을 전 공군인에게 바친다. **공근**

대위 이동혁

참신한 공군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박 치 문

중위/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공군은 강해야 한다. 21세기 통일한국의 자주국방은 보라매의 두 날개로 비상해야 한다.

탈냉전과 양극체제의 붕괴는 기존 국제 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냉전 시기 미소를 정점으로 한 안보동맹의 유효성이 약화되었으며, 국방·정치 분야 중심에서 경제, 문화 등으로 국가간 관심의 폭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부문에 대한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 정치 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안보개념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제 안보는 국가의 생존이라는 차원을 넘어 다변화된 국가이익의 가장 직접하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성격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따라서, 현 국제정세의 특징은 국가간 갈등과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갈등의 고도화된 표현으로서의 전쟁' 가능성 상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국가간 상호의존성 심화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적의 전멸이 아닌 굴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 둘째, 발달된 무기체계에 의해 제한된 수단과 범위 내에서도 국가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지전의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안보의 개념 역시 전면전뿐만 아니라 제한전이나 국지전 부분까지 포괄하여 국가의지 표현의 효율성 제고와 적절한 대응에 의한 확전 억지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변화된 안보상황과 현대전의 양상을 통해 볼 때 국가의지의 표현수단과 전쟁의 억제수단으로서 공군력은 그 중요성을 더할 수밖에 없다. 공군력은 고도, 속도, 거리, 융통성이라는 특성과 고도화된 무기체계 운용이라는 특성으로 인

해 국가간의 갈등상황에서 국가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수단이며 국방 자주성의 요체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21세기 통일한국의 자주국방은 공군력의 발전과 그 케도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한 공군 건설을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새로운 공군문화의 정립」, 우리가 친숙한 표현에 따르면 「참신한 공군문화 구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풍조가 바뀌어야 한다.' '선진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등의 표현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문화가 사회발전에 있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군문화 역시 공군조직이 발전해 나아가는데 있어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즉, 공군문화는 공군을 발전시킬 수도 퇴보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참신한 공군문화'란 공군조직이 발전해 나아가는데 있어 순기능을 하는, 조직의 발전방향이 문화적 정향과 일치할 때 발전은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개념이다.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문화인류학자들로부터 하여금 일본 문화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인들에게 카미카제식 전투나, 하라키리(할복)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행태였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태평양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성과물이 루스 베네딕트라는 여류학자가 저술한 「국화와 칼」이라는 작품이다.

전쟁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중에도 일본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친 미국은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폭투하를 통한 천황의 항복이라는 수순으로 전쟁을 종결시키게 된다. 이는 당시 일본이 천황을 정점으로 한 철저한 봉건적 위계질서를 가진 사회였으며, 따라서 천황의 항복은 일본군 전체의 심리적 항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 결과는 미군의 일본본토 무혈입성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무엇보다 문화라는 것이 한 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것이기에 단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추상적인 범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삶 자체를 규정하는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까지 외현된다. 즉, 문화는 단지 삶의 방식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관습, 규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부분의 작동원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정의, 기능,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그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상이한 접근법이 존재하나, 대체로 문화가 공유가치, 상징체계, 관리-구조체계로 이루어진다는 데에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다. 공유가치가 추상적인 수준의 구성원 사이에 공유된 가치관과 이념 등을 뜻한다면, 상징체계와 관리체계는 이러한 문화의 내용을 표현하고 재생산하는 작동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공군문화'는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성장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제때 옷을 바꿔 입

하지 않으면 어느새 옷이 작아져 우스운 모양이 되고 만다. 문화란 것이 꼭 옷과 같다. 어떤 집단이 그 규모에 따른 적당한 문화를 가지지 못하면 마치 발목이 드러나고, 재봉선이 헤어져 터질듯한 어수룩한 모습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심하게 죄는 옷은 어린아이의 성장 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당하지 못한 문화 역시 조직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공군은 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당시 공군의 규모란 것이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 연간 유지비 98,000불이었다니,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규모나 내용에 있어 매우 보잘 것이 없었다.

80년대말 민주화 열풍이 우리사회에 불어닥쳤다. 당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정치적 개혁 같은 화두들이 주요 쟁점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런 주류에서 벗어난 생소한 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국민 총생산 규모와 민주화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어 1인당 GNP가 5,000\$에 이르면 대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8,000\$에 이르면 경제적 민주화가 이뤄지며, 10,000\$가 되면 사회적 민주화가 이뤄진다는 단계적 발전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었다. 당시 주류를 이루던 논의와는 달리 매우 도식적이고, 인간의 의지와 실천이라는 부분을 배제한 것이었기에 그저 교과서에나 나올만한 것이러니 하고 치부해 버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론이 담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진리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대적어도 그 이론은 일정 정도의 물리적 바탕이 담보되지 않는 한 질적인 도약은 힘들다는 진리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공군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공군은 앞서 말했듯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 공군은 그 규모와 내용에 맞는 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더구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에 공군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그 발전의 속도가 점점 더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변화의 가속도' 자체가 주요한 특징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공군이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선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의 수립 못지 않게 그러한 전략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밑거름으로서의 문화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군문화가 담지하여야 할 미래지향적 성격은 무엇인가?

근대적 발전의 원동력은 효율성이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근대산업사회의 핵심기제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목적달성을 위해 물질·인적자원을 동원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목적합리성이란 말로 대체되기도 하는 이 개념은 필연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나아가는데 있어서의 변수들을 통제해 나가는 방향성을 갖게 되고, 결국 과정에서의 통제와 규제, 통일성과 규격화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근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 군은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군은 그 특성상 국가 방위라는 절대절명의 임무를 가진다. 따라서 임무 수행의 실패는 국가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따라서 군조직은 이러한 임무의 특성상 엄격한 통제와 효율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군조직의 특성은 사회 근대화 시기에 발전을

공군의 오늘과 내일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부각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대한 군의 기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군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로 되어졌다. 현대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주의의 대두를 외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세계시민주의의 확산을 강조하고, 한편에서 경제중심의 사회 및 국제질서의 재편성을 외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문명과 도덕성에 기초한 질서의 재편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회변화내용의 핵심적 테마는 효과성이다. 효과성은 효율성과는 매우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효과성은 규제가 아닌 자율, 획일화가 아닌 탈획일화, 집단성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현대에 와서 효과성 개념이 강조되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특성이 효율성이 강조되던 때의 규격화, 동시화, 집중화는 달리 다원화, 평등화, 개성화 등의 덕목들이 중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즉, 효과성은 현대사회에 있어 발전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인간의 능력을 얼마나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를 중시한다.

94년경 우리사회에는 「국제경쟁력」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확산되고 있었다. 89년의 사회주의권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와 그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런 중에 유럽통합 및 각종 지역경제 불력의 등장은 「보이

지 않는 손」에 의한 자본의 무자비한 지배에 대한 일종의 공포심을 유발시켰고, 이에 대해 우리가 선택한 슬로건이 바로 국제경쟁력확보라는 것이었다. 당시 국제경쟁력의 주요 포인트는 기업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맞춰졌다. 그러나 더 이상 국경이나 민족의 테두리에 묶여 들 수 없는 그야말로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기업의 이익과 국가 내지는 사회의 이익을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도 국제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즉, 국제경쟁력이란 기업도, 정부도 아닌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1)

현 국제경제에 있어서는 단지 상품의 전세계적 유통뿐만 아니라 원료 및 자본의 전세계적 운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이 높을 때, 즉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능력을 갖추었을 때, 자연스럽게 자본과 원료는 모이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소위 선진국이나 첨단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는 고부가가치의 자본집약적 산업이, 개발도상국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란 국적없는 기업의 규모나 생산성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국가 내지는 민족과 같은 거대사회 조직에서도 역시 발전의 중요한 척도는 개개인의 능력을 얼마나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조성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됨을 알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정부 조달을 위해 A, B 두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됐는데, A는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B는 외국기업이지만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려 한다. 이 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느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도 선택의 기준은 경제활동의 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 효과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제와 통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적, 수동적 행동 정향을 이끈다. 앞서 말했듯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간소화를 위하여 과정의 형식화와 규격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관료제이다.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이 수단적 존재로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대 사회구조의 거대화 속에서 각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 등의 덕목들을 사장할 수밖에 없다.

「효과성」 중심의 문화는 다양성과 상호신뢰성에 기반한다.

독일 관념철학의 완성자 헤겔은 그의 저서 「정신현상학」에서 자아의식이 이성과 정신을 거쳐 절대정신으로 발전해 가는 힘든 노정을 변증법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헤겔은 자아와 타자, 주인과 노예의 투쟁은 결국 '인정받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묘사하였다. 국가간 전쟁 역시 헤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국의 국력만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은 이런 의미에서 기존 식민지 운영국에 대하여 국력이 급격히 신장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식민지 재분배, 즉 자국의 국력에 걸맞는 식민지 지분의 인정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리스신화에는 Cyprus의 왕이며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을 너무도 사랑하여, 이에 감동 받은 아프로디테가 그 여인상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고 전한다. 교육학에서는 교육자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감과 신뢰가 피교육자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을 두고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효과성」을 중시하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인정, 즉 다양성의 인정과 수용을 바탕으로 한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얼마전 스웨덴은 동성애자간 결혼을 합법화하였다. 놀라운 것은 법적인 합법, 비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배타적으로 취급되는 다분히 일탈적인 행위가 스웨덴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악이나 도덕적 가치판단여부를 떠나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수용하고 조화시켜 나가는 그들 사회의 포용력이다.

조직 내에서 「효과성」은 다양성의 인정·수용과 함께 상호신뢰성을 필요로 한다. 교육학에는 「피그말리온 효과」²⁾라는 것이 있다. 이를 공군문화와 관련해 재해석하자면, 타자에 대한 규제나 통제의 방식이 아니라 신뢰를 통한 조직의 운영이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의 발휘를 통한 조직의 발전에 더욱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이나 장비를 최적화 하였을 때 생산성이 5배 내지 10배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그 구성원들의 능력이나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하여서는 25배까지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진다.

군조직의 특성상 공군문화의 새로운 정착노력은 리더십을 주요 매개체로 할 수밖에 없다. 앞서 효율성과의 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의 인정과 상호신뢰성에 기반한 효과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참신한 공군문화」 구현을 위한

공군의 오늘과 내일

리더십의 내용 역시 과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아니라 "고도로 복잡해진 조직 속에서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능력"으로서의 리더십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 즉 '효과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공군문화가 요구하는 리더의 상은 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보장해 주는 형태이어야 하며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참신한 공군문화」의 구현

우리는 보통 세기말을 혼돈의 시대라 하며, 또 한 혼돈의 시대에는 영웅이 출현한다고 말한다. 베토벤, 헤겔, 나폴레옹 세 사람은 모두 1769-70년에 태어나 18세기말의 격동기를 각자의 분야에서 헤쳐나간 사람들이다. 당시 봉건주의 타파와 자유주의를 부르짖던 공화주의자로서 베토벤은 교향곡 「영웅」에서 나폴레옹을 찬

미하였다. 서양 관념주의 철학의 완성이자 종말을 고한 대철학자 헤겔 역시 나폴레옹을 찬미하였다. 그는 「정신현상학」과 「법철학」에서 시대정신의 현실태이자, 살아 움직이는 운동으로 나폴레옹을 찬미하였다. 자기의식으로부터 이성, 정신, 절대정신으로 가는 여정은 그 매개체로서 나폴레옹을 발견한 것이다.

49년 10월 1일 창군한 공군은 99년 50주년을 맞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상황은 우리 공군이 진실로 강해질 것을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그 필요에 의해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려 할 때 약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시대변화를 수용, 선도해 나아가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올바른 문화를 가진 조직은 매우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공군에게는 나폴레옹이 필요하다. 모든 구태와 악습을 물리치고 「참신한 공군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으로서 나폴레옹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등극**

대위 이동혁

미래를 향한 공군상



최 반 종

원사/제11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난 젊음이 좋다. 젊음은 그것 고유의 허용이 있고 젊음은 그 자체의 존귀함이 있다. 또한 젊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다. 그 젊음 특유의 욕구가 있고 그것만의 장이 존재한다.

난 세월이 흘러 걸은 변해 가더라도 속에 간직한 젊음만은 잃지 않으려 한다. 한창 꽃다운 20대에 입대하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기도 했던 숱한 순간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녹화되어 있기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고이 간직하고 또 회상해 본 지 벌써 30년. 그것들은 내게 기쁨의 근원이 되었고 또한 기쁨의 대상도 되었다. 요즘 젊은이들과 나의 시대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과 나의 공통점은 이 시간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 젊은 그들은 나와 함께, 그들만의 젊음의 긴 시간을 분단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쓰고 있다. 밖에 두은 것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젊기에 내색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그들과 같이 한반도의 맑고 푸른창공을 지키는 멋진 보라매의 일원이라는 것이 매우 기쁘다.

난 이 글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가 속한 곳곳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공군전우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멋진 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가 얘기를 나누고자 한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제까지 군복무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관찰한 점을 조심스레 여러 전우들과 나누고자는 마음으로, 또 후배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

특히, 이 글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 우리가 목표로 두어야 할 공군상,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갈 주역인 신세대, 그리고 그 주역의 마음가짐과 실천 방향 등을 중심으로 쓰여질 것이다. 나의 전적인 주관에 개입되었기에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본다.

군목표는 어디에 있나?

점호 시간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 보자. 점호청

공군의 오늘과 내일

소는 대체로 끝이 난 듯 하다. 잠시 후 벽시계는 21시30분을 가르킨다. 점호 행사를 취한다. 점호 행사 중 목적 압기로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가 공군목표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국가방위의 핵심 전력으로서,

- 첫째, 전쟁을 억제하고
- 둘째, 영공을 방위하며
- 셋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 넷째, 국익을 증진한다.

난 위의 공군목표를 공군상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고 싶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과거의 공군상이라고 하고 싶다. 넷째는 현재와 미래의 공군상으로 정의하고 싶다.

앞 부분인 과거의 공군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세계사의 일면을 되돌아 본다. 고대에는 영토의 크기와 비옥한 정도가 국력의 척도였다. 이것은 바로 육지에 국한된 국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중세에 마젤란, 콜럼버스 같은 여러 실천력 있는 탐험가들에 의해 지구가 이제까지의 가치판과는 다르게 평면이 아닌 구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여기에 용기를 가지고 너도나도 국력을 집중시켜 해양개척을 서둘렀었다. 이를 통해 머나먼 곳까지 식민지를 두는 제국주의도 생겼다. 해양까지 확장된 국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엔 지금의 땅과 바다에 그치지 않는다.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고 얼마 후 동력을 이용한 항공기가 개발되었다. 항공기의 정보교환, 관측 같은 제한된 임무에서 발전되어 국가간 전투에서도 항공기가 선두에 사용됨으로써 예전의 육상, 해상의 2차원적인 전쟁형태를 벗어나 하늘에서의 3차원적인 전쟁형태가 출현하게 된다.

각 나라마다 다투어 첨단 공군력을 확보하기에 이르게 된다. 전면전, 속도전이란 개념하에선 공군력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군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국가방위의 핵심 전력이다. 적의 중요 군사시설을 신속, 정확하게 파괴시키고 마비시켜 아군의 전투력 증대에 막중한 기여를 한다. 이런 기여도의 실례가 지난 걸프전에서 익히 판명되었다. 즉, 외형상의 공군력의 척도는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종의 첨단화와 정밀도에 좌우된다. 이것을 볼 때 이제까지의 공군력은 타국과의 전쟁에서 영공방위와 전쟁승리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바로 과거의 공군목표이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군은 여기에만 목표를 두지 않는다. 21세기엔 지구란 땅덩어리 자체에만 그 나라의 개척한계점을 두었을 때 그 나라는 다른 발전방향을 잡은 나라들에 의해 자연도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근시안적인 자세를 가진 나라로서는 선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하늘이라는 시각적이고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고 무한 우주시대를 개척해야 된다.

우주개척!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상이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다. 무한의 세계인 우주로 나아가는 데는 대학이라는 상아탑의 연구실적에만 의존할 수 없다. 무언가 확실하고 실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진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개척의 선두 주자였다. 그들의 뒤를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은 2위권 국가들이 서둘러 우주로 나아갔다. 이들의 우주탐사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난 감히 지난 긴 세월간 갖고 닦

아은 공군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본격적인 항공기 전쟁의 시대가 열린 후 각 나라 마다 더욱 빠른 전투기를 필요로 했을 것이며 그 요구에 의해 제트엔진이 개발 되었고 그것을 통한 기술축적으로 우주탐사선을 위한 로켓 엔진이 나오게 되었다. 비단, 엔진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의 발전의 시초가 공군의 요구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우주탐사선에 탑승하는 조종사를 보아도 그 로켓을 연구한 박사들이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공군인력들이 탑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만 예를 들어도 다가오는 21세기의 중점이 되는 우주개척에 공군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익을 증진하는 공군이다. 미래를 위한 공군이라는 말이다.

이젠 우리나라도 고성능 전투기를 국산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투기는 과거에 속하는 공군력이다. 새로운 항공우주시대를 맞이하여 여기에 만족치 않는 지속적인 진보가 있어야겠다.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공군의 거대한 잠재력을 선 보일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가처럼 창공을 뛰어 넘어 무한의 우주의 세계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여기에 한국 공군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 목표를 실현할 주역은 신세대?

여기서 미래의 공군 목표를 펼쳐 나갈 공군주역들을 한 번 살펴보자.

날이 갈수록 타군에 비해 공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그들의 연령이 전에 비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약관의

나이에 군에 입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바로 사회에서 한창 언급되고 있는 신세대들이다. 비단 사회에서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신세대란 말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게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신세대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지한 관찰과 지속적인 관심에 의해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언론매체의 과장에 의해 실상이 부풀려져 생긴 현상이라 보인다. 신세대는 기성세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특유한 동류집단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패턴을 소유한 세대일 뿐이다. 이러한 세대가 사회에 부각되게 되고 군역시 이들을 현재와 미래의 주역으로 수궁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사실 신세대란 아직까지도 정의하기엔 매우 모호한 존재이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 X세대라고 한다. 혹자는 신세대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라 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군이라는 확실성과 감각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는 공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신세대의 부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군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신세대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다. 이것을 자신을 직무와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군이란 사회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신세대의 또 하나의 측면인 창의적이고 자기개성이 분명한 것도 군의 단체위주, 합일성의 속성에 벗어나는 면이 있으나 이것을 잘 조정하여 창의적, 합리적인 부대활동의 기틀로 이끈다면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

공군의 오늘과 내일

들은 무한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2차원적인 공간에서 그들은 안주하지 않는다. 3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4차원, 5차원으로 뻗어가려 하는 것이 그 신세대들이다. 공군은 그러한 신세대들의 욕망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요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발견한 공군의 시발점은 3차원 공간이고 신세대들의 욕구 또한 3차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신세대의 공군상을 결론 지을 수 있게 된다. 피동적으로 무조건 구속 시키지 않는, 그러나 원래의 틀을 벗어나지 않게 신세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 나라가 앞으로 개척해야 할 공군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큰 몫을 할 수 있으리라 난 믿는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까지 공군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한 과제와 그 장정의 주역인 신세대 군인들의 역할과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얼마 전 미국은 화성에 무인 우주탐사선을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 며칠 동안 전세계 뉴스시간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요즘도 가끔 그 탐사선이 보내는 송신자료가 보도되곤 한다.

그 탐사선에 있는 탐사보트에 관한 보도 중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었다. 탐사보트의 팔을 연구하는 팀에 한국인 출신 과학자가 주도적으로 참가했다는 보도였다. 어떻게 볼 때는 로봇의 팔 하나 연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참가했다는 것이 그리 크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로봇 팔 하나가 지난

몇십억년 동안 알지 못했던 화성의 비밀을 밝히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과학자의 역할을 결코 작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한 범위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에 비해 지금의 화성탐사는 무시할 만큼 작고 보잘 것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작은 씨앗이 되어 우주와 우리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줄 수 있다. 우리가 속한 공군의 범위는 마치 우주처럼 매우 거대하고 광범위하다. 그리고 각자가 매일 해 나가는 맡겨진 임무는 조그한 화성탐사선처럼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고 보잘 것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 내는 작은 임무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공군력 증대의 작은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자체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의 공군력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된다고 믿고 지속적인 실행이 있어야겠다.

우리가 어느 날 활주로에 가서 작은 돌맹이 하나를 주었다고 하자. 이것은 수십억원이나 하는 전투기의 비상사고를 방지한 작지만 거대한 공군력 증대의 보탬이라고 할 수 있다.

전투기 정비 중에 발견한 느슨해진 나사를 무시하지 않고 성실히 조이는 순간 완벽한 비행 성공의 첫 발자국을 조종사가 아닌 정비병인 내가 던졌다고 할 수 있다.

글을 맺는 이 시점에 한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우리의 공군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지 않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자세를 조용히 원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이 해낼 때 우리 대한민국 21세기의 공군력은 세계 속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등문**

전역병의 마지막 인사



김 일 두

병장/제3173부대 부관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쳐버린 나의 몸과 마음이 시원한 소나기로 인해 상쾌해지는 날이었다. “뚝뚝”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낮익은 얼굴들이 하나들 들어왔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려는 전역병들이었다.

“필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잘 있어. 건강해” 라고 말했고 서로 악수를 나누며 웃었다.

그간 친형제처럼 지냈던 박병장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잠시 후 박병장은 잘 접은 종이 쪽지 한 장을 건네 주었다. 전역병들이 간 후 종이 쪽지를 펼쳐 보는데 나는 코끝이 찡해오는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쪽지에는 ‘열심히 생활했지만 더 잘 할 수 있었는데’하는 아쉬움과 ‘나는 이렇게 떠나지만 사회에서 더욱 열심히 생활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테니 너도 얼마남지 않은 군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격려와 ‘남아 있는 후임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라’는 박병장의 부탁이 들어있었다.

모든 일에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던 그였기

에 항상 친형제처럼 잘 따랐고 박병장도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 주었다. 30개월이란 시간을 보람 차게 보낸 그가 너무나도 부러웠고 훈련과 작업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에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활짝 웃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라 생각되었다. 책상에 앉아서 ‘나도 얼마 안 있어 제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흘러 나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나는 약간의 부끄러움에 사로잡혔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너는 이 귀중한 젊은날에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고 느꼈으며, 실천했는가?’ 또 ‘후회없이 생활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이다.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문득 나의 기억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2년전 여름,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 채 안일하게 사회에서 생활했던 나에게 입영통지서가 왔고, 군대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에서 마음껏 누려왔던 자유에 대한 아쉬움을 간직한 채 나는 훈련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군

대는 이렇게 나약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나의 나태함과 이기심 등을 털어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어려운 일들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으며, 참을 수 있는 극기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군에서 느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언제나 투정만 부리며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못난 자식을 군대에 보내시며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 하루도 자식 걱정애 마음 편히 지내시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한때 연고지와 근무 여건 등이 좋은 비행장을 동경했던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공포병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 그들의 모습에서 힘들지만 자신감 넘치는 그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방공포병학교에서 완벽한 대공방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단거리 대공포 교육을 마친 후 포대에 배치되었다. 열심히 부대 생활을 하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며 스스로를 격려했고 방공포병인으로서의 자대생활에 첫발을 내디뎠다.

적막한 새벽을 깨우는 기상의 나팔소리가 울리면 밤 사이 인사드렸던 어머니와 같이 놀던 벗들의 모습을 지우고 산 비탈을 오르며 딱딱한 전투화 소리에 군가를 부르며 아침을 열었다. 하루 하루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작업을 마치고 야간에 포사에서 바라본 등근달은 마치 자상하신 어머니의 얼굴로 보였고, 차량의 불빛은 고향으로 향하는 양, 나에게 긴 여운을 남겨 주었다. 때론 힘들었던 때면 '내가 괜히 고생을 자초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이럴 때 나에게 힘

과 용기를 불어 넣었던 것은 바로 「전우애」였다.

내가 근무를 열의하면 그만큼 동료들은 힘들지만 운동 중에 다리를 다쳐 입실한 나를 위해 아무 불평없이 나의 건강과 안녕만을 빌어주었던 동료들. 숨까지 달아오르는 짐통 같은 무더위에도 모범을 보이며 작업을 이끌었던 고참들. 어제의 피곤이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근무로 힘들어하는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격려하던 고참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으로 대응하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던 고참들. 이런 전우애로 뭉쳐있기에 우리 부대에는 구타나 가혹행위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다. 또 이처럼 전우애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기에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높고 푸른 하늘을 간직한 가을에도, 살을 에이는 듯한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봄을 알리는 개나리 향기에도 우리는 흔들림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내온 내가 어느덧 많은 후임병들을 둔 병장이 되었고 몇 달 뒤면 영광스런 전역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주위로부터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그 말들이 이해가 안되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분들의 말씀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몇일 전 참으로 답답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내무반에 내려가서 TV를 시청했는데 뉴스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국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주어지지만 다

른 의무들은 국가가 존재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의 의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신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요, 고통이라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중요하고 고귀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접하니 문득 얼마 전에 교육부대에 근무하셨던 분의 말씀이 생각났다.

처음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신병들은 몸짓과 동작도 어설피지만 그들의 굳어보이는 표정이 더 어색해 보였는데 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표정을 굳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보다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는 수동적인 자세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또 일부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는가 하면 군에 입대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군생활을 마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이나 형제가 위험하지 않은 편안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 편하면 된다는 소아(小我)적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군생활은 소아적 삶으로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고통의 장소이며 어색하고 힘들기

만한 나날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으니 웬지 씩씩한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이런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큰 뜻을 접어두고라도 이것은 진정으로 자식을 아끼고 자식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30개월이란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균등하게 주어진다. 그런데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아니 금보다도 더 귀중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느낄 수 있는 많은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밝은 미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군대와 사회는 다른 것이고 나중에 제대 후에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군대가 사회와 전혀 관련없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군대는 우리들이 공부했던 학교 생활의 연장이고 사회생활의 출발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합리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보다 자신 있고 패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하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부모님을 위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고 열심히 생활했으면 한다. **등근**

대위 이동혁

공(公)과 사(私)의 조화가 아름답다

윤 은 가

경영학 박사/정보전략연구소장



얼마전 한 시사 월간잡지에서 '다이제스트 인생록'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왜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나? 그리고 현재의 직업을 갖게된 계기는 무엇인가?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등을 써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한 직업군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군대생활을 공군장교로 복무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웠다.

처음 소위로 임관해서 김해비행단에 근무하다가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창설 준비위원회에 가서 잠시 일하게 되었다. 초대 한미연합사령관은 존 베시 대장이다. 주한 미군사령관과 UN군사령관도 겸직하고 있었는데 자그마한 체구에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분이 었다. 나는 이 분으로부터 "공과 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개념을 배웠고 이 개념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큰 깨달음으로 자리잡고 있다. 70년대 후반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언하고 나오자 박정희 대통령과 큰 갈등을 빚은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카터 대통령은 선거공약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했고 이때 주한미군 참모장이던 싱글리브 소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고 발언했다가 곧바로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통령의 정책을 현지주둔 장성이 반대했으니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카터대통령은 곧이어 베시대장을 백악관으로 호출하였다. 이때 카터대통령이 제시한 내용은 주한미군철수를 지지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시킬 의향이 있지만 만약 반대하면 예편시키겠다는 회유와 협박의 카드였다. 따라서 청와대도 긴장했고 한국군 수뇌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베시장군의 답변은 확고한 것이었다.

*저자소개 :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 인하대 경영학 박사, 공군대학 명예교수
저서로는 「타임테크」, 「스마트경영」, 「新경영마인드 365」 외 다수

“각하,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살아온 제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 철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대답을 하고 다시 한미연합사로 돌아왔다. 그말은 그가 부대로 돌아와서 지휘관, 참모들에게 들려준 얘기다.

한국으로서는 일단 안심을 했지만 그가 곧 전역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대분위기는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베시 대장은 얼마후 전역대신 육군 참모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그때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령이 난 사람은 존 메이어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베시 대장이 작전참모부장을 할 때 그 밑에서 차장을 하던 부하였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났다. 그러니까 옛 부하를 상사로 모시고 근무하라는 매우 굴욕적인 인사조치였다. 이때 베시대장이 한 말이 우리를 더욱 감동시켰다.

“나는 예편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참모차장으로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기쁘다. 대통령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미육군본부로 부임하였다. 그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옛 부하였던 총장을 각뚱이 모시고 근무한다는 것이다.

그후 카터 대통령에 이어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자 또다시 묘한 일이 벌어졌다. 군대는 위계질서와 서열을 중시하는 곳인데 이 이상한 보직관계를 알아본 레이건 대통령은 부시대장을 합참의장으로 영전시켰다.

아마도 참모총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참의장이 된 것은 미육군사상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되니 이번에는 메이어 대장과의 서열이 뒤바뀌었다.

청년장교 시절 나는 베시대장의 이런 직업적 자세와 신념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직업군인으로서 참모총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편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강요 받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그도 역시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관이 투철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베시대장은 물론 미국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지만 한국을 위해서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이때 국적을 떠나서 한 인간의 애국심과 직업관에 매료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만약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인간은 공과 사가 충돌할 때 갈등을 느끼기 쉽다.

말로는 ‘멸사봉공’이라는 것이 쉽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든지 쉽게 흔들린다. 나는 사실 멸사봉공이라는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웬지 전제적인 뉘세도 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말은 어느정도 매력을 느낀다. 이 말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근처에 새겨져 있는 김성수선생의 글이다.

“공을 우선하고 사를 뒤로 한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선사후공(先私後公)’이 만연한 사회라면 그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공후사(先公後私)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공과 사가 균형을 맞추는 정도는 되어야 그게 선진사회라고 생각하

고 있다.

사실 공(公)도 중요하고 사(私)도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오늘날에는 개인의 존엄성은 중용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개인은 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적조직은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선진국은 자국민이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외국에서 곤경에 빠지면 공권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은 자기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이것이 바로 선진화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사회에는 천박한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하고 공적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가 하면 겉으로는 대의명분과 공적인 것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지도층 인사들도 적지 않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고쳐져야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GNP만 높아진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붕괴되고, 세금도둑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공과사의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부패나 사건사고도 대부분 공사구분을 못하는 낙후된 문화에서 연유한 것이다. 내 돈은 한 푼도 아끼면서 회사공금은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내 물건은 소중히 아끼면서 공공시설은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보화사회는 네트워크사회고 열린사회다. 이

런 사회일수록 공동의 것을 소중히 하고 공동선을 중시해야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 정보화사회의 미덕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각자가 개성을 살리고 가치관을 존중받으려면 공동의 룰을 지키고 공동의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

도로, 공원, 지하철, 항공시설등은 공동의 자산이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베이스나 정보통신망도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려면 개인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

선진사회와 후진사회의 차이점은 바로 공사의 조화와 균형을 잘 조정해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두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공사의 개념이 분명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긍심이 있고 정정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것을 우선하는 사람은 당당함을 잃기 쉽고 위기에 처했을 때 주위로부터 도움을 얻기도 어렵다.

군대는 공과 사의 개념이 명쾌한 집단이다. 특히 공군은 합리적인 군대와 명예와 신사도를 중시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공군에서 복무한 사람들은 전역 후에도 군 복무시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나 자신도 공군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훌륭한 상관과 좋은 후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공군에서 잘하는 사람은 이 사회 어느곳에 나가서도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공군장병들이 푸른하늘과 같은 높은 패기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기를 기대해 본다. **공군**

신바람 나는 직무수행 문화 창조를 위한 제언



김 호 동

준장/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기획차장

본 내용은 필자가 정신문화 연구원 연수
기간('97. 1. ~ 5.) 중 작성한 내용임

1. 서언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느 국가나 조직을 막론하고 각종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여 튼튼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체 전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과거에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소수 정예의 엘리트 그룹에 의해 관리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 정예요원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중의 또 다른 소수 정예요원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고 나머지 요원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

지만 군과 같은 특수조직의 경우에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소수 엘리트만이 아닌 조직구성원 모두가 각자 재량을 100% 이상 수행해 낼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사기충천한 가운데 일할 맛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무성과를 최고도로 높일 수 있는 신바람나는 직무수행문화 창조를 위해 오늘날 직무수행상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허즈버그의 동기부여 이론을 중심으로 한 군 조직의 바람직한 직무수행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직무수행의 저해 요인

가. 도덕성이 상실된 직무수행 분위기

1995년초의 갤럽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69.4%가 "정직하면 못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은 유달리 운을 좋아하며, 운 중에서도 불로소득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우리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답받지 못하거나 한탕주의, 재수 등의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도덕성의 상실로 인해 직무수행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몇 년 전 있었던 성수대교 및 삼풍 백화점의 붕괴사고, 그리고 끊임없이 밝혀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사건 등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이 현대사회의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은 곧 이성적 존재이어야 할 인간이 그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는 현상(금전만능주의 시대), 인간이 유행과 광고 또는 여론의 노예가 되어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하는 획일화의 현상, 인간이 평생을 일관하는 가치관이나 목표가 없어

인격성을 상실하고, 눈앞의 관능과 쾌락을 좇게 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대부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장병들의 직무수행 분위기를 부정적인 면으로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사기관리 문제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

한국 행정연구원이 1992년에 실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로 신분보장(45.2%), 공익에 대한 봉사(31.5%), 업무상 성취감(8.5%)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54.5%)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승진적체(15.2%), 인사불공정(5.9%) 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근무에 만족하는 요인은 대부분 직무

<표 1> 공직에 대한 만족·불만족 이유

만족이유		불만족이유	
공익에 봉사	31.5%	낮은 보수	54.9%
신분보장	45.2%	인사불공정	5.9%
주요정책에 참여	1.6%	승진적체	15.2%
적절한 보수	1.2%	과중한 책임부담	1.8%
후생복지 혜택	1.4%	복지혜택 미흡	4.7%
승진의 기대감	1.6%	권위적 분위기	5.7%
업무상 성취감	8.5%	낮은 사회적 평가	4.9%
원활한 인간관계	3.6%	국민적 비판	0.7%
높은 사회적 평가	0.7%	지나친 개인회생 요구	3.5%
시간적 여유	4.1%	취약한 업무환경	2.2%
권한과 영향력	0.1%	상관과 동료간의 불화	0.4%
기타	0.6%	기타	0.6%

* 자료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 1992 공직자 2,944명 대상

그 자체와 관계되는 요인으로서 성취, 인정, 직무 내용 등이었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보수, 신분, 관계 등에 의한 "직무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군조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공무를 수행하는 특수조직이라는 데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다. 부적절한 의사소통

오늘날 군의 리더십은 과거 부하들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며 강요하던 방식과는 달리 조직의 목표달성에 참여하도록 리더가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조직 구성원이 동기유발을 통해 직무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1996년 4월 한국국방연구원 지휘관 경력자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의 지휘통솔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39.4%가 의사소통을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휘관의 자질(29.5%),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16.8%)을 들고 있다.

또한 지휘통솔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2.7%가 의사소통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지휘관(30.7%), 지휘 통솔여건(15.3%) 순이며, 부하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이같이 현재 군의 직무수행 상 의사소통이 지휘통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3. 허즈버그의 동기부여 이론

허즈버그는 다양한 직업과 조직들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직무에 불만을 갖게 되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직무에 만족감을 갖게 되면 "직무 그 자체"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직무에 만족한다고 해서 직무환경과 관련된 불만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런 불만족을 해소해 준다고 해서 직무에 만족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감정이라는 것이다.

허즈버그는 동기부여 요인을 크게 위생요인과 동기요인(만족요인)으로 나누었다.

가. 위생요인

위생요인은 직무환경적 측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주로 조직의 방침과 행정, 감독, 상사와의 관계, 작업조건, 보수, 동료와의 관계, 개인생활, 부하와의 관계, 신분, 안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불만이 가중되어 조직체를 떠나게 된다.

나. 동기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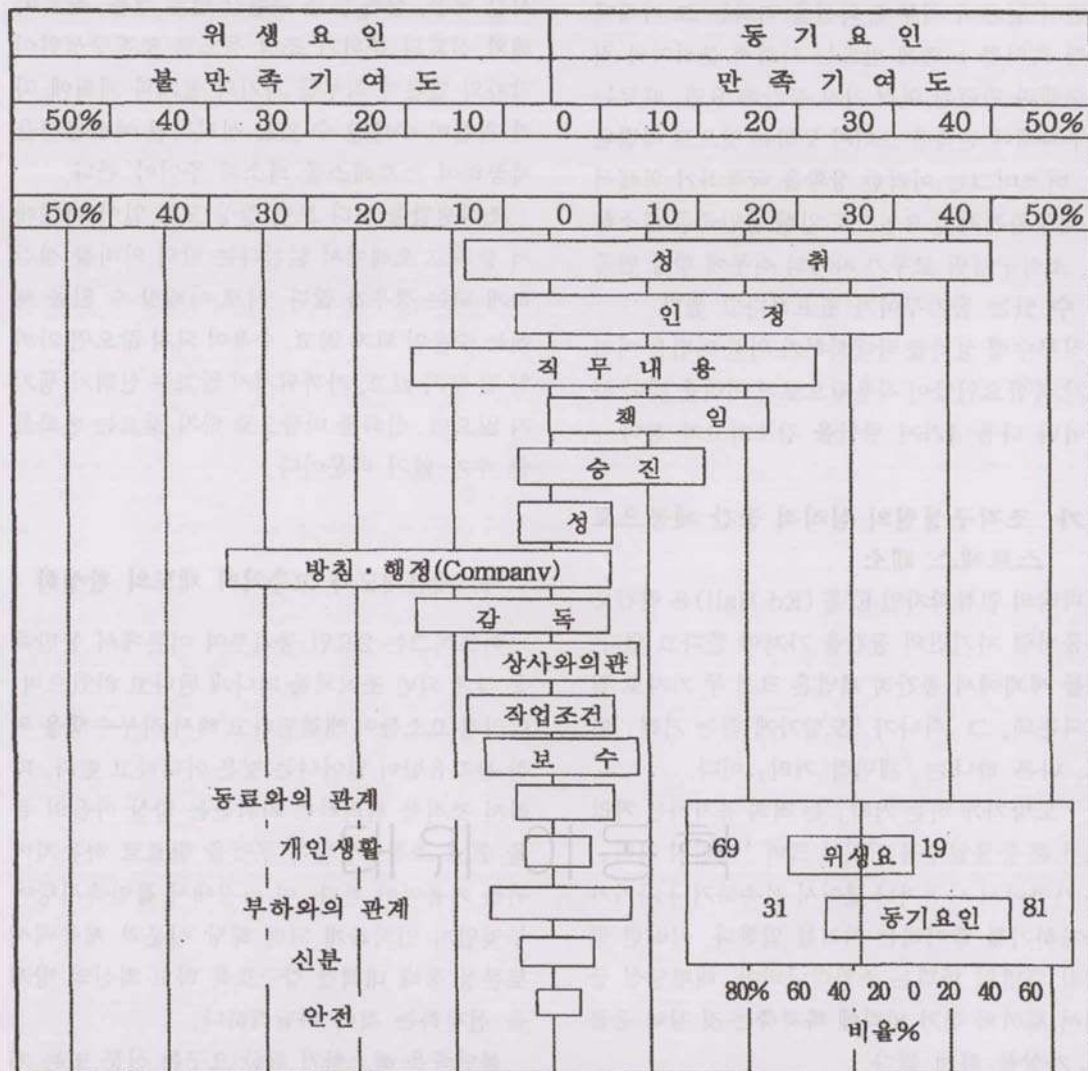
동기 요인은 직무내재적 측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주로 성취, 인정, 직무내용, 책임, 승진, 성장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은 만족감을 갖게 하고 직무성과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만족을 갖게 되는 경우, 위생요인이 69%, 동기요인이 31%를 차지하고 직무수행에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은 위생요인이 불과 19%, 동기요인이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허즈버그는 종래의 만족과 불만족을 동
일 선상에서 놓고 보던 것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속선상에서 분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지휘관은 사기양양책으로 위생요인
위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직무성과
를 부하들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표 2>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의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 자료출처 : Frederick Herzberg. "One More Time : How Do You Motivate Employees," Harvard Business Review, Vol. 46 No. 1(Jan/Feb 1968), P.58.

4. 신바람나는 직무수행문화 창조를 위한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현대사회가 점차 도덕성을 잃어 가면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에 대해 회의론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와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족 요인, 때로는 직무자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허즈버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무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만족을 해소하고, 조직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직무에 항상 만족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직무수행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법은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이 작용됨으로써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다음 4가지 방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공간 제공으로 스트레스 해소

미국의 인류학자인 E. 홀 (Ed. Hall)은 인간도 동물처럼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동물 세계에서 공간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그 하나가 「도망가게 하는 거리」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거리」이다.

「도망가게 하는 거리」는 적과 유지하는 거리로서 큰 동물일수록 거리가 크며 「개인적 거리」는 가까이서 사귀거나 붙어서 접촉하거나 자기가 유지하기를 좋아하는 거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간적 개념의 파괴는 스칸디나비아, 태평양섬 등에서 토끼와 쥐가 바다에 빠져죽는 것 같이 동물도 자살을 하게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생활과 직무수행을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거시설

확보, 사무실 현대화, 직장환경 개선 등으로 1차적인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능력에 맞는 업무부여, 충분한 준비시간 제공, 상하 또는 수평간 인로 개통, 상호이해와 신뢰의 분위기 조성 등으로 조직구성원이 각자의 맡은바 직무를 자기의 설계와 계획에 따라 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공간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모든 일이 이해에서 풀리고 오해에서 얽힌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이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고, 가까워지지 않고는 신뢰가 생기지 않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제안제도와 고충처리 제도의 활성화

허즈버그는 2요인 동기부여 이론에서 불만족을 갖게 되면 조직체를 떠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직무수행을 위한 동기유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조직을 관리하는 지휘관은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조직구성원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만족사항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되면 해당 신분과 계층에서 토론을 통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최선의 방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는 신분 또는 계층별로 이루어지지만 대책은 부서장과 참모선에서 수립하여 조치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어 불만

즉 사항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안 제도와 고충처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관리방식이 자연스럽게 시정될 뿐만 아니라 지휘통솔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다. 직위분류제의 체계화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지식에 의해서 모든 승패가 좌우되는 만큼, 조직구성원의 개별적인 전문지식과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관련 분야도 매우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질도 높은 차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조직 구성원이 각자 맡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며, 강한 동기유발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직위를 다양하게 하여 개인별로 전문 직위에 종사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 과제나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여 자기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라는 자긍심과 자랑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엄격한 책임관리제로 조직으로부터 인정감을 느끼게 하면 살맛나고 일할맛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

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지휘관리

서양의 격언에 「한 마리의 사자가 지휘하는 1백마리의 양때는 한 마리의 양이 지휘하는 1백마리의 사자떼를 이긴다」는 말이 있다. 지휘관은 조직의 승패를 좌우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약장 밑에 강병 없고 용장 밑에 약졸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휘관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서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지휘환경

이 복잡해지므로 창의적인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조직에서든지 구성원들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지휘관의 근본적인 책임이며, 이는 지휘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두지 않는 지휘관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통하여 결론가정의 자녀일수록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유형도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것을 형태적 결손가정이라 하며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기능적 결손가정이라고 한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기능적 결손가정이다.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의 장이 부재하는 형태적 결손조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리만 지킨다거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능적 결손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은 커녕, 사고발생 잠재 요인이 많은 문제조직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최후보투인 군은 지휘관부터 솔선하여 매사에 맑고 깨끗한 도덕성을 갖추고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도덕성을 갖춘다는 것은 매사를 진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솔선수범은 거짓이 없는 모범된 행동을 스스로 이행하는 것이다. 즉 유희(LIP SERVICE)에 지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지휘관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관리이다. 허즈버그는 조직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직무에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강한 동기유발로 인해 직무성적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직무에 대한 성취감과 지휘관의 인정, 직무내용, 승진 등을 들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불비한 여건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성과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되고, 인사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조직의 발전이 달성되고 조직구성원의 성취도가 제고될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직무수행 저해요인과 허즈버그의 2요인 동기부여 이론을 중심으로 직무성적을 극대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도덕성 불감증으로 인해 오히려 비도덕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도덕적인 자가 낙오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개인 및 조직이 더욱 전문화, 세분화, 기능화됨에 따라 개인간 또는 조직간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직구성원의 불만족요인을 해결하고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강한 동기 유발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심리적 공간제공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제안 제도와 고충처리 제도를 활성화함은 물론 직위분류제의 체계화 및 도덕성을 바탕으로한 지휘관리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바람나는 직무수행문화 창조를 위해서는 지휘관 혼자 노력보다는 조직 구성원 각자가 맡은 직무에 대해 스스로의 동기유발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맹자는 간난(艱難)이 인간을 옥으로 만들고 시련이 인재를 낳으며, 역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다. 즉,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천하의 대임과 대업을 맡기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신을 괴롭히고 인고와 금지의 시련을 겪게 하고 무슨 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비운을 일부러 체험케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군의 장병들은 어떠한 부귀로 유혹을 해오더라도 이에 빠지지 말고, 빈천의 고통으로 괴롭힌다 해도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으며, 아무리 권위나 무력으로 위협해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인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다. **공군**

내위 이동혁

항공기의 운항과 환경문제 I

-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문제와 저감 방법 -



이 기 영

중령/공군사관학교 기계공학과

1. 머리말

항공기 운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는 각종 엔진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와 엔진의 지상작동과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소음공해는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상의 제약 뿐 아니라 농·축산물의 생산 저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이미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져있는 형편이지만, 항공기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군용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환경 문제는 군의 특수 임무상 법적으로도 예외적으로 취급하고는 있지만,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

처 방법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군의 각 기지들이 대부분 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더욱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항공기 운항에 따르는 소음의 발생원인과 저감대책 및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법령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역사적 배경

항공기의 운항이 빈번한 국제공항이나, 군용 항공기지 근처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작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공항이나 기지 근처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소음 피해 사례로 말미암아 커다란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소음이 주요 환경 문제로 등장한 것은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민항기인 B-707이 1950년대 후반에 취항하기 시작하고 나서이다. 본래 B-707에 장착된 터보제트 엔진은 군용 항공기용으로 설계된 엔진을 민간형에 적용시킨 것이었다. 그 당시 이미 군용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 이륙 장주 아래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제트 소음 억제기를 개발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제트 소음 억제기를 장착한 1세대 터보제트 엔진은 엔진 중량의 증가와 더불어 추력의 감소 및 연료소비량의 증가 등 엔진 효율면에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터보팬 엔진(예로 Pratt & Whitney JT3D, 군용은 TF33)의 등장으로 배기제트의 속도를 낮출 수 있어 제트소음 문제를 완화시킬 수는 있었으나 고주파 터보소음의 증가를 동반하여 이륙시 뿐 아니라, 착륙 접근시에도 심각한 소음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소음들은 회전자와 공정자 깃수와 간격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혼합제트 방식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는 저감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항공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주요 도시 근처 공항에서의 소음 문제가 점차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대중의 압력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연방항공법 FAR-36을 1969년에 제정하여 최대 이륙, 착륙 및 측면 소음 수준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령의 발효는 항공기 엔진의 설계 및 작동 조건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럽의 대표적인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와 경우, 미국에서의 취항이 어려웠던 점들 중의 하나

는, 물론 미국과 유럽간의 보이지 않는 항공우주 분야의 치열한 경쟁의식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초음속 여객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소음도 한 장애 요소로 작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90. 8. 1.에 제정된 진동소음규제법(법률 제4259호)이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시행령인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령이 '91. 1. 28. 대통령령 제1326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위 법률과 시행령은 정기 국제항공 노선이 개설된 국제 공항에 한하여 적용되며, 군용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91년 12월 14일에 제정된 항공법(법률 제4435호)에도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인한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3710호가 '92년 8월 17일에 제정되었다.

3. 소음의 단위와 수준

인간의 청각은 음의 압력 변동에 대수지수적으로 비례하여 감지되기 때문에 소음압력 수준(Sound Pressure Level)은 다음과 같이 데시벨(Decibel, dB)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text{소음압력수준} = 20 \log_{10}(p^1/0.00002) [\text{dB}]$$

여기서 p^1 은 소음압력으로 [Pa]의 단위를 갖는다. 예를 들어 1 [Pa]의 소음압력은 94 [dB]에 해당하며, 1기압은 약 194.1 [dB]에 해당한다.

소음의 수준은 인간의 귀로 감지해 내기 어려운 최소의 소음 수준인 0dB로부터, 귀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심한 경우 청각 기능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150~160dB 범위에서 구분할 수 있다.

아주 조용한 정원의 소음 수준은 20dB,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는 30dB정도이며, 보통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50dB 정도이다. Heavy Metal과 같은 Rock 음악은 70dB로 복잡한 시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지하철 안에서는 통상 90dB로 역시 높은 수준이고,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는 110dB 정도이다. 이에 비하여 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원에서 15m 밖에서도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인 120~130dB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소음의 단위인 dB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수지수적으로 정의된 단위이기 때문에 10dB 증가할 때마다 10배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20dB의 소음 수준은 10dB의 10배 소음이다. 따라서 앞에서 예로 든 소음 수준이 비록 10dB의 차이도 실제 강도는 매우 큰 차이인 것이다.

4. 항공기의 소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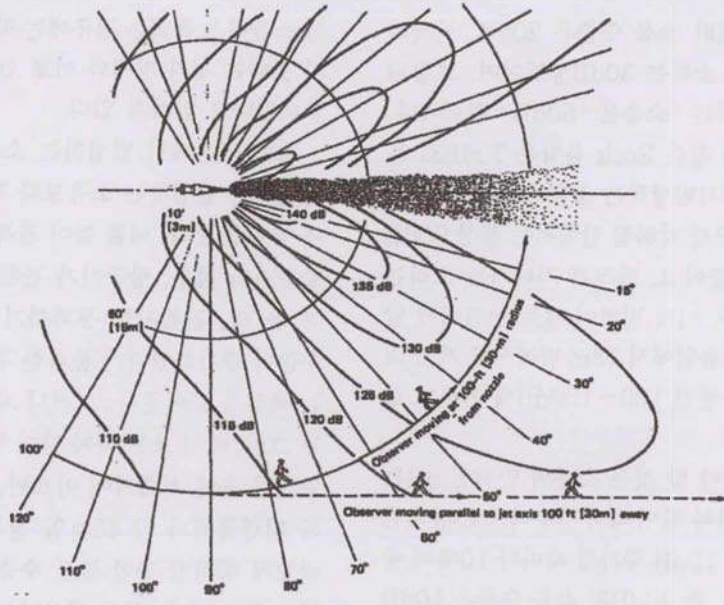
항공기 소음의 주요 문제는 공항 근처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소음에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소음 공해에 의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이 글의 주제에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으나, 인간의 청각 기관은 비록 적은 소음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된 경우, 그 기능이 서서히 노출된 소음 수준에 적응되어서 중국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TV를 계속 크게 틀어 놓고 시청할 경우, 처음에는 시끄럽게 느끼다가도 나중에는 그 소음 수준에 적응되어 남은 시끄럽게 느껴도 본인은 정상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치와도 같다. 따라서 비록 낮은 수준의 소음일지라도 반복적이고 장기

간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작은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와 이로 인한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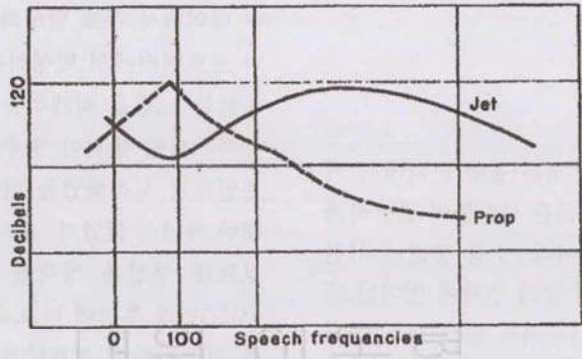
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다른 종류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 훨씬 더 사람의 귀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왕복동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가 관찰자 쪽으로 비행하여 올 때, 관찰자를 통과하기 직전까지는 소음 수준이 증가하였다가 통과한 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트 엔진의 경우에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기가 관찰자를 통과한 후에 최대치에 이르며, 최대값은 관찰자와 비행물체가 약 45°일 경우이다. 이 소음은 비교적 장시간 동안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터보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 사람들이 대화하는 주파수와 중복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왕복동 엔진과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비해 더욱 더 불편한 느낌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가스터빈 엔진이 항공기 추진 엔진으로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소음 저감 설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초기의 상업용 항공기는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사용되었고, 1950년대 후반에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상업용 항공기들이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터보제트 엔진에서 배출되는 고속 배기 가스와 주위 공기가 혼합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소음이 비로소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고우회율을 갖는 터보팬 엔진의 등장으로 항공기의 주소음원이 배기류에 의한 소음(내부 소음원)으로 전이되었다.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요 원인은 제트



<그림 1> 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장



<그림 2> 항공기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와 대화 주파수

혹은 배기류소음(Jet or Exhaust Noise), 팬 소음(Fan Noise), 그리고 중심소음(Core Nois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트소음은 고속의 배기류와 주위 공기가 서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배기류와 주위 공기와 같이 서로 다른

속도를 갖는 두 흐름이 혼합될 때 상당량의 난류가 발생하며 이 난류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된다. 난류 강도와 소음은 두 흐름의 속도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트소음은 배기류 속도의 8승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제트 엔진 소음의 주요 원인은 엔진 배기 노즐로부터 배출되는 고속의 배기류와 주위 공기의 혼합에 의해 발생되었다. 그러나 비혼합 터보팬 엔진의 등장으로 두 개의 배기류가 생성되어 외부 소음원도 두 개의 소음원을 갖게 되었다. 그 하나는 팬배기류와 주위 공기의 혼합에 의한 소음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 배기류와 팬배기류 그리고 주위 공기와 혼합에 의한 소음이다. 터보제트 엔진을 동일한 압력비와 터빈 입구온도의 터보팬 엔진으로 변환시키면 중심속도가 감소한다. 중심속도의 감소 정도와 중심속도와 팬배기류 속도와의 차이는 팬압력비와 우회율에 따라 변화한다.

팬소음은 고우회율을 갖는 터보팬 엔진에서 주요 소음원이기는 하지만 항공기 엔진 소음의 주요인은 아니다. 팬소음은 팬의 회전자 깃속도에 따라, 초음속 혹은 아음속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는다. 팬소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공기 중의 난류와 공기가 깃표면을 통과할 때 생성되는 공기부하 교란에 의해 발생하는 광대역 소음(Broad-band Noise)과 회전자 깃과 고정자 깃의 상호작용에 의한 압력 교란으로 발생하는 이산음 소음(Discrete Tone Noise), 그리고 회전자 깃의 충격파에 의해 발생하는 다중음 소음(Multiple Tone Noise)이 있다.

고우회율의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면 배기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트소음이 줄어든다. 이 경우 터보팬 엔진의 내부소음원인 중심소음이 좀더 중요해지는데, 중심소음은 압축기소음, 연소기소음과 터빈소음 등이 있다. 압축기와 터빈소음은 팬소음과 유사하여 회전자와 고정자 깃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연소기소음은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생성된 난류에 의해 발생한다.

5. 항공기 소음 관계 법규

항공기 소음규제에 관한 법령 법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정 시기도 늦었거니와 구체적인 규제 조항 역시 아직은 미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예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중반부터 제트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최초의 관계 법령은 1969년에 제정된 FAR-36으로 알려진 Public Law 90-411다. FAR-36은 소음 저감 기술의 발달과 항공기 소음에 대한 끊임없는 대중의 압력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항공기 소음의 측정 절차와 소음 수준의 규제 값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착지점으로부터 착륙경로상 INM(Nautical Mile) 혹은 2,000m 전방과, 이륙할주 시작 지점으로 이륙경로상 FAR-36에 따르면유효감지소음수준(Effective Perceived Noise Level)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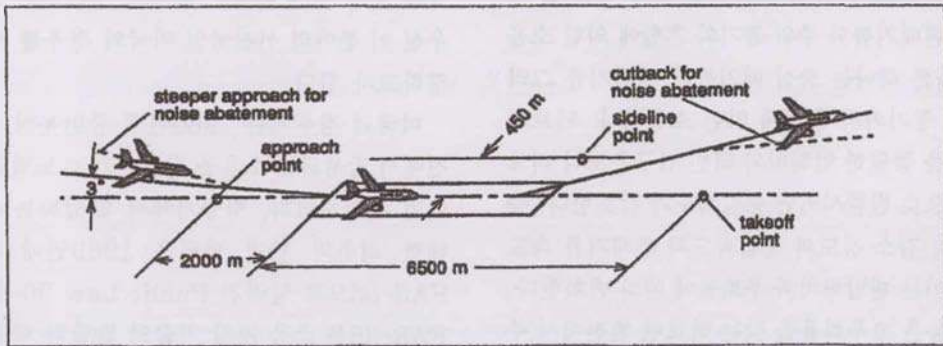
3.5NM 혹은 6,500m 후방지점, 그리고 활주로 중앙선으로부터 평행하게 450m(4발 엔진의 경우에는 0.35NM) 떨어진 측면 중 소음 수준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측정한다.

항공기의 착륙접근 및 이륙지점은 엔진의 종류, 항공기의 성능, 엔진 작동 순서 그리고 화물 적재량 등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른 항공기 엔진의 동력 세팅 및 이착륙 고도도 아울러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음 측정위치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측면 소음 측정은 이륙엔진의 소음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데, 이는 이륙시 엔진동력을 최대
로 세팅시키고, 항공기로부터의 거리 역시 거의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의 측정
거리는 지정된 측정선을 따라 최대 소음 발생위

이륙소음은 장착 엔진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 이유는 착륙접근시 접근경로가 대개 3°의 각도
로 거의 고정되어 있어 항공기와소음 측정 위치와
의 거리가 거의 변하지 않으며, 측면소음 측정 위



〈그림 3〉 항공기 이·착륙 및 측면 소음 측정 위치

치로 항공기의 고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부터 발생
되는 소음은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EPNdB$ 10
씩 더한다.

(2) 소음유효도예보(Noise Effective F-
orecast : NEF)는

$$NEF = 10 \log_{10} \sum_i \log_{10}^{-1}(EPNdB/10)_{i-82}$$

이며, 24시간 동안 발생된 모든 소음을 합한 것
이다. 예를 들어 어느 공항에서 50회의 비행이 있
었고, 각 비행시 $EPNdB$ 수준이 100이라면,

$$NEF = 10 \log_{10} [50 \log_{10}^{-1}(100/10-82) = 35$$

가 된다. 통상 NEF값이 30이상이면 소음으
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고 한다.

항공기의 이륙중량과 엔진 수에 따른 이륙소음,
착륙접근 소음 및 측면소음에 대한 제한 값들을
그림 4에 보였다.

이 법규에 따르면, 착륙접근소음과 측면소음
은 엔진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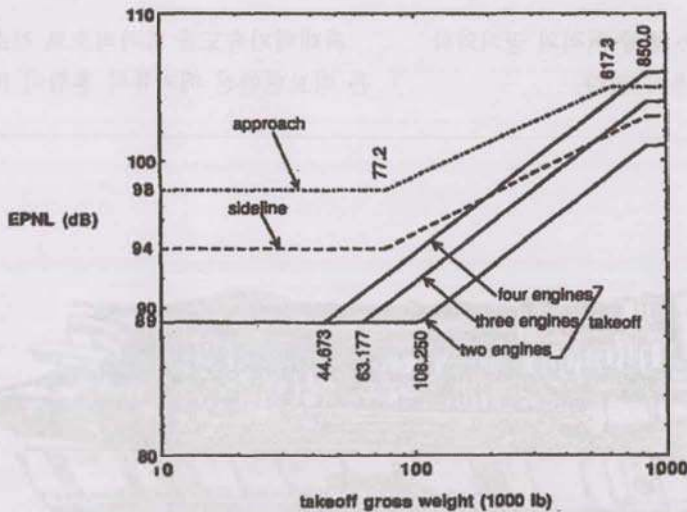
치도 활주로 중앙으로부터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륙소음의 경우에는 장착된
엔진 수에 따라 상승율이 변화하여 측정거리로 변
화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항공기 소음규제는 항공법 시행규칙
(93. 2. 13. 교통부령 제999호)에 규정되어 있
는데, 항공기 소음의 구체적인 측정위치, 소음규
제치 등은 명시 되어있지 않고 다만 항공기 소음으
로 인한 소음 방지 대책 마련 정도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르면 공항 피해 지역을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에서 소음 영향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WECPNL$ 은 다음과 같은 식으
로 산정된다.

$$\text{위 식에서 } \overline{dB(A)} \text{는 일 평균 최고소음을 의 } \\ WECPNL = \overline{dB(A)} + 10 \log N - 27 \text{ 미}$$

하며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overline{dB(A)} = 10 \log \left[\frac{1}{n} \left(\sum_{i=1}^n 10Li/10 \right) \right] dB(A)$$



<그림4> FAR-36에 따른 소음 제한 값

여기서, $n=1$ 일중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
 $L_i=i$ 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 소음도이며,
 N 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N = N_1 + 3N_2 + 10N_3$$

N_1 =항공기 이착륙 횟수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

N_2 =항공기 이착륙 횟수중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횟수

N_3 =항공기 이착륙 횟수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

이와 같이 측정 계산된 값으로 표1과 같은 공항 소음 피해지역을 정하여 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근거로 삼고 있을 뿐이다.

표1 공항소음 피해지정 구역

구 분	구 역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피해지역	제1종구역	95이상
	제2종구역	90이상 95미만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구역	80이상 90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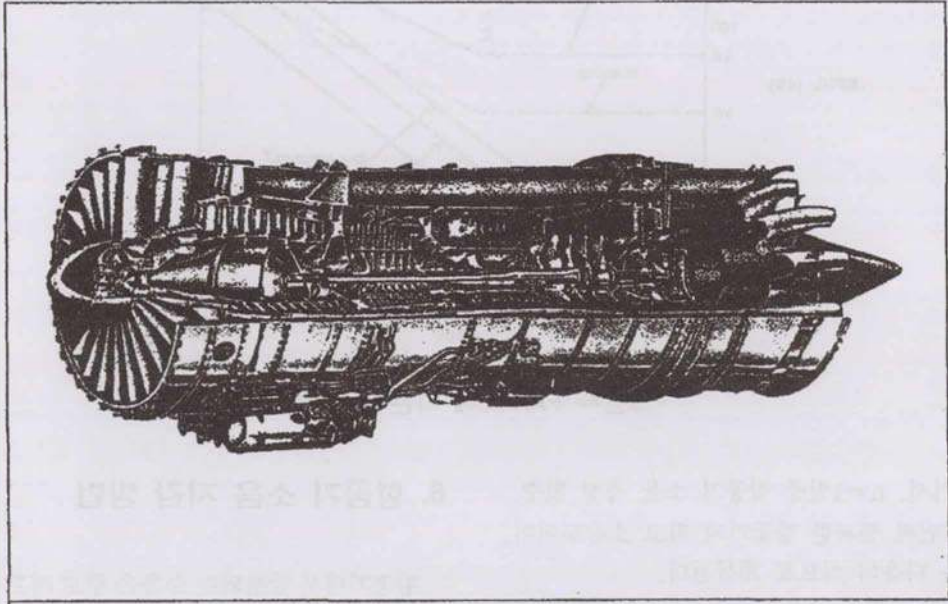
6. 항공기 소음 저감 방법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로 제트추진 엔진 항공기의 소음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정속한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의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반인들의 관심으로 세계 주요 공항들의 경우, 야간 비행을 제한하거나 비행 경로를 상대적으로 인구가 덜 밀집된 지역으로 변경 운항하는 등 다소 수동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은 항공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의 개발이다. 즉,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엔진을 변형하면 엔진 중량이 늘어나고, 엔진 길이가 길어지며, 제작비가 상승되는 문제를 수반한다. 아울러

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는 종종 최적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최대배기속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은 터보팬엔진 배기류의 혼합이 터빈 후방에서



<그림 5> Pratt & Whitney의 JT8D-209 엔진 단면도

외부소음(External Noise)은 배기류와 주위 공기와의 혼합에 의해 발생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음 수준이 대략 배기속도의 8승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한 초기의 상업용 항공기는 소음 억제 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을 저감시키고자 하였다. 그 후에 저우회율($BPR=1$)의 터보팬 엔진이 상업용 항공기에 사용되어 배기류 속도를 약간 저하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항공기들은 외부 소음인 배기소음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소음 수준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배기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좀 더 고우회율을 갖는 터보팬 엔진으로 교체하면 가능하다.

일어나도록 한다. 그림 5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엔진인 JT87-209엔진을 보인 것이다. 배기가스 혼합기는 고속의 중심 배기류와 팬을 통과하기는 하지만 연소실과 터빈을 우회하는 저속의 냉공기 흐름을 서로 혼합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방법으로 최대 배기속도를 낮추면 이들 두 흐름으로 인한 난류혼합이 일어나는 것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엔진 중량도 아울러 증가하게 된다. 우회율이 5이상인 터보팬 엔진이 현대의 상용 항공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우회율의 터보팬 엔진은 배기속도를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배기소음도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다.

터보팬 엔진의 증가와 함께 부가되는 내부소음도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 소음은 외부 소음과는 달리 제어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내부 소음을 억제하는 한 방법으로는 음향라이더(Acoustic Liner)를 엔진 흡입구 혹은 배기덕트에 장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음향처리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현대의 항공기에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항공기의 중량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내부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패선단속도의 감소 : 팬소음이 가장 낮을 때에는 아음속 팬을 사용할 때이다. 저속 팬은 통상 압축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항공기가 무거워지고 제작비용이 상승된다.

(2) 회전자와 고정자 공간의 증가 :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면 소음은 감소하나 이로 인한 엔진 길이와 중량의 증가를 동반한다.

(3) 입구 안내깃을 제거하여 회전자-고정자 상호작용을 일부 줄이는 방법.

(4) 회전자 깃과 고정자 깃 수의 변경 : 이 비율을 변경하면 소음 주파수를 바꿀 수 있으나 깃수가 감소하면 터보기계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소음 감소 장치는 물결 모양의 외곽을 갖는 항공기에 부착된 소음감소 장치가 있다. 이 소음 감소장치는 엔진의 추력 손실과 하중의 증가를 최소로 하면서 25~30dB 정도의 소음 강도를 줄이고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가스 배출구의 모양을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 배출가스와 공기의 혼합이 빠르게 이루어져 소음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물결모양의 굴곡이 크면, 소음은 감소하지만 엔진 설계상 노즐

면적요구 조건으로 인하여 배출부의 직경이 커지게 되어 항력이 증가하게 되고 하중도 아울러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군용항공기 증전투기의 경우는 소음의 감소보다는 추력의 증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들이 장착되지는 않고 있다.

7. 항공기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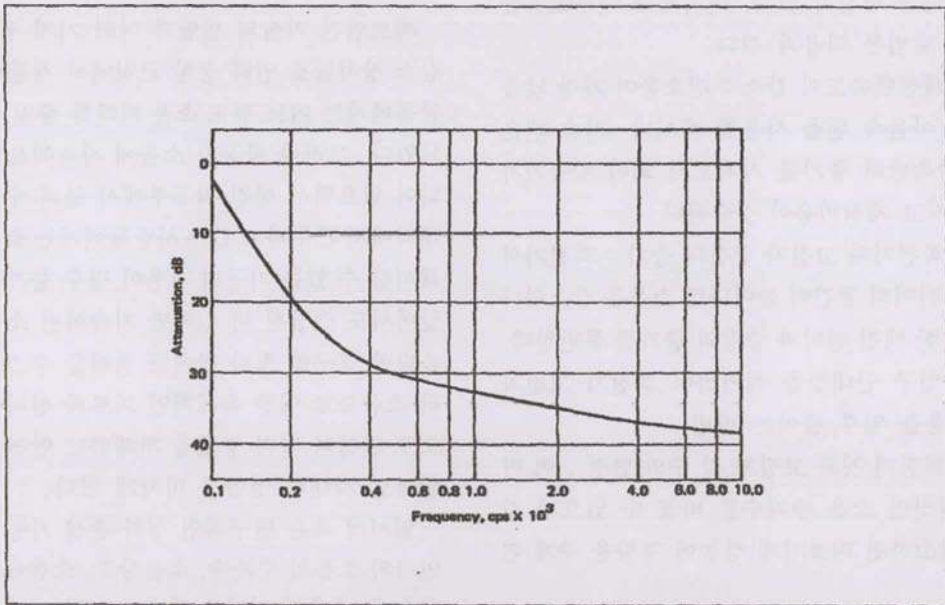
제트엔진 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공중소음 감소 장치들로 인해 공항 근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공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엔진 작동부에서 불과 수 100m 내의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음을 감쇄시킬 수 있는 기구의 착용이 필수 불가결하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영구히 청각 장애를 불러올 수 있을뿐더러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심리적 영향으로 인하여 일의 능률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유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시적 혹은 연구적인 청각 손실 가능성은 개인차와 소음의 주파수, 소음강도, 소음에의 노출횟수 등 소음의 질과도 관계가 있다. 소음원으로부터의 소음 강도는 거리가 2배 증가하면 약 6dB 만큼 감소한다. 작동 중인 제트 엔진의 소음 강도는 약 140dB 정도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따라서 작동 중인 엔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소음 방지용 귀마개를 착용하여야 한다. 소음 귀마개는 소음의 주파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0~40dB 정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

8. 맺음말

우리 공군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고강도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폐해를 무심코 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음강도가 항상 높은 항공기를 다루는 공군 장병들에게는 이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방지 대책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신문 지상에 가끔씩 게재되는 군용기지에서의 발생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들은 군작전기지라는 이유만으로 넘겨 버리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넓게는 군용기지에서의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간인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의 연구와 좁게는 항상 항공기 소음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지내 장병 및 관사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소음피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군**



<그림 6> 소음 방지용 귀마개의 소음 저감 특성

대안적(代案的) 미래(未來)

권 석 원

중령/공군본부 교훈감실



본 논문의 내용은 미국공군의 장기계획서인 AF 2025의 내용 중 미공군이 2025년의 미래를 어떻게 가상하고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지를 발췌하여 번역한 내용으로 장차 우리 공군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2025의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존재하고 변형해야 할 미래 세계를 나열해 보는 방법론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첫 번째 순서이다. 연구팀은 8개의 각기 다른 세계를 만들어 냈다. 4개의 세계는 가장 도전적이며, 흥미롭고

미국이 선도자로서 봉사하기 어려운 세계이며 2개의 세계-다른 세계의 몇 가지 특징들을 선택한 중간적인 세계와 2025년의 미래로 부분적으로 진화해 나간 세계 즉, 교차점 2015의 세계-는 2025년 분석을 위한 기초로 이용되었다.

* [2025]는 미공군이 미래에도 지배적인 항공우주군으로 남아있기 위해 필요한 개념, 능력, 기술을 검토해 보라는 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1996년 6월 17일 제출된 이 보고서는 국방성 학고기관에서 학술적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가 방위와 관련된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표현된 견해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미공군, 국방성, 또는 미국정부의 입장이거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미래상황이나 시나리오에는 가상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특수하게 인용된 것 이외에,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이는 전혀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아마도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본 문건은 본안 및 정책검토 당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것이며, 비밀취급이 필요없는 일반에게 공표가 허락된 것이다.

걸리버의 노고

이는 분방한 민족주의, 국가 및 미국가가 후원하는 테러리즘, 그리고 유동적인 제휴의 세계이다. 테러리즘, 민족적 감정, 피난민의 확산 그리고 권위주의적 수단들이 번성한다.

미국은 반테러리즘, 반 확산방지 노력,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평화유지 작전과 같은 그런 세계적 업무수행에 압도당하고 여념이 없게 된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 소방관, 의사, 사회사업가, 자본가 그리고 우편배달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메리카 대륙 미연방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미군은 실제로 해외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세계의 군대인 미군은 제한된 예산 속에서 고도의 작전태포를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와 작전개념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국의 세계관은 지구적이며 ΔTeK 는 제한되며 - 진화적이며 혁신적이 아닌 - 세계적 기준선망(World Grid)은 흩어져 없어지게 된다.

Zaibatsu(財閥)

제벌세계는 다국적 기업이 국제문제를 지배하고 표면적으로 평온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느슨하게 기업조합으로 합병된다. 경제성장과 이득이 지배적인 관심거리이다.

분쟁이 일어나지만, 보통 대리인을 통해서 발생하며 단명한다. 군대는 다국적 이익과 자산권에 대한 "경비원"으로 봉사하게 된다. 기술은 지수적으로 성장하고 널리 확산된다. 지구적인 권력이 몇 개의 다국적 기업의 연합체로 집중된다.

소득차이가 커짐에 따라서 더욱 불안정하게 된 이런 세계에서 미군에 대한 주요 도전은 더 이상 미국이 주도적이지 못한 상대적으로 평온한 세계에서 관련성과 능력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관은 국내적 관심사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진다.

디지틀 불협화음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세계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특징되는 세상에서 개인능력을 증대시키고 질서와 권위는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연산능력의 진보와 정교화, 지구적인 데이터 베이스, 생명공학과 인공장기(人工臟器), 가상현실 오락 등이 존재할 것이다.

전자투표제도는 사이버 민주주의를 창조하지만, 민족과 정치적 충성심은 폭발적 경제성장 속에서 부(富)를 위한 경쟁전에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고도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대량파괴 무기가 개별적 독립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격리를 낳는다. 미국은 수많은 고도기술 위협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관은 지구적이 되며 기술적 변화가 지수적이고 세계권력의 기준선망은 사라지게 된다.

동행 징기스칸

이 세계는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이 결합한 중국-거상(巨像)이 창조되는 형태 속의 전략적 기습을 내포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미국은 이런 실체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추월당하고 경제적 불경기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미국지배는 약화된다. 이는 방위예산의 급속한 감축을 초래할 것이고 심각한 긴축의 시기에 핵심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려운 선택을 초래하게 된다.

한때 환태평양의 반대편에 있던 미국이 지녔던 미국의 세기(世紀)는 아시아 황금시대와 권력, 특권 그리고 능력에 길을 비켜주게 된다. 미국의 세계관은 미국이 국내문제들을 극복해야 하고 기술성장은 제한되며 세계권력이 미국의 경제, 군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위축시킬 그런 경제와 군대, 영향력을 지닌 중국단일주(Chines Monolith: 單一柱)로 집중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국내적이 된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의 영국을 닮아간다.

반쪽들 그리고 반쪽파멸

이 세계는 변화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변화하는 안보조건들이 포함된 세계이다. 군에 대한 주된 도전은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분쟁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수많은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는 두 개의 불일치한 진영으로 나뉘진다. 소수의, 부유한, 기술적으로 진보된, 정치적으로 안정된 소수의 국가 및 인구(대충 15%) 그리고 가난하고 퇴보하고, 병들고, 분노한, 불안정한 상당한 수의 세계국가 및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잃어버릴 것도 없고, 자신들의 울분을 배상받으려는 그런 인구로 구성된 세계가 그것이다.

미국의 세계관은 오직 미국안보에의 위협이 이런 균중들에 의해서 상징된다는 것 때문에 지구적이 된다. 기술과 권력은 나누어진 세계에서 양쪽 진영 모두에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교차점 2015

우쿠르드족 지역(Kurdish Area)에서 미국은 1996-2001까지 주요 분쟁에 사용할 계획된 힘을 모두 사용한다. 그런 선택과 결과는 이런 절박한 시기에 2025의 세계가 10년뒤에 출현할 것이라는 점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미국의 세계관은 지구적이며 ΔTeK는 제한되며, 세계 기준 전망은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산되기 시작하고 있다. 잠재적인 미래 분쟁의 중심은 우크라이나와 재건된 러시아 사이의 논쟁으로부터—그리고 그런 분쟁에 대한 나머지 세계 반응—불거져 나올 것이다.

2015년에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업무와 관심사항을 수행할 것이지만, 제한된 경제적 기술적 성장율을 보일 것이다. 이런 압력 때문에 미국이 보다 고립주의적 노선을 선택할지 또는 필요한 희생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역할을 선택할지 인지는 2025의 세계를 그리면서 답해 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팀의 대안적 미래를 구축하고 향후 30년간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체계를 탐구해 본 다음에 작전분석팀이 연구팀이 발전시켜 놓은 기술과 체계를 평가했다. 여러 가지 백서(白書)들이 25개의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과 발전된 43개의 강령 그리고 무기체계를 확인해주었다. 아울러 분석팀은 공중과 우주에서의 지배권 달성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임무와 직무를 각각 인지(awareness), 도달(reach), 그리고 힘(power)이라는 일반적 범주로 나열하였다.

최상의 지렛대가 되는 체계들

백서로부터 도출된 43개의 체계 가운데 10개는 2025년의 공중 및 우주지배에 대한 공헌도와 관련된 최상의 가치와 함께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연구참여자로부터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은 체계는 가끔 기술적으로 최고로 도전적이다. 다른 체계는 작전분석에 비중을 두고 있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스스로를 재확인해보고 싶을 것이다. 모델은 그러한 검증을 위해서 설계되었고 우리는 연구결과가 우리의 체계가 다른 것에 의해서도 똑같이 높이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철저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덧붙여서, 또다른 체계는 그 개념과 세부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해주는 기술을 철저하게 확인해 보고 싶을 것이다. 분석과 관련된 또다른 책에 그런 내용들에 관한 참고자료가 들어있다. 아래에서 2025에서 확인 가능한 최상의 지렛대 체계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세계적 정보관리체계

세계적 정보관리체계는 지적인 정보수집, 처리 및 분석 그리고 조연접점으로 이루어진 총망된 네트워크이다. 이는 지상, 공중 그리고 우주감지기 및 모든 근원의 첩보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융합시키고 관리한다. 이 체계는 모든 형태의 감지기를 가진다. (예를들어, 청각적, 시각적, 라디오 주파수, 후각적인 것 등) 그러나 이 체계의 진정한 힘은 사용자의 개인적인 요구조건에 맞춘 올바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경계통적인 처리방식을 사용하는데 있다. 이 체계는 각각의 사용자의 필요와 이해관심에 적합한 완벽한 상황적 그리고 전투공간 인지를 제공해 준다. 체계는 또한 개인적 디지털지

원장치, 레이저화된 원룸 그리고 또다른 체계를 통해서 인간적 접촉면을 제공해 준다.

성역화된 기지

성역화된 기지는 안전한, 관측이 매우 어려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물자를 줄여주는 전천후 전진 작전기지를 제공해 준다. 활주로, 파워시스템, 군수물자 저장, 항공기 정비자산, C4I는 자기-정비, 자기-수리체계가 된다. 기지보안은 고도로 자동화된다. 화학 및 생물학적 위협은 nanobots와 생명기술에 의해 소탕된다. 로봇이 재공급, 무장장착, 정비, 보안 그리고 폭발물 파괴업무를 수행한다.

지구적인 감시, 정찰 그리고 목표선정 체계

지구적인 감시, 정찰 및 목표선정체계는 실시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주에 기반한, 전방향 탐지수집, 처리 그리고 보급체계이다. 이런 데이터 베이스는 관심지역의 가상현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이런 가상현실 영상은 상황적 인식, 기술정보, 그리고 첩보정보, 양방적 지휘통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의 지휘체계에서 이용될 수 있다.

전지구적 공격체계

전지구적 공격체계는 고도 에너지 레이저 시스템,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 무기체계 그리고 초대기권 운송체(transatmospheric vehicle)로 구성되어 있다. 고도 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은 지상에 기지를 둔 레이저와 의도한 목표물에 예

너지를 향하도록 만드는 우주에 기지가 있는 거울로 구성된다. 운동에너지 무기체계는 폭발력 있는 강화장치를 지닌 또는 그런 장치없이 끝까지 유도되는 발사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기권 운송체는 고도 에너지 레이저 체계와 운동에너지 무기체계 우주자산에 대한 정비 및 보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연성 있는 플랫폼이며 이는 또한 특수작전군의 신속한 전개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목표항정과 순서결정은 지구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외부적으로 관리한다.

무인전투 비행체

무인전투 비행체는 독립체계로서 또는 또다른 공중발사, 지상발사, 우주발사와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적리되어 있는 정밀유도 물체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한 벌의 복합스펙트럼 감지기(광학적, 자외선적, 레이더, 레이저 등)를 수송한다. 이는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호출될 때까지 오랜시간 동안 이해관심 지역의 고고도 상공에서 배회한다. 아음속 배회모드에 있으면서 세계정보관리체계에 제공할 감시와 정찰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는 다른 감지기로 정보를 수신하고 처리하면서 관심지역을 조영하고 있는 송·수신기의 위치가 다른 그런 형태를 지닌 것이다. 2차적 임무로써, 전자 대응책(ECM) 및 대응-대응책(ECCM)을 수행할 수도 있다.

우주기지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

이 체계는 여러 가지 양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우주에 기지를 둔 수 메가와트의 고에너지 화학 레이저 장치이다. 고훈력 레이저를 지닌 무기양

식으로는 지상, 공중, 우주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감시양식으로는, 적극적인 조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저출력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고 소극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가 가동되지 않도록 작동시킬 수 있다. 전지구적인 범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15-20개의 우주기지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체계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영상작성을 통해 시각적 감시를 제공할 수 있고 방공, 방우주, 군사적 응용 그리고 기상수정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태양력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

이 체계는 여러 가지 양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우주에 기지를 둔 수 메가와트의 고에너지 태양력 레이저 장치이다. 고훈력 레이저를 지닌 무기양식으로는 지상, 공중, 우주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감시양식으로는, 적극적인 조영영상을 만들기 위해 저출력 수준의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소극적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 가동없이 움직일 수도 있다.

무인정찰 비행체

이 체계는 독립체계로 또는 또다른 공중발사, 지상발사 또는 우주 기지체계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무인정찰 비행체는 적외선, 광학적, 레이더, 그리고 레이저와 같은 다양한 복합 스펙트럼 탐지기에 적합하며 영상, 신호, 전자방출 그리고 또다른 정보도 수집한다. 이는 재급유 없이 오랜시간 동안 관심지역의 고고도 상공을 아음속으로 배회한다. 무인정찰비행체는 또한 전혀 다른 감지기가 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동

안 관심지역을 조영해주는 송·수신기의 위치가 다른 그런 형태의 한부분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공격용 소형로봇

"공격용 소형로봇(Attack microbots)"는 한 덩어리로 전개될 수 있는 그리고 개별적, 집합적 목표물 공격이 가능한 고도로 소형화된(1mm) 한 부류의 전자기계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연무기로 분사되거나, 대규모 플랫폼에 의해서 수송, 그리고 완전 자동화된 비행과 포복이 가능한 매우 다양한 병력 전개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체계이다. 공격은 다양한 로봇 작동체, 전자기 수단, 또는 활동체에 의해서 이뤄진다. 몇가지 감지기를 지닌 소형로봇은 목표물 확보 및 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다. 소형 로봇은

적대적인 환경과 체계에 신중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침입할 수 있다. 극도로 작은 크기는 고도의 침투능력과 자연적인 스텔스를 제공해 준다.

조종가능한 단일궤도 초대기권 운송체

이 체계는 로켓트와 초음속 공기호흡 기술의 결합을 통해 우주기지 지원 및 지표면에서 저궤도까지 전 지구적인 도달거리를 유지한다. 초대기권 운송체는 수직으로 이륙하지만, 공중이나 우주 어디에서고 재급유가 가능하며 전통적인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유료화물 탑재능력(1만파운드)을 지니며 감지기 및 무기 플랫폼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임무 중에는 인공위성 전개 및 반 ASAT 무기를 저궤도로부터 회수하거나 전개시키는 일도 포함된다.

공군

대위 이동형

항공우주군 건설의 초석 위성통제체제 구축



한 경 표

중령/공군본부 정보체계실

1. 서언

19세기 산업혁명을 전후한 식민지 시대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논리가 일반화 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주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21세기의 한반도는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명실공히 선진국으로서의 발전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변하는 안보 전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 장차전을 주도해 나가야 할 공군은 앞으로 궁극적인 발전목표인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하여 영공 방위는 물론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우주공간까지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임무 영역의 확대를 모색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공군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추진과 병행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우주공간에서 운용 중인 제반 인공위성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통하여 국가 방위 차원의 우주 전장 관리는 물론 국가 우주 자산 보호 및 각종 인공위성 확보, 운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공위성 통제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우주사령부를 모델로 하는 위성통제체제에 대한 필요성 및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추진 배경

지난 1957년 10월 4일,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구 소련의 'SPUTNIK'호 위성이 발사된 이후 인간이 우주공간에 쏘아 올린 위성의 숫자는 '96년말 현재까지 총 4,821개이며, 그 중 2,382개가 현재 운용 중에 있다.

이들 위성의 대부분인 약 91%는 미국(1,366개, 28.3%)과 러시아(3,023개, 62.7%)에서 발사한 위성들이며 기타 국가로는 일본 69개,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51개, 중국 42개 순이며, 다른 국가들의 위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향후 2006년까지 발사 예정인 위성 숫자는 지구정지궤도(GEO) 위성 241~288개, 저궤도(LEO) 위성 224~242개가 추가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들 위성 중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감시대상 위성은 동경 55°에서 서경 160° 사이의 145° 범위 내의 정지궤도 위성으로서 약 258개의 위성이 있으며, 향후 2006년까지는 아·태 지역에서 발사 예정인 68~69개의 정지궤도 위성을 포함할 경우 약 320~330여개의 위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로 지구 관측이나 원격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성과 군사 첩보 및 정찰 목적으로 활용되는 비정지궤도 위성의 경우는 상공의 일정한 궤도를 선회하지 않고 소유국의 통제에 따라 임의로 궤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한반도 영공을 통과하는 감시대상 위성의 수는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92년 8월에 최초로 과학 실험 위성인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93년 9월에 우리별 2호 위성을 발사하였고, '96년 8월에야 비로소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통신 목적의 실용 위성인 무궁화1호 위성을 발사하였으며, 이듬해인 '96년 1월에 무궁화 2호 위성을 발사하여 모두 4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3번째의 실용 위성 보유국이 되었으며, 동남아 지역의 위성 보유 국가인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수준에 이르

러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지난 '95년 9월에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하여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는 '2015년까지 총 4조 7천 7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통신, 방송위성 5기, 다목적 실용위성 7기 그리고 과학위성 7기 등 총 19기의 위성을 발사하여 우주산업 세계 10위권의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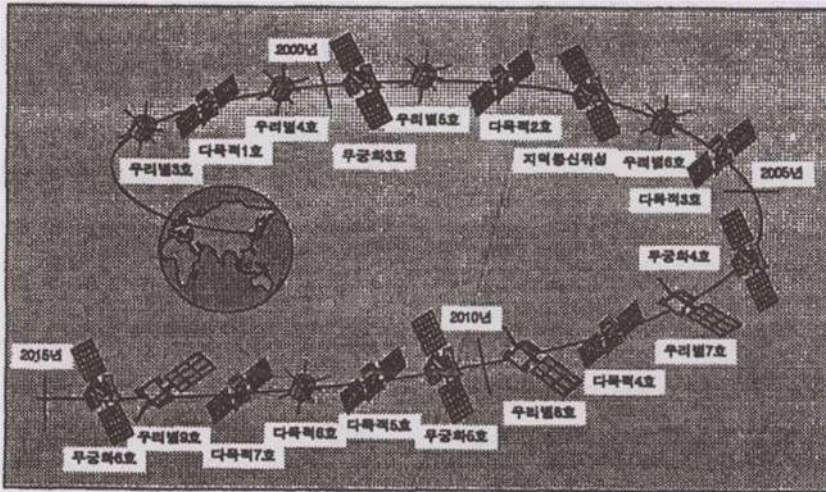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해 저궤도 위성개발 및 국내 개발 발사체에 의한 자력 발사를 우주개발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우주분야 기술을 위성체 분야, 발사체 분야, 그리고 위성 이용 및 우주과학 분야로 크게 분류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각 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소가 참여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1세기 위성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성 추적 및 궤도 정보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위성통신망 보호와 신규 위성궤도의 확보 지원 및 우주 정보산업 육성과 국가 안전 위해 여부 판단 등의 기능을 수행 일명, 『국가우주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협의회에 국방부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군 관련 분야의 기능 수행을 위한 발전목표나 개념을 정립해 놓은 상태는 아니다.

3. 필요성

냉전 이후 미소 양대국의 군대경쟁에 힘입어 군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던 인공위성이 점차 일반



〈그림 1〉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 위성체 개발계획

상용화 되면서 방송 통신 목적이나 정보화 관련 분야 및 지구 관측과 원격 탐사 등 산업 발달의 도구로 그 활용도가 급격히 증대되어 감에 따라, 사용 주파수 및 위성 궤도의 선점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위성간의 전파 간섭 및 혼신 발생 등 인접 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인접국가 위성이 우리나라 위성에 미친 사례로, 지난 '96년 7월에 중국의 중성 5호 위성이 무궁화 위성 사용 주파수 대역(12~14.5GHz)에서 중계기를 운용하여 무궁화 위성 운용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중국 정부에 취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러시아(구 소련)는 물론, 주한 미군에서 군사위성을 운용함에 따라 첩보/정찰위성, 통신/방송위성 등 한반도 영공을 통과하며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의 우주공간에서

마음대로 전파를 발사하는 외국 위성의 숫자는 수없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추적하여 기록하고 명문화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 일본과 중국, 홍콩 등 주변국의 방송, 통신 위성과 지구 관측 및 원격 탐사 위성 등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아·태 지역국 위성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들 위성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군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국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영공 및 동북아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위성에 대한 추적 및 감시를 통하여 국내 위성을 보호하고, 국가 위기 시에는 우주의 모든 자산을 국가 방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는 물론, 필요시에는 우주자산을 동원하여

안보 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위성통제체제를 군이 주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미국의 우주사령부 소개

미국의 경우 이러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는 미 국방성 예하 우주사령부(USSPAC-ECOM : US Space Command)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기관인 국립항공우주국(NASA)과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전세계의 모든 위성 및 우주 비행물체에 대한 추적 및 전파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 우주사령부는 미국 중 서부에 길게 뻗어 있는 록키산맥 중턱에 자리한 콜로라도주(州)의 Peterson 공군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5년에 창설되었다. 이곳에는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의 모든 방공망을 지휘통제하는 북미방공사령부(NORAD)가 함께 위치하고 있다.

미 우주사령부는 경미한 핵공격이나 재래식무기로는 공격이 불가능하도록 요새화 되었고, 30일간 800명의 인원이 자체 생존이 가능하도록 설비된 록키산맥의 Cheyenne산 운영본부(CMOC)를 통하여 전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위성, 레이더 및 기타 각종 정보수집체계로부터 입수한 미사일 조기경보 자료와 위성, 우주 통제에 필요한 제반 정보자료를 분석, 활용하여 모든 우주공간과 전세계의 인공위성을 감시하고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주사령관은 공군우주사령관(現, 미 공군대장 Howell M. Estes, III)이 겸직하고 있으며, 제반 우주 기반 무기체계의 원활한 지휘통제체

유지를 위하여 북미방공사령관도 겸하고 있다.

우주사령부 예하에는 각군의 우주사령부가 있으며, 그 중에 공군우주사령부(AFSPC : Air Force Space Command)는 우주사령부와 함께 Peterson 공군기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주사령부의 주요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공군우주사령부는 1982년 9월 1일에 창설되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미 공군 대륙간 탄도탄(ICBM) 운영 및 시험
 - 유도탄 경보 레이더, 감시 장비 및 인공위성 운영
 - 국가 우주 발사시설 및 작전 발사대 운영
 - 범 세계 우주감시 레이더 및 광학체계 운영
 - 국방성 인공위성에 대한 지휘통제 지원
 - 우주사령부와 북미방공사령부에 탄도탄 경보 지원 등

예하부대로는 제 14공군(Vandenberg AFB), 제20공군(F.E. Warren AFB) 등 2개의 번호공군과 1개의 직할 본부인 우주전본부(Space Warfare Center : Falcon AFB)등이 있으며, 병력은 현역 21,933명을 비롯하여 총 38,505명이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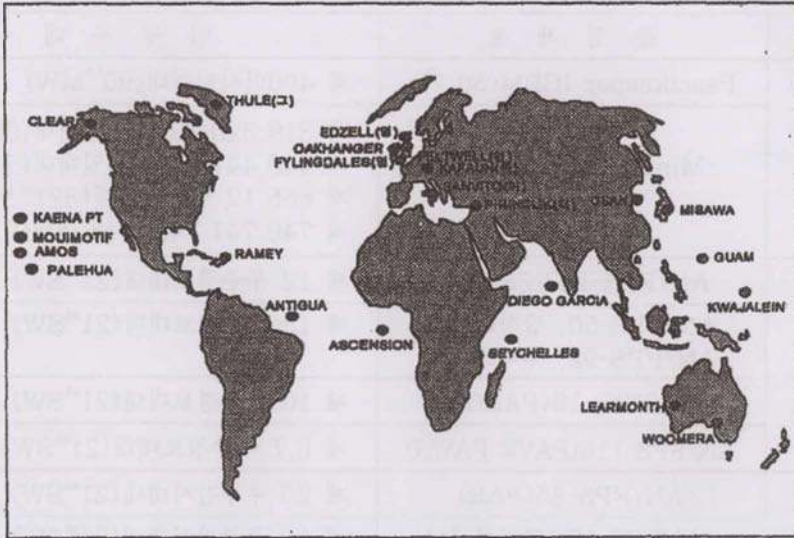
14 공군은 4개(21st, 30th, 45th, 50th)의 우주비행단(Space Wing)과 1개(750th)의 우주전대를 보유하고 전체 우주공간에 대한 감시와 기상, 통신, 항법, 조기경보 위성 등 제반 군사위성에 대한 지휘통제 및 우주 발사시설에 관한 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20 공군은 3개(90th, 91st, 341st)의 미사일비행단(Missile Wing)과 1개(321st)의 미사일전대를 보유하고 모든 대륙간탄도탄에 대한 조기경보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구분	운영체계	임무부대
전략체계	Peacikeeper ICBM(50 기)	제 400미사일대대(90 th MW)
	Minuteman-III ICBM (530기)	제 319,320,321미사일대대(90 th MW) 제 446,447,448미사일대대(341 st MW) 제 565,12 미사일대대(321 st MG) 제 740,741,742미사일대대(91 st MW)
미사일 정보체계	AN/FPS-123(SSPAR)	제 12 우주정보대대(21 st SW)
	AN/FPS-50, 탐지레이더 AN/FPS-92, 추적레이더	제 13 우주정보대대(21 st SW)
	AN/FPQ-16(PARCS)	제 10 우주정보대대(21 st SW)
	AN/FPS-115(PAVE PAWS)	제 6,7 우주정보대대(21 st SW)
우주감시 체계	AN/FPS-85(PAR)	제 20 우주감시대대(21 st SW)
	AN/FPS-17, 탐지레이더 AN/FPS-79, 추적레이더	제 19 우주감시대대(21 st SW)
	지상 전자광학 우주감시체계(GEODSS)	제 18 우주감시대대(21 st SW) (1,2,3 파견대)
인공위성	국방조기경보위성(DSP)	제 1 우주운영대대(50 th SW)
	국방기상위성(DMSP, 4개)	제 6 우주운영대대(50 th SW)
	NAVSTAR-GPS 위성(26개)	제 2 우주운영대대(50 th SW)
	MILSTAR 위성(2개)	제 4 우주운영대대(50 th SW)
	국방통신위성(DSCS, 11개) UHF F/O 위성(6개)	제 3 우주운영대대(50 th SW)
	NATO-IV/SKYNET	제 5 우주운영대대(750 th SG)
우주발사체계	Atlas II 로켓	제 2,3 우주발사대대(30 th ,45 th SW)
	Delta II 로켓	제 1,2 우주발사대대(30 th ,45 th SW)
	Titan II 로켓	제 4 우주발사대대(30 th SW)
	Titan II 로켓	제 4,5 우주발사대대(30 th ,45 th SW)
	우주수송체계(STS)	NASA(캐네디우주센터)

<표-1> 미 공군우주사령부 운영체계 및 임무부대

주요 운영체계 및 장비는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80여기의 대륙간탄도탄(ICBM)과 미사

일 정보체계, 우주감시 체계, GPS 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과 지휘통제체계 및 우주발사 체계 등 다양한



〈그림 2〉 미 항공 우주사령부(AFSPC)의 해외기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지는 미국 내 20여개 기지와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해외의 20여개 기지에서 우주 탐색 및 감시, 대미사일 방어체계 운용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립항공우주국(NASA)은 미국의 우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체에서 발사하여 운용 중인 인공위성과 타국에서 발사하는 위성에 대한 추적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이들 위성궤도에 관한 정보를 이 우주사령부에 통보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0년대부터 워싱턴DC 근교에 위치한 Roral 전파감시국에서 국제통신연합(ITU)에 등록하여 운용 중인 모든 위성의 궤도를 추적하고, 130MHz에서 13GHz에 이르는 주파수에 대한 전파 감시기능을 수행

중에 있다.

5. 구축방향

공군은 국가 영공을 방위하고 장차 항공우주군으로서 우주전장을 관리하며 갈수록 위협을 더해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공조기경보체계인 전역미사일 방어체계(TMD)를 구축하고, 적의 중심 깊숙이 원거리정밀 타격을 위한 정찰 및 감시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등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서 위성을 포함한 우주공간의 모든 물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각 정부기관과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우주정보센터 건립은 순수한 민간 정부차원의 우주정보관리 및 인공위성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국가 경쟁

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인공위성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통제체제를 공군의 주도 아래 구축하여 국가 위기시 또는 전시에 국가 우주자산의 보호는 물론 통합적인 위성체의 관리 및 통제(필요시 기능 중단 및 동원 등)를 통하여 국가방위 차원의 효과적인 인공위성 운용을 위한 국가통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통제 관리 대상위성은 국내의 민관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발사되어 운영 중인 모든 위성이 되며, 위성의 종류 또한 통신위성을 비롯하여 정찰 및 감시위성, 지구관측 및 원격 탐사위성, 기상위성 및 과학 실험위성 등 각종 위성을 총 망라하여 통제 관리한다.

또한 현재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한국통신의 무궁화위성 관제소(주 관제소 : 용인, 부 관제소 : 대덕연구단지)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우리별위성에 대한 관제 기능,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통신 전파감시 기능, 전파연구소의 위성전파 수신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기능 등 제한적이거나 지금까지 국내 연구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위성관련 전파감시 기능 및 위성 관제 기능을 국가 위기시 또는 전시에 통합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보다 장기적인 목표로는 이러한 위성통신체제를 모체로 하여 미국의 우주사령부와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군사 기구로서 국가 우주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각종 위성을 포함한 유도탄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우주물체에 대한 지휘통제를 담당하는 공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명실공히 공군에서 주창하고 있는 전략 우

주공군 건설을 위한 초석으로서 공군이 새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결 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치 21세기에는 정보화 시대와 함께 우주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가의 정세는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안보 전략환경과 국제정세 속에서 공군은 국가 방위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장차 항공우주군 창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공군은 한반도 영공 방위는 물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우주공간에 대한 통제 및 이에 따른 제반 우주 기반 무기체계와 인공위성을 관리하는 임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공군은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통제체제를 조기에 구축함은 물론, 기능 조직으로 공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으로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작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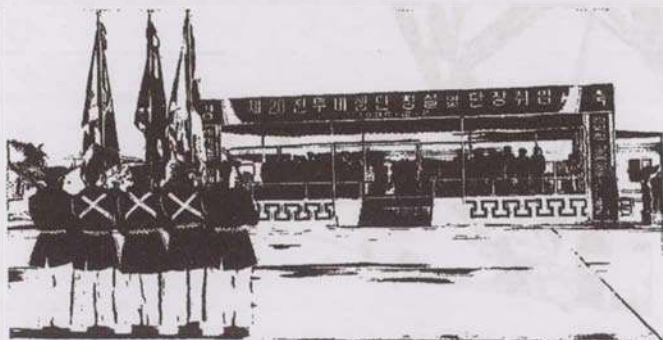
“한국 공군의 21세기 비전(Vision)은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전술공군의 틀을 벗어나는 일이다.”

서해안 시대와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미래지향적 표준 비행단



21세기 전략형 공군력 확보와 다가올 통일시대의 영공수호를 대비하여 작년 12월에 창설된 제20전투비행단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계획(KFP)에 따라 최신에 KF-16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 유일의 비행단이다.

산설 기지의 어렵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제20전투비행단은 "21세기 미래지향적 표준 비행단"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 부대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 부대 창설 및 단장 취임식



▲ 출격 사인을 보내는 조종사



▲ 조종사와 대화 중인 관제요원

서해안에 위치한 제20전투비행단은 87년 5월 「신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 89년 11월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96년 12월 1일 창설되었다.

우리 공군의 비행단 규모로서는 최대인 3백여만 평의 면적에 활주로 2본과 적기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엄체호 등을 갖춘 제20전투비행단의 창설은 서해안 시대와 21세기 통일한국의 서막을 알리는 우리 공군의 협찬 발전이었다.

제20전투비행단 전 부대원들은 부대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KFP 전력운용과 미래지향적 표준 비행단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신실 기지의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창설 부대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부대원들의 노력은 부대 창설 이후 항공정비, 무장, 보급, 관제, 통신 등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기공 제반 지원 업무를 완벽히 준비함으로써 항공전력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비행단의 항공전력 수용은 지난 3월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조립 생산된 KF-16 전투기가 전개됨으로써 이루어졌다. 항공기 전개 이후, 부대는 기지전력의 극대화 및 항공작전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비행안전 100일작전'을 전개하였다. 비행안전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임무요원의 신기지 적응과 작전운영 숙달을 위해 실시된 이 작전은 성공리에 수행되어 비행단의 조기전력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6월 18일, 제20전투비행단은 김영삼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기지전력화를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최강의 비행단 탄생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현재 제20전투비행단은 취약시간대 북부 지역 방공초계 비행 실시, 항공 전력의 사차계 운영을 통한 채공전력의 지속적 유지, 그리고 24시간 방공비상 대기과 대량긴급 발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괴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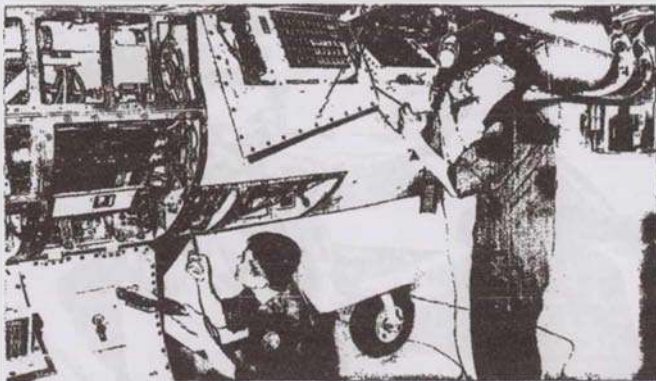
또한 KF-16 전투조종사 양성, 새로운 전술·전기 개발, 그리고 실전적 전투훈련을 통한 전투요원의 정예화를 통해 실질적인 KFP 전력화와 공군력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사실 제20전투비행단의 창설은 21세기 전략형 공군력 확보와 다가올 통일시대의 영공수호와 국익증진을 대비한 것으로 단순히 비행단 창설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영공방위는 물론 장차 통일한 국 시대에 예상되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20전투비행단은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21세기 미래지향적 표준 비행단」 건설을 위해 오늘도 전장병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김영삼 대통령의 KF-16 시승



▲ KF-16을 점검하는 정비요원



▲ 환경마화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

공군진중창작·전지상전시

■ 서예 (대상)

장병 정서함양과
창의적인 공군문화
창달을 위한
제12회 공군진중창작전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전 한림갤러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시각디자인 부문의
수상작 총 121점과
모형비행기,
대형 항공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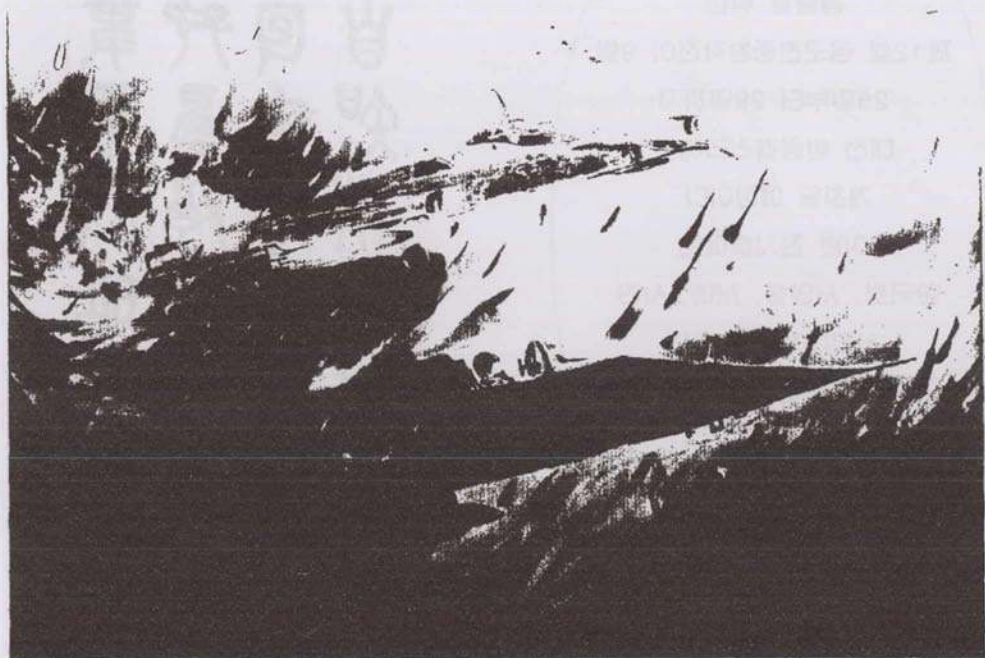
▲ 閑居卽事

중령 윤계남(전투발전단)

제12회

공군·진중창작·전지상 전시

■ 한국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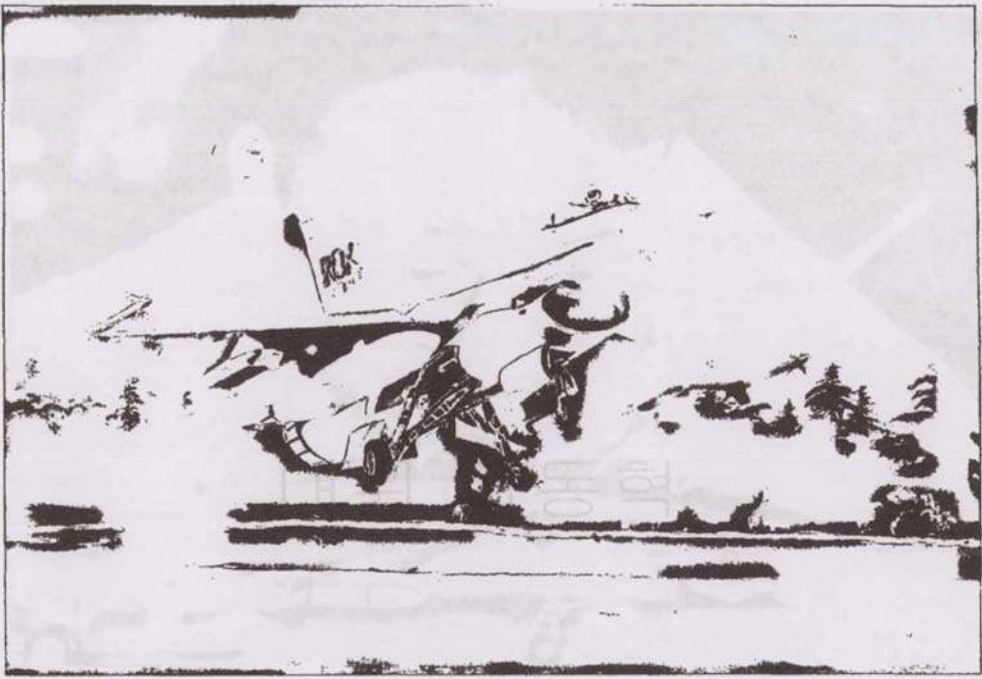
▲ 용감한 보라매

종사 김 종 두(복지근무지원단)

세 12 회

공군집중창작전시상전시

■ 서양화 (대상)



▲ 아름다운 비행

3년 권 대 군(교육사령부 기술고등학교)

· 세 12 회

공군진중창작·전지상전시

■ 사진대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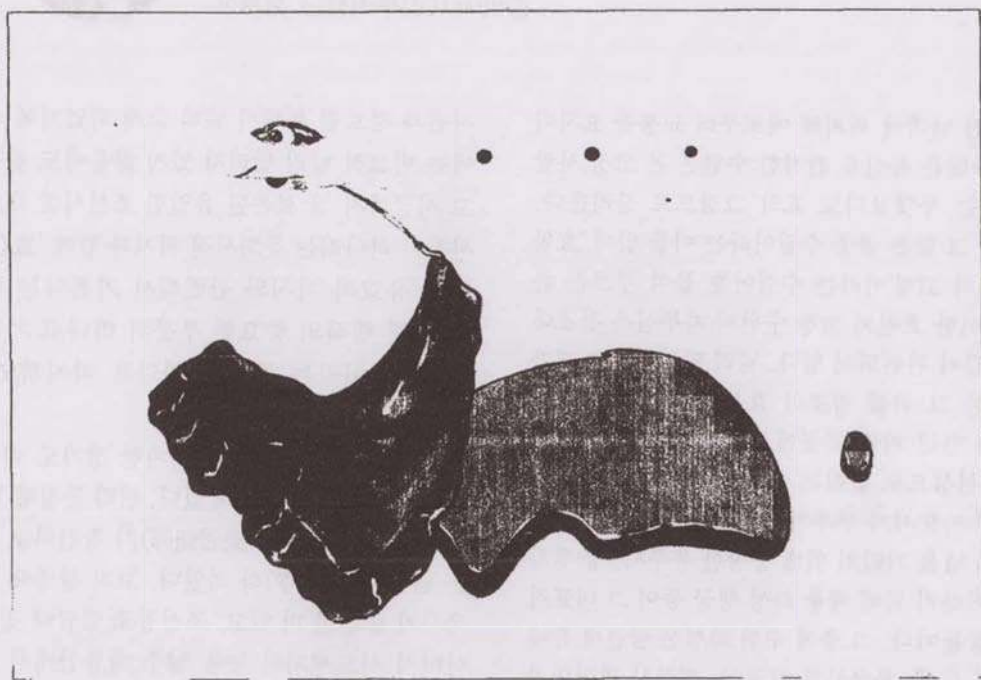
▲ 병영 취미

병장 서 호 영 (제3훈련비행단)

· 제12회 ·

공군진중창작전지상전시

■ 사진 (대상)



▲ 공군의 꿈

상병 윤 준 호 (방공포병사령부)

용주사(龍珠寺)와 정조

윤 재 홍

중위/제10전투비행단 정훈실



수도권 남쪽에 위치해 예로부터 교통을 요지이면서 수많은 유산을 간직한 수원은 본 고장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효의 고장으로 불리운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수원이라는 이름 앞에 '효원(孝原)의 고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부르곤 한다. 이러한 효원의 고장 수원의 자부심은 정조대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널리 알려진 사도세자에 대한 그 아들 정조의 효심이 얹힌 유적들이 수원과 인근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성으로 불리는 수원 화성, 정조와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 부부가 문헌 용건릉, 정조가 아버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증창한 용주사, 능 행차 시 기거하기 위해 세운 화성 행궁 등이 그 대표적인 유물들이다. 그 중에 수원 화성은 금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에 이어새로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이러한 유산들 중에서 수원성은 이미 다양한

지면과 경로를 통해서 널리 소개되었기에 이번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보존된 유일한 조선시대 대표적 사찰의 하나라는 문화사적 위치와 함께 '효(孝)'라는 유교적 가치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정조의 효행 행적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자리한 불교유적이라는 특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용주사는 수원 남쪽에 위치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에 위치해 있다. 신라 문성왕 16년인 854년 염거조사(廉居祖師)가 창건하고 이름은 갈양사(葛陽寺)라 하였다. 고려 광종때 호리국사가 증진한 바 있고, 조선정조 임금때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이장하고 현릉원(顯隆園)이라 하고, 아버지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갈양사의 옛터에 장흥 보림사에 있던 보경스

님을 불러 창건을 위한 도총섭으로 삼아 중창하였다. 보경 스님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정조 임금의 효심을 이해하는 전 국민으로부터 많은 시주를 받아 원만하게 불사를 마쳤다 한다.

원래 갈양사였던 절 이름이 용주사로 된 것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 오는데 이 또한 정조와 관련되어 있다. 정조는 절이 완공되는 날꿈에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친히 낙성식에 참석하여 절 이름을 '용주사(龍珠寺)'로 정했다고 한다.

용주사는 정조가 중창한 이래 후광에 힘입어 전국 5 규정소(糾正所)의 하나가 되어 불교계의 승풍(僧風)을 규정하는 사찰의 하나가 되었고, 1894년에는 지장전을 건축하고 수원 만의사(萬儀寺)에 있던 지장 보살상과 목조 10대왕 상을 모셔 와서 봉안하였고, 1900년에는 용해 스님이 중수하였다.

1911년에는 전국 31본산의 하나가 되어 수원, 안성, 남양, 죽산, 진위, 음죽, 용인, 고양, 시흥 등에 있는 48개 사찰을 관장하였고, 1969년 전강스님이 중앙 선원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기호 지방의 중심 수선도량(修禪道場)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유구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용주사는 그에 걸맞는 유적과 문화재를 갖추고 있다. 대웅보전, 지장전, 범종각 등 10여동의 건물과 탑을 비롯하여, 국보 제120호인 범종을 비롯하여, 정조가 기념 식수한 회양목(천연기념물 10호)이 있고 그 밖에 국가 지정문화재 및 지방문화재 8점, 일반 동산문화재 24점 등이 보관되어 있다.

용주사로 가는 길은 수원에서 오산을 향해 남쪽방향으로 길을 잡아, 오산으로 가는 1번 국도

의 옛길을 따라 가노라면 수원을 벗어나서 얼마 가지 아니하여 수원대학, 수원전문대 방향 표지판과 함께 용주사 안내표지판이 최근 새로 만든 입간판으로 길가에 세워져 있다. 그 표지판을 따라 약 10분 안이면 용주사 입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용주사는 시골길의 등근 공선이 막 끝나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빨리 달리다가는 절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을 지나쳐 버리기 일췌이다. 첫 번째 갔을 때 지나치고 말았는데 두 번째도 어김없이 지나치고 말았다. 지나치는 순간 근년에 새로 세운 듯한 화강암 자연석에 크게 새긴 용주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여느 절과는 달리 길가에 바로 인접한 절의 바깥 담을 볼 수 있다.

용주사의 전체적인 인상은 조선시대의 절이라서인지 기타의 절과는 사뭇 다르다.

야트막한 산의 기슭에 길을 끼고 자리한 탓인지 웅장한 맛도 시원한 조망도 고즈넉한 운치도 없다. 건물의 배치 또한 엄격한 균형미나 대칭의 긴장을 찾아볼 수 없고, 어딘지 모르게 허술한 듯한 인상을 준다. 또한 상당히 세속화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절의 중창 당시 의도가 다분히 불교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탓도 있겠지만 절의 위치와 최근 절이 갖게 된 불교계 안에서의 위상 탓인 듯도 하다. 절의 위세 만큼이나 세속화도 그에 비례해서 커지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절 문을 들어서면 곧 바로 한편으로 경내에까지 들어와 이곳, 저곳에 주차한 차량들과 원래 절에 속한 차량인 듯 어엿한 주차장까지 갖춘 차량들이 즐지어 늘어선 것이 보인다.

절의 양식에서 드러나는 불교와의 거리가 있는 모습 또한 만만찮다. 천왕문이 있을 자리에

행랑을 갖춘 삼문각이 있는 것이 그렇다. 양식상의 파행은 일주문을 지나고 삼문각을 들어서서 5층 석탑을 지날 때에도 여전하다.

보통의 절에는 대웅전 앞마당에 위치할 탑이 바깥 마당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전과 마주한 천보루도 그렇다. '천보루'는 보통 그곳에 있기 마련인 예불이나 법회를 위한 장소 대신 궁궐 같은 이름에, 모습 또한 궁궐의 한 건물처럼 돌기둥 위에 번듯하다. 그에 딸린 나유타묘와 만수리실 또한 어느 대갓집의 건물인 양 절간의 건물과는 사뭇 다르다. 절간에서 얻은 안내 책자에 따르면 이 모두가 정조의 능행차에 대비한 행궁(行宮) 규모로 집을 지은 탓이라 한다. 그러고보니 이해가 간다. 어릴적 자주 드나들며 뛰놀던 큰댁의 옛 양반집 같은 맛을 이 절에서 자꾸만 떠올리게 됨은 그런 탓이리라.

천보루 아래를 지나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서면 건물의 규모에 걸맞게 당당하게 쌓아올린 석축 위에 대웅전이 번듯하다. 나름대로 가장 백제답다고 생각하는 공주 마곡사의 아늑함과는 전혀 다른 마치 선경(仙境)과도 같고 계곡 속에 잠긴 듯한 청도 운문사와도 다른 조선식 절의, 왕릉의 원찰로서의 당당함과 부흥기 조선의 반듯한 정신이 투영된 듯한 그런 느낌을 마당에 서서 올려다 보는 대웅보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둘레단을 올라 대웅보전 안을 조망하면, 단원이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후불탱화를 마주하게 된다. 소문으로 듣고 또 단원의 그림이라는 설레임을 갖고 찬찬히 들여보지만, 어찌서 단원의 그림이라 하는지 짧은 식견으로 분별할 수 없고, 별다른 감흥도 일지 않는다. 다만 여타의 조선시대 사찰에 그려진 불화에 비해 구도나 인물의 모습이 잘 정돈되고 억지스럽지 않다는 것을 생각

할 뿐이다. 대부분의 문화유적에서 꼭 같이 느끼는 바지만 앞다투어 요금정수에만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적합한 설명서나 안내책자, 안내원을 배치해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보다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웅전 계단 오른쪽에 선회양목이 내게는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정조가 기념 식수한 것이란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갈무리 해 보완해 두었는데 그 휘어져 뻗어 올라간 자태와 함께 세월 속에, 세월을 견디고 세월이 깎인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 회양목은 천연기념물 제 10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대웅보전 왼쪽에 조그마하게 종각이 자리잡고 있고 그 안에 국보 120호로 지정된 범종이 있다. 고려초기 종의 특징을 잘 간직한 대표적인 종이라 한다. 아쉽게도 잘 잠겨져있고 둘러친 울의 간격이 너무 좁아 종의 모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종각과 마주하여 조금 뒤로 물러선 곳에는 조금높은 위치에 부모은중경탑이 세워져 있다. 1981년 부모은중경판을 복각하여 세운 것이란다.

새로 세운 탓인지 웬지 어색하고 규모도 잘 맞지 않으며 위치 또한 구도와 어울리지않는 듯하다

기타의 유물들, 은동향로, 청동향로, 부모은중경판 등은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다. 별도의 전시실도 없고, 유물각도 없는 탓인듯하다. 기왕에 사람의 발길이 잦은 곳에 자리해 있고 상당부분 세속화된 바에야 잘 지은 전시실을 하나 갖추어 이 절이 지니고 있는 보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절의 가치를 드높이고 먼걸음에 달려온 이들을 기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특히 부모은



대웅전의 불상과 김홍도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후불명화

중경판은 정조대왕의 효심이 불교와 만나 이루어진 대표적인 유물이고, 김홍도의 그림이 목각되어 있다고 하는데 목판은 커녕 목판을 찍어 놓은 것조차 볼 수 없으니 용주사를 찾은 큰의미 중 하나가 없어져 버린 듯 해 아쉬움이 컸다.

용주사의 감추어진 유물 중의 하나가 본 절의 뒷편 숲속에, 담장 밖에 자리하고 있는 요사채이다. 대웅보전 뒤의 야트막한 담 너머로 건너다 보이는 요사채는 울창한 숲속에 자리하여 한적하고 아늑한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요사채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사람들의 발길이 제한되어 있기에 더욱 좋게 보이는데도 모른다. 그래서 굳이 스님들의 허락을 얻어 둘러 보지 않고 먼 발치에서 보고 또 돌아보다가 발길을 돌리고 만다.

이렇게 용주사의 대략을 살펴 보았다. 돌아서

서 나오는 길에는 담장이 없이 조금 깊은 도장으로 인접한 산과 경계를 이룬 오른쪽 출입구로 돌아 나왔다. 일주문과 삼문각 사이에 위치한 뜰에는 백년 이상 된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매미소리가 우렁차다. 예전에는 절 앞에 난 길 너머로도 그런 숲이 있었고 푸근한 시골풍경이 펼쳐져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그시절을 그려보며 현재의 모습을 아쉬워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자연과의 조화를 깊이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이, 삼십년후의 용주사가 지금보다는 더 격조있는 사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접한 용진릉으로 향했다.

용진릉은 용주사에서 수원대 방향으로 약 1km 거리 안에 위치해 있다.

사도세자와 그 부인인 혜경궁 홍씨의 능이 용릉이고 정조부부의 능이 건릉이다. 정조는 아버

지의 능을 이곳 화산으로 옮겨오고 자신도 죽어 그곳에 묻힘으로써 살아서 못다한 부자간의 정을 저승에서나마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능사이엔 약 500미터 거리인데 특이하게도 용능을 둘러싼 산자락엔 온통소나무 숲이고 건릉을 둘러싼 산자락은 온통참나무 숲이다. 그래서 용건릉 입구를 둘러서서 얼마 안가서 나타나는 갈림길에서부터 두 갈래길은 하나는 솔 숲길이고, 다른 하나는 참나무 숲길이다. 인적이 드문 밤이면 이길을 따라서, 애뜻한 사연을 남기고 간 한 왕조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오고 가며 만나 회포를 풀 것을 상상해 본다.

안타깝게도 찾아간 날은 용건릉이 휴일이라 관람을 허용하지 않고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다만 능 입구에 지어 놓은 관리사무소는 조선시대 한옥식으로 잘 지어져 있어 능과 어울린다는 느낌이다. 문화재를 잘관리하는 한 예를 본듯해 흐뭇한 희망으로 능에 들르지 못한 아쉬움을 메울수 있었다. 용주사와 용근릉은 모두 다

정조임금의 효행과 관련된 유적이다. 서로 인접한 곳에 있어 함께 찾아가 관람하기도 좋다. 조금 더 시간을 낸다면 수원 시내에 들러 수원 화성과 행궁의 유적들도 둘러볼 수 있다. 정조의 아버지 에 대한 사모의 정이 가득 배어있는 이들 유적들을 둘러보면 조선 500년을 버틴 두 정신적 기둥인 충, 효의 한 큰 기둥인 효를 몸소 실천한 왕도 정치의 모범적인 임금, 정조를 만날 수 있고 인간미를 물씬 풍기는 유적들을 대할 수 있다.

이상으로 용주사와 용건릉 관람기를 마치고자 한다. 이들 유적의 뛰어난 점, 훌륭한 점 보다는 아쉽고 부족한 점을 더 크게 부각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 모두가 식견이 부족하고 문화재를 보는 안목이 부족한 탓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실제로 찾아가면 훨씬 더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 스님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63**

대위 이동혁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아십니까?

용 홍 근

중위/제17전투비행단 정훈실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든지 아니든 간에 문화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이기에 우리 자신은 그것을 까마득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온갖 문화(?)가 섞여 자국문화의 상실,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모든 것이 혼란하여 주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요즘이 바로 '문화(文化)'를 축으로 삼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일깨워 우리 모두의 자부심을 지켜야 할 때이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재 지키기'가 모토가 되어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94년으로 400주기를 맞이하신 국문학계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문화성현 송강선생을 접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송강(松江) 정철(鄭澈)에 대하여

송강 정철 선생(1536 - 1593), 그는 조선시대 최고의 문학가로서 상하 천고에 그 빛이 발하여 국문학사상의 금자탑을 이루고 있다.

그의 천부적인 문재는 <관동별곡>에서 절정을 이루며 후에 <훈민가>,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 많은 가사와 단가를 남겼다. 정철선생의 자는 '계함'이요, 호는 '송강'이고 본관은 '연일'이다.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총명했던 선생은 명종(明宗) 17년(1562)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이(李珣)와 같이 호당(湖堂)에 들어 갔다. 그때는 이미 동서의 당쟁이 노골화 되던 때라 그는 어느 틈에 서인의 거두가 되어 동인 이발(李潑)일파와 맞서서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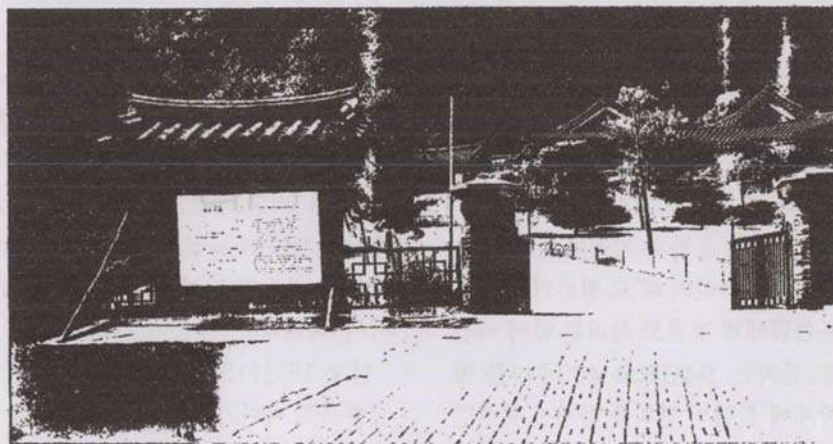
선조 13년(1580)에 반대 당에게 밀려 강원도 관찰사로 나아가 조용히 관동팔경을 빗하여 지냈다. 이듬해 다시 조정에 돌아왔으나 동인들의 세력이 굳어져 있어 창평(昌平)에 물러가 있었다.



선조 22년(1539). 다시 부름을 받아 우의정에 올랐으나 얼마후 결국 동인에게 밀려나 귀양을 다니고, 선조 25년(1592)에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귀양에서 풀려나와 평양에서 임금을 맞았다. 그 뒤에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는 등 임금과 나라를 위해 정

성을 다하다가 강화(江華)에서 병사했다. 정철 선생은 조선 선조 때의 정치가로 좌의정을 지냈으며 우리나라 가사학의 대가로서 기대승, 김인후 등을 문인으로 명종 16년 진사와 별시문(文科)에 장원 지평을 거쳐 함경도 암행어사를 지내고 율곡과 함께 사가독서의 은전을 입었다. 그가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전라함경도 관찰사를 지내는 동안 천부적 문재(文才)를 발휘하여 <관동별곡>과 <훈민가>를 지었으며 그 뒤 낙향하여 <사미인곡>, <속미인곡>등 많은 가사와 단가를 남겼다.

그는 조선 중종 31년에 태어난 문신이요 시인이다. 동서(東西)의 당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유교적 이상사회를 꿈꾸었던 그는 강직한 성품 때문에 정치적 곤경을 당했다. 수도없이 벼슬을 버리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 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반대



< 전승감사 전경 >

파의 모함 등으로 좌천되거나 유배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정치가로서 보다는 시인으로 더욱 역사적 비중을 지닌다. 서포 김만중이 그의 <서포만필>에서 송강의 전후미인곡을 들이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으로 극찬한 것은 그의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하다고 수긍할 만한 비평이다. 그의 글속에는 뛰어난 시적 감각과, 활원한 기개, 호탕한 과장법에 의한 문장들이 살아 꿈틀댄다. 시조의 대가 윤선도와 가사문학의 상제를 가일층 높고도 아름답게 그려 쌍벽을 이루었던 송강, 그의 4편의 가사와 107개 수에 이르는 방대한 시조는 지금의 우리 가슴 속에 생동하는 한민족의 삶의 정서를 불러 일으켜 주고 있다. 한문만을 문장으로 여기던 시대 속에서 우리 말의 맛을 극치까지 끌어 올린 불후의 인물 송강 정철, 그로 인해 그는 더욱 더 우리 마음에서 떠나갈 수 없는 지도 모른다.

3. 정송강사(鄭松江祠)로 가는 길

이제 한 번 우리 정송강사로 가 보도록 하자. 이 정송강사는 송강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조성한 장소로 아늑한 산속에 자리잡아 선생의 문학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 서울에서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충청북도 진천 인터체인지에서 빠진다.

곧 읍내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서 청주로 가는 국도를 끼고 달린다. 얼마 안 가 오른편으로 갈라지는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정송강사(鄭松江祠)가 있다.

진천군 문백리 봉죽리읍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이다. 송강은 1593년 58세의 나이로 강화에

서 별세했다. 처음에는 양친 묘소가 있는 경기도 고양군의 신원에 묻혔다가 1665년 진천의 이곳으로 이장되었다. 진천 현감으로 있던 손자가 자기 아버지(송강의 둘째아들)와 함께 모시기 위해서였다. 당시 송시열이 지명을 쓴 신도비가 지금 정송강사의 입구에 서 있다. 정송강사는 1978년 중건을 시작하여 1988년에 마쳤다. 사당 외에 유물관도 세워졌다. 1994년 400년을 맞이하여 유물관은 기념관으로 새로 현판되었다.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가사가 서예가들의 새 글씨로 걸려 있다.

송강의 친필 유묵이 달필이다. 묘소는 사당입구에 산허리를 돌아나간 곳에 있다. 환희산 중턱에 아들과 함께 위아래로 함께 누워 있으며 봉분이 대왕처럼 크다.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와 고산 윤선도와 함께 조선조 국어문학의 3대 가인의 하나이자 그 중에서도 단연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 일컬어지는 송강을 직접 만나 봄이 어떠한지 ...

4. 문학적인 위치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판동팔백리에 방편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누가 이 <관동별곡>을 모른다 하라.

'한잔 먹세 그려 또 한잔 먹세 그려 꽃 꺾어산 놓고 무진 무진 먹세 그려'

누가 이 <장진주사>를 모른다 하라.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끝없는 은덕을 어디다가 갚으리까'

누가 이 시조를 모른다 하라. 그러나 지금 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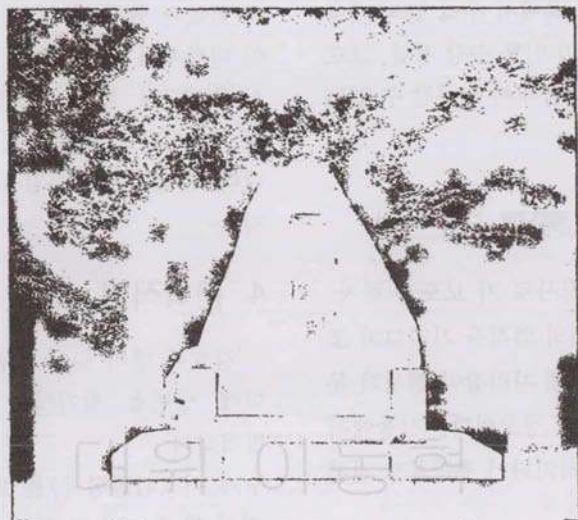
어디에 누워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한 민족으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기록한 업적을 영원히 기려야 함과 같이 또한 그 훈민정음을 최초로 최고의 문학어로 발전 시켜놓은 송강의 업적도 영원히 기려야 마땅할 것이다. 그는 4편의 가사 외에도 80여수의 단가와 7백수가 넘는 명편들을 남겼다. 1백년 뒤에 태어난 김만중은 '자고로 우리 말의 참된 문장은 관동별곡과 전, 후미인곡의 3편 뿐이다. 라고 썼고 고가 연구의 대가 양주동은 조선조 5백년 시조는 수천수에 달하나 시조다운 시조의 대표적인 작가는 송강을 첫손가락에 꼽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가전 장가전 그의 문학은 오늘 읽어도 입에 설지 않다. 한문문학이 사대부의 문학이던 시대에 그의 당당한 언문문학은 자국문학을 일깨웠다. 생생한 민중의 구어가 그의 노래로 하여 비로소 찬란한 문학어로 되었다. 우리 국어의 미학은 송강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말이 아름다운 줄을 송강이 인식시켜 주었다.

일찍이 송강에 대하여 심혈을 경주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한 김사업은 <정송강 연구>의 결론에서 "송강의 예술은 이제 새로운 빛을 받아 민족 전부가 끌고부 사

랑하여 그 높은 예술의 향기에 심취할 때가 도래하였다. 위대한 예술가는 언제나 외국에만 있고 조선에는 없다고 속단하는, 그리고 우리네 고전에는 장님인 현대의 일부 시인들은 나아가 모를 지기 송강을 배워 새로운 시도를 연구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 앞으로의 송강 예술의 연구와 송강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하고 송강의 위대성과 미래의 위상까지도 언급하였다.

이처럼 송강 작품의 문학적 수준이나 국문학사적 위상에 대해서는 자고로 높이 평가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문학적인 각도에서의 연구논문이나 저서도 팔목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송강의 작품에 대하여 국문학 내지 국어 교육적인 각

도에서의 연구는 소홀한 편이다. 당시 한문 위주의 문필생활을 했던 사대부들이 현재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송강 작품에 있어서 국어학적인 나아가 국어사랑의 국어교육적인 위상은 더욱 부각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평가가 재조명되어야 마땅하다. 송강에 대한 평가는 여러가지로 나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송강의 국어사랑의 정신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 송강 정철 선생 시비 >



시 송강의 신분을 보나, 760서두를 남겨놓은 한시의 양이나 질로 보아도 <관동별곡> 전체를 한문으로 엮어도 될만한 것이다. 그런데 왜 송강은 한문으로 엮지 않았을까? 송강은 누구 보다도 일찍이 국어사랑의 정신이 강렬했던 것이다. 송강은 자연에 대한 느낌을 해독의 과정이 필요한 한문체보다는 직접 가창할 수 있는 우리말로서의 표현을 선가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송강의 의식 속에는 오늘날 한글사용주의자들이 속되게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글만이 우리의 글이요, 한자는 차용문자라는 편협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한글과 한자를 구별없이 모두 우리의 일상어문생활을 표현하는 국자로 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글과 한자를 어떤 작품보다도 가장 조화롭게 활용한 작품이 송강의 가사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글을 처음 지은 것이 세종대왕이라면 한글로 글다운 글을 처음 지은 것은 송강이라 할 수 있다. 송강은 우

리 모국어의 발견자다. 그 모국어를 쓰는 우리는 모두 그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

5. 송강의 제조명을 바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었다. 뿌리를 잃고 겉가지들에만 신경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해 왔었던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체되어 있는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옛성인들의 바른 정신문화 구현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조용히 책상에 앉아 <훈민가>의 한구절을 읽으며 그 단어 단어하나에 포함되어 짙게 풍겨나는 향기를 몸으로 느끼면서 내일의 우리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방법은 어떨까? 태어난 지 400년이 지난 이의 속마음과 문학의 가치를 단시간내에 섭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누구에게나 송강 선생의 깊은 속뜻을 이해하기 시작 한다면 미래가 펼쳐질 내일을 아름답게 기약하리라. **등근**

대위 이 동혁

여기, 화랑도 정신이 깃든 한송정(寒松亭)이 있다.



박진규

중위/제18전투비행단 정훈실

여기가 사선들이 유람하던 곳
지금도 남은 자취 기이하구나
주대는 거꾸러져 풀에 묻혔고
차화덕 내뿜굴어 이끼만 쫓네

〈김극기: 東國輿地勝覽, 제44권〉

고려 문인 김극기(1170-1197)는 한송정터를 둘러보고 그 정경의 쓸쓸함과 묻혀버린 예전의 정취를 이와 같이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이곳 한송정이 그리 짧지 않은 역사와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녹두정(菘豆亭)이라고도 불리우던 한송정은 신라 화랑들이 명산대천을 순례하면서 심신을 수양할 때 차를 달여 마시던 곳이었다. 현재 18비 안에 그 터가 자리하고 있는 한송정(寒松亭)은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정자를 말하는데, 정자

의 자취는 간데 없으며 단지 차를 끓일 때 쓰는 물을 기르던 돌샘과, 한송정이 묻혀 버리는 것을 안타까워 해 지난 83년 비행단에서 세운 간이 정자만이 역사의 자취를 알려 주고 있을 뿐이다. 남아있는 유물들은 보잘 것 없지만 이곳에 서면 앞은 탁트여 동해 바다가 드넓게 펼쳐지고, 뒤로는 해송(海松)이 둘러싸고 있어 절경 중의 절경이라 칭송했던 당시 문인들의 숨결을 더듬게하고 있으며 이곳이 간직하고 있는 오랜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의 문헌을 살펴보면 BC 2737년경 이미 차는 기호음료로서 이용되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이 차를 마시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茶自善德王時有之”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선덕여왕(632-647) 때부터 였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 한송정 터 돌샘 >

신라의 사선(四仙)과 차유적지에 관한 글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선(四仙)이란 글자 그대로 네 사람의 선인(仙人)을 말하는데 신라의 선인은 바로 화랑이기도 했다. 지금도 그렇듯이 동해안은 그 아름다움이 탁월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동해 안 중에서 한송정, 경포대, 영랑호, 삼일포는 신라 화랑들의 대표적인 순례지였다. 이 가운데 한송정, 경포대에서는 이들이 차를 달여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사선, 즉 영랑(永浪), 남랑(南郎), 술랑(述郎), 안상(安詳)은 초기의 화랑들이므로 이 기록에 따르면 이미 진덕왕(540-575) 전후인 6세기에 이들이 차를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송정 차온밤 달이 하얗고
경포의 가을날 물결이 잔잔.
슬피올며 왔다가 다시 또 가니
저 갈매긴 언제나 믿음 있고녀.

< 장연우 : 寒松亭曲 >

화랑들이 자취를 남긴 이래 장연우(?-1015)

가 유명한 「한송정곡(寒松亭曲)」을 남겨 그 이름을 국문학사에 남겨놓은 것을 비롯하여 한송정에 대한 고려 말, 조선 초 문인들의 칭송은 여기 저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이곳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자리매김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조선초기의 문신이자 대학자인 서거정은 「운금루기문(雲錦樓記文)」에서 “우리나라 산수의 훌륭한 경치는 판동이 첫째이고, 판동에서도 강릉이 제일이다. … (중략)… 강릉에서도 가장 좋은 명승지는 경포대, 한송정, 석지, 석조, 문수대”라 하였다. 이렇게 해서 강릉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는 제일 강릉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고려 문인 이곡은 1349년 한송정에 들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날이 아직 어둡기 전에 경포대에 올랐다. 옛날에는 대에 집이 없었는데 근래 호사자가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 옛날 선인의 석조가 있으니 대개 차를 달이는 도구이다. 삼일포와 경계(景

概)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시원스레 북 트이는 거 다도 낫다. 비가 와서 하루를 묵고 다음 날 강성을 나와 문수당을 구경 하였다. 사람들의 말이 문수, 보현 두 석상이 땅에서 솟아 나온 것이라 한다. 한송정에서 송별연을 베풀었다. 이곳 또한 사선이 놀던 곳이었는데 고을 사람들이 한송정에 유람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자 이를 귀찮게 여긴 나머지 집을 헐어 버렸다. 소나무 또한 들쭉로 타버리고 오직 석조, 석지와 두 개의 들우물만이 그 옆에 남아 있었는데 역시 사선의 대구라 하였다.” <이곡: 東遊記, 東文選 71卷>

이 곡은 한송정을 직접 유람하곤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사선은 돌아가고 한송정만이
화덕과 가지런히 남아 전하네
인정은 그 옛날과 사뭇 달라도
경치는 예나 지금 변함이 없네.
일찍이 이런 곳을 찾았었다면
맹랑한 소문이라 일축 했겠네

<이곡: 東遊記, 東文選 71卷, 寒松亭 >

이곡은 그의 동유기에서 한송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였는데 말로만 듣던 사선의 차유적지를 직접 찾아 확인하고 느낀 감정을 사실대로 토로하고 있다. 풍문을 사실로 확인한 기쁨이 한자 한자에 서려 있다.

또한 역시 고려의 이인로(1152-1220)는 그의 「파한집(破閑集)」에서

까마득 옛적에 사선 노닌 곳
푸르른 소나무 우뚝 서 있네
차 샘속 달만이 그때 그 시절

어렴풋하나마 생각해 하네

<이인로: 破閑集, 卷中, 寒松亭>

라 하였다.

한시(漢詩)가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치 이러한 기록들은 한송정이 신라 화랑들의 차유적지임을 뒷받침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송정이 우리나라 차문화의 발상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걸맞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예로부터 차는 좋은 물로 끓여야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하여, 다인(茶人)들은 '물은 차의 근본'이라고 까지 했다 한다. 다인들이 으뜸으로 치는 좋은 물이란 우거진 소나무 숲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말한다고 한다.

고려말 다인으로 유명한 도은(陶隱) 이승인(1349-1392)은 정도전에게 차와 안화사(安和寺) 샘물 한병을 선물로 보내면서 "송악산 바위 틈에 가는 실샘은 술뿌리 영진 곳서 솟아 났다오"라고 했는데 이는 차를 달여 마실 때 쓰는 물이 어떠한가 하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관동팔경을 비롯한 동해안의 명승지는 한결같이 소나무 숲으로 뒤덮혀 있으며, 지금도 강원도가 "푸른솔 숲, 맑은 물, 깨끗한 백사장"을 관광유치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듯이 솔숲, 특히 갯솔(해송)은 유명하며 한송정터도 예외는 아니다.

한송정은 이렇듯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일찍부터 차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5월 17일 한송정터에서는 '들차회(野茶會)'라는 낯선 이름의 행사가 열렸다. 강릉동포 다도회와 강릉시립박물관이 주최하고 강릉시와 18비가 공동 후원한 이 행사는 원래 작년 10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않던 무장공비 침투사

건의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 되어오다 올해 5월, 차의 달을 맞이하여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다.

들차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다도(茶道) 행사는 차문화 강습회, 헌다례(獻茶禮), 음다(飲茶)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18비 단장을 비롯, 지역 기관장과 전국에서 모인 다도인 등 500여명이 참석해 한송정터 잔디밭이 비좁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서도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행사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몰려 들었다.

이 날 행사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끈 볼거리는 헌다례 순서였다. 강릉동포다도회의 회원 100여명이 당의를 곱게 차려 입고 앉아, 차를 우려 내는 법, 차를 마시는 방법 등의 다도(茶道)를 회장의 설명 아래 재현 해 보인 이 순서에서 이를 지켜 본 사람들은 한송정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차를 마시던 화랑들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었다.

행사를 치르는 다도 회원들의 얼굴에는 감격스러움이 배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한송정터가 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그 복원이

자유롭지 못하고 출입이 까다로운 것을 안타까워 하며 10여년전 부대에 요청, 회원들끼리 모여 조출하게 다도행사를 치른 바 있는 이들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가, 시립 박물관, 강릉시 등과 함께 이 행사를 준비, 18비의 허가로 들차회 행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날 행사의 성대함에서 알수 있듯이 한송정은 다인들에게는 단순한 유적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종교인들에 비교될 만큼 차문화의 복원과 발전에 열의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한송정은 하나의 성지(聖地)와도 같이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론, 차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의 다도인들까지 차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한 번 훑어보고 싶어할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다도인들에게 성지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한송정의 현재 모습은 그 명성에는 걸맞지 않게 초라한 것이 사실이다. 비행단에서 간이로 만들어 놓은 정자와 들샘, 그리고 한송정의 유래를 설명해 놓은 안내판이 성지를 지키고 있는 유적



< 들차회 행사 >

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위치도 예전 신라 화랑들이 차를 마시던 곳은 아니다. 원래 정자가 있던 자리는 지금의 터 옆에 자리한 동산 꼭대기로서 경포대와 동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지만 이곳이 비행단 전경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차를 끓이는 물을 기르던 돌솥의 자리에 간이정자를 지어 놓았던 것이다.

다도인들에게는 이 곳을 세계적인 차문화유적으로 가꾸려는 소망이 있다. 민족의 자긍심이 담겨있는 차 유적지를 복원,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조상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다구복원, 정자복원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런 연후 세계다도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원대한 소망도 있다.

특히, 신라 화랑들이 사용하던 다구에 대한 미련은 남다르다. 앞에서 살펴본 이곡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사선들이 사용하던 다구(茶具)가 있었다. 지금도 돌솥 옆에서 다구처럼 보이는 돌이 남아 있어 화랑들의 다구인 석지조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의 연구를 통해 1868-1870년 강릉부사로 있으면서 한송정을 둘러 보았던 윤중의가 신라 선인들이 이곳에서 노닐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에다 글씨를 새겨 놓은 것이 석지조로 잘못 알려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에는 가로 40cm, 세로 10cm, 깊이 8cm의 홈이 파져 있으며 홈 주위에는 "한송정신라선인영랑연단석구(寒松亭新羅仙入鍊丹石臼)"라는 음각글자가 있지만 이 돌은 비석 받침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화랑들이 사용했던 다구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현의 글을 살펴보면 원형 재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려 때 삼장 순암법사는 임금의 분부로 금강산으로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그 길로 한송정을 돌아 보았는데 마침 어려서 개성 묘연사 근처에서 본 것과 똑같은 석지조를 인부 10명을 동원하여 처마밑에다 옮겨 놓고 손님을 초청, 차를 달여 마셨다고 한다. 1337년 순암법사는 석지조를 발굴하여 얻게 된 기쁨을 감추지 못해 친구인 익재 이제현(1287-1367)에게 이름만 듣고 석지조의 생김새를 보지 못한 후세인들을 위해 기문을 부탁하자 이제현은 <묘연사석지조기>를 써주었다. 이기문에는 석지조에 대한 생김새가 정확히 묘사되어 있는 한송정 다구를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인들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이들의 바램대로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한송정터가 비행단 안에 위치하고 있어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다구와 정자 복원 등 신라 화랑들의 차문화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작업도 체계적인 검토와 예산 등의 이유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유산을 곁에 두고 있는 우리공군인으로서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한송정의 물리적 복원보다도 정신적인 유산의 복원에 있다. 신라시대 충과 효의 근본이 되었던 화랑과 그들을 그렇게 연단시켜 주었던 화랑도, 그 정신을 키우기 위해 심신을 단련하던 곳이 현재 국가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

용맹과 충의로서 삼국을 통일했던 그들의 기백과 화랑도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송정을 복원하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문**

세계 일류 공군을 위하여



김 종 욱
중령/정신교육원 연수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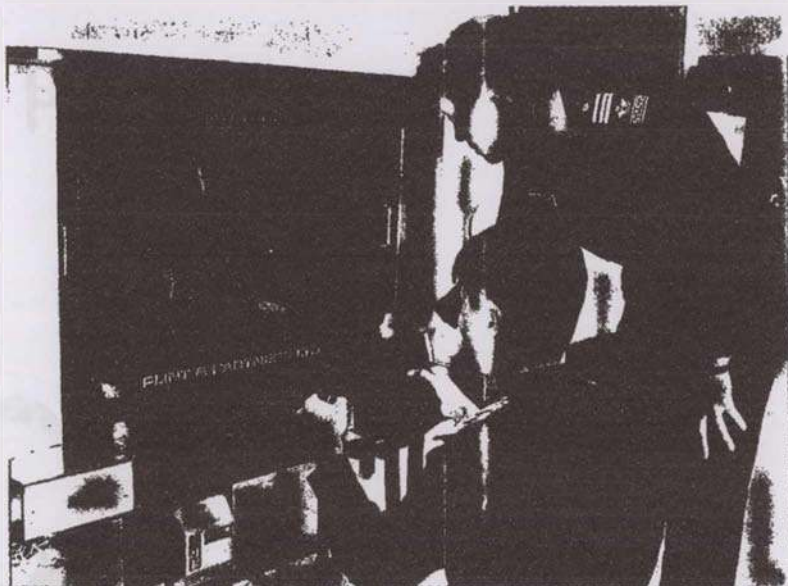
1. 21C 한국의 위상

한국인 특유의 탁월한 잠재역량과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민 총생산 면에서 95년 기준으로 4,517억불을 기록하여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으로 인한 대량 파괴의 잣더미 속에서 단시일 내에 괄목한 만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 시켰고 동구, 동남아 및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두 눈을 감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가슴 뿌듯하기 짝이 없다.

얼마나 장하고 장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유능한 민족이고 국민인가! 이러한 성장 추세로 간다면 21세기 초반에는 일본과 함께 동북아의 중심세력으로서 동북아 시대를 여는 중추적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청신호의 그림자에는 세계적 문제아 북한이 도사리고 있다. 언제든 틈만 나면 무력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어 한국은 호기와 위기가 공존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여건 외에도 한반도라는 지역의 지정학적 여건은 어떤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으로 일컫는 해양세력의 교차지점으로서, 항상 이들 양대세력의 틈바구니에서 한치의 헛점이 용납되지 않는 긴장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 전개 되더라도 한국은 계속 성장해야 하고 생존하여야 한다. 더욱이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여 기아와 억압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통일과 생존이라는 두 명제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통일을 달성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



전략공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를 보유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군사적 역량이 그것이다.

2. 공군력의 중요성

굳이 제 1, 2차 걸프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현대전의 판건은 항공력이다.

공군력의 공중 우세권과 제공권의 장악없이 현대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다. 공군력은 그 특성상 경제적 한계성은 있을 수 있으며 그 역할의 무한대성은 충분히 인정되 고도 남는다. 일단, 유사시에 적의 중요한 급소부분을 일거에 강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대가 어떤 나라이든지 우리를 쉽게 볼 수가 없다.

상대가 쉽게 볼 수 없는 공군력이란 어떤 공군력일까. 한마디로 전략형 공군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공군력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강한 공군력이야말로 그 기동성, 속도성, 무한한 공중 침투능력을 고려할 때 어떤 군사력보다도 우위성이 입증되는 힘이다. 그러나 이 공군력이 단지 북한 공군만을 겨냥한 지극히 전술적 차원의 한정된 범위의 공군력이라면 21C 가상 적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우리의 국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힘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해야만 하는 군사력 우선 순위는 단연 공군력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3. 전략형 공군의 건설방안

첫째, 전략전문가 양성

21C를 주도하고 한국을 더욱 튼튼히 보위하기 위한 공군력 건설의 요체는 인력이다. 아무리 우수한 첨단무기라도 거기에 그것을 개발·운용할 수 있었던 우수한 인력이 없으면 별 소용이 없다.

우선, 전략공군을 건설하기 위해선 전략적 사고를 보유한 전략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전략 전문가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꿰뚫을 수 있는 안목과 주변 국가의 역학관계에 대한 높은 식견과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가를 양성하기 위해선 우선, 해당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고급 학위과정 및 참모대학에 위탁교육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그들을 분명히 알고 그들과의 친분을 두터히 한 인재의 양성은 미래에 관계국과의 역학관계의 전개 양태에 대하여 확고한 식견과 지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사고를 보유한 전문가의 양성은 장기전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공계 위주의 과학 기술인력 양성만으로는 전략가를 양성할 수 없다.

둘째, 첨단무기 체계 운용요원 양성

민간 부문에서 양성된 이공계의 우수인력이나 전문가는 민군 협동체제를 통하여 군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첨단무기 체계의 운용요원을 대거 양성해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라 하여도 이를 100% 활용하지 못한다면 재래식 무기나 다름이 없다. 첨단 무기체계의 운용요원은 무기 제조국이나 그 회사에 장기적 파견교육을 통해 육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인 양성
정보 없이 싸운다는 것은 눈을 가리고 사각의

링에서 싸우는 권투선수와 같다.

현재 우리군은 정보수집 분석면에서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나 남의 불에 게를 잡는 상황을 지속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기술과 장비, 이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기술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정보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요소, 즉 전략가, 첨단무기 운용요원 그리고 정보력이 합해져야 전략공군을 건설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추진 그리고 이에 상응한 무기체계 도입 확보 및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4. 전문인력의 관리

양성된 전문인력은 유효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군조직은 계급조직이므로 계급에 상응한 보직을 맡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계급에 의해서 보직이 계속 바뀌게 되면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인력으로 양성된 자원은 계급과 보직을 초월한 직능적(전문보직)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단일보직에서라도 어떤 특정기술이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해당업무를 추진 함으로써 전문성을 심화 발전시키고 추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어야 하겠다.

5. 연구개발 및 교육에의 투자확대

시대와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지는 곧 퇴보와 추락을 의미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화 발전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

한 가장 긴요한 과제는 연구 개발이다.

어떠한 국가든 어떠한 조직체든 연구개발 없이는 발전은 커녕 현상 유지마저 어렵다. 기업, 국가의 발전의 요체는 연구개발이다. 공군이 그 위상과 역할에 부합한 조직과 역량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정책입안자 및 결정자들은 작전분야와 같이 당장효과가 눈에 보이는 분야 뿐만 아니라 먼 장래를 무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해안이 있어야겠다. 연구개발의 전제 조치는 교육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없이는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 어떤 분야에 언제 얼마만큼의 인재양성 수요가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고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교육시켜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기량이

최고도에 달한 조종사 등 기타 실무 요원을 수년씩 타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시킨다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볼 때 여간한 손실 또는 안타까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하여 21세기 동북아 정세상 한국의 위상과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그 시대를 유효 적절하게 이끌어 갈 인재를 미리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21세기 한국의 위상과 공군력의 역할에서 기대되는 합당한 전략적 공군력 건설을 위해 소요되는 전략가, 첨단기기운용 요원, 정보화 시대를 수행할 정보인 양성과 이들 전문인력의 합리적 관리, 이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투자등은 공군적 또는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정책 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확신한다. **중략**

대위 이동혁

주체적 자아로서의 참모습



우 성 영

일병/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거리에 나가 보면 술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걸거리를 뛰며 뭔가를 찾는 사람, 시끌벅적 떠드는 사람, 무엇인가를 열심히 먹는 사람,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지 멋지게 뽑아 입은 사람,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흔들리는 자기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을까?" 등의 생각들을 말이다. 나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를 것처럼 분주히 움직인다.

하지만 우리 뿐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 분의 멋진 문학작품을 읽고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해 가며, 고민을 하고 무엇인가 주체할 수 없어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가 멋진 인생을 설계해 보겠다고 크게 한 번 떠들어 재기를 부려보

기도 하고, 또한 막연한 상황에 처해 갑갑함을 이겨 내려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여행을 떠나보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그 자신의 주체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자신의 참모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다.

사람들은 모두 영웅이 되길 원할 것이다. 아니 이제는 바라지 않을 지도 모른다. 어려서 위인전을 읽고 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 본 적이 있는 영웅 말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아니, 어느새 성년이라는 길에 접어들어서는 영웅이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절망감에 익숙해 버리고 주위 여건에 의한 영웅 상실감이 때 아니게 와 닿아 이제는 하나의 평범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영웅

들은 자신을 위한 사람보다는 남을 위해 살다가 죽어 갔다는 단편 논리적인 사고가 지배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발상에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나의 너무 큰 테마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자기자신을 떨쳐버리는 방법으로 자기자신만의 소설의 주인공을 그려 보는 것이다. 자신이 절대적이 되어 그 만의 세계의 운영을 할 수 있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간 내의 모습을 더 나아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고 머리 속으로 나아가 소설화해 보자.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휘청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감히 머리 속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위인전에서의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현재 이 상황에서 너무 그리울 뿐이다.

우리가 삼국지에서 유비는 결단력이 없고 혼란한 전쟁 속에서 훌륭한 병법도 없이 모든 작전권을 제갈공명에게 의지 했던 모습에서 훌륭한 장수가 아니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갈공명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유비의 자신에 대한 신뢰감에 무척 고마워할 것이다. 또한 조조의 대담성에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의 부하로 있었다면 그의 독단에 치를 떨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모습을하고 있는 자신을 어쩌면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기도 할 것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나자신을 맞추어가는 가변형적인 인간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잡아가는 모습이 더 필요할 것이다. 수직관계의 인간관계 속

에서 우리는 어쩌면 쉽게 어리석어질 수도 있다. 의견조정이 아닌 일반적인 통보만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세대들은 이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익숙해져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뭔가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도 생활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어쩌보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위기인지도 모른다.

참모습을 찾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깊은 자각만으로도 어쩌면 부족할지 모른다.

자각은 자각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니 자각만으로 그치더라도 모든 이가 자각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대단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밖에 길이 없다면 용기있는 결단으로 그 길에 대한 자각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일깨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에 그렇게 목매인 적도 그렇게 집착한 적도 없는 자신은 그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 구체적인 일이 아니라면 참다운 것을 찾는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판단력에서 만큼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의 생활이 원래 자신이 아니었다면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현재의 냉철함이 참 자신을 만들어 가야만 할 것이다.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걷고 가끔 실수하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만 참다운 모습이 아닌 또 다른 실수는 과감히 채찍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처해서 어쩌면 부담스럽고 어

찌면 안타까운 모습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참다운 자아를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에서 영웅 얘기를 하였는데 또 한 번 하기로 하자. 우리는 현재 박학다식한 영웅만을 원하는 게 아니다. 독배를 마시고 목숨을 끊은 소크라테스를 원하는 건 더더욱 아닌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땀땀할 수 있는 소 영웅을 원하는 것이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현실로 선 절실하다. 타성에 젖은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모습보다 정녕 참다운 모습에서 순간 스쳐가는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는 자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김정일씨의 '나는 단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 라는 수필집에서 나 아닌 나의 그림자가 또 다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한다고 얘기를 한다. 내 자신과 똑같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행동으로 자기자신을 유도한다는 말이다. 추상적이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밝은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들여켜 보면 어이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그렇지 못한 행동이었는지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고집스러운 자신의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고집스러운 자신의 방법이 자신의 신변에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들을 무의미한 문제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도서관을 달아보던 한 늙은 죄수가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해 버린 세계에서 필요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자살해 버린다. 하지만 주인공 팀 로빈슨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어가기 싫었던 모양인지 똑 같이 필요없는 존재라고 느꼈을 세상에서 자신의 고집으로 유람선과 별장을 만들어 멋진 인생을 설계한다. 자신의 어려운, 억울한 누명을 남겨둔 채...

이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찾자! 그리고 그것이 옳고 좋다면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고집을 키우자. 그 길이 주체성을 잃어가는 자신을 일으켜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3

대위 이동혁

홍콩반환 과정과 그 의의



김 영 진

베를린대학교 정치학 박사

1. 들어가는 말

지난 7월 1일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으로 반환되었다. 홍콩반환은 중국인들에게는 제국주의 유산의 청산과 아울러 대만과의 통일 및 중화 경제권의 형성에 이르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이미 아시아의 경제, 금융,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발전에도 적지않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홍콩 반환의 역사적 배경 및 현황, 그리고 반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 기초하여 홍콩의 장래에 대한 전망과 한국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2. 가난한 식민지에서 번영된 도시로

중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면적 1000km²의 홍콩

은 크게 홍콩섬, 구룡반도와 신계(New Territories)로 구분된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각각 제1차와 2차의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뒤 1842년과 1860년 체결된 남경조약과 북경조약에 의해 영국에 영구 조차되었다. 신계는 1898년 제2차북경 조약에 따라 99년간 조차되었다. 조차될 당시만 하더라도 홍콩은 가난한 항구에 불과하였다. 홍콩이 상해 등 다른 중국의 항구 도시들과는 달리 번영을 약속하는 땅이 아니었던 것은 남경조약에서 홍콩을 조차하는데 공을 세운 영국의 해군 대령 찰스 엘리엇이 "쓸모없는 땅을 조차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그 이후에도 홍콩은 비록 외국자본에 의한 근대적인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나 저임금, 고율의 세금을 비롯한 약탈적인 식민지 정책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홍콩은 수만명이 집이 없어 천막이나 판자촌을 짓고 살아야 했던 매우 가난한 곳이었다. 인구도 3백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인구 6백 40만의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 2만3천달러로 이미 식민지 모국 영국을 능가하였다. 1996년 한해 교역량은 3천7백60억달러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며 하루외환 거래량은 6백38억달러로 세계 5위의 외환시장이다. 그 외에도 홍콩은 국가경쟁력 세계 3위, 경제자유도 세계 1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1위 등에 올라와 있다.

홍콩의 번영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반환 후 홍콩의 장래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번영의 요인들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에 따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는 계속하여 황금 알을 낳거나 아니면 죽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번영에 대한 요인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영국 정부의 "자유무역정책"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정부규제의 최소화, 낮고 동등한 세율 등을 지적한다. 둘째는 주로 중국 측의 시각으로 홍콩의 번영은 1970년대 말 이후 진행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어떠한 시각에서이든 정경분리의 원칙과 경제행위의 자율성이 홍콩의 번영을 가져 왔다면 홍콩의 미래에 대한 잣대도 여기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중앙 집중과 지방자치, 사회주의적 관료주의와 자본주의적 자유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은 소위 일국양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반반을 이루고 있는 만큼 더 두고 볼 일이다

3. 홍콩반환의 역사적 배경

어쨌든 중국은 홍콩반환을 위해 150여년을 기

다려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중국인의 만만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세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제국주의의 침략의 반(半)식민지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약한 청조의 몰락이 결국 40년 가까운 오랜기간의 분열과 내전으로 이어지면서 주권회복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1945년까지 홍콩과 같은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14개 조약항이 있었고 그 중심부는 중국 정부의 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외국의 통치를 받는 치외법권지대가 존재하였다. 내전의 종결과 더불어 이들 조약항은 모두 회수되었으나 홍콩은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나서 대만, 마카오 등과 함께 홍콩의 회복은 중국통일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몇 가지 이유에서 홍콩 반환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미·소 양국과 적대관계에 있음으로 하여 고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무리한 홍콩반환의 요구는 강대국들과의 외교적 대결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홍콩은 당시부터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중간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무리한 반환에 의한 전진기지를 실질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상황 하에서 홍콩의 귀속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였고, 따라서 거기에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8년 권력을 장악한 덩소평은 실용주의 노선을 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였다. 성공적인 경제 개혁을 위해서 자

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홍콩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은 더욱 커졌고, 따라서 중국은 홍콩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 홍콩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중하였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원래 국제법 원칙에 따라 반환기간이 정해진 신계의 반환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홍콩 전체의 반환에 동의하게 되었다. 홍콩의 주권 반환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발전에 있지만 대만 통일을 비롯한 중국의 미래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이었던 것이다.

1982년 9월 영국 대처수상의 방문을 기점으로 2년 동안 영국과 중국 사이에 22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1984년 9월 양국간에 「홍콩문제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공동선언에 의해 홍콩에게는 향후 50년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있어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다만 중국은 외교·군사·국방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원칙들은 1990년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제정된 「홍콩 행정구역 기본법」(이하 기본법)에도 반영되었다. 즉 주권 반환 이후 고도자치(高度自治), 홍콩인에 의한 통치(港人港治) 그리고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4. 일국양제의 성격과 한계

그렇지만 홍콩반환의 핵심 원칙으로서 일국양제는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자유와 개방이라고 하는 홍콩의 고유한 특징이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우선 일국양제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적어도 경제적으로 홍콩과 중국은 이미 상이한 2체제가 아닌 자본주의를 공통기반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홍콩과 중국은 상호 제1의 수출시장이며 투자대상이다. 1996년 말 현재 홍콩의 수출 30%, 수입 35%가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국 투자는 975억 달러로 중국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홍콩기업의 노동집약형 기업들은 대부분 광동성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광동성에는 400여만명이 홍콩자본에 고용되어 있다.

중국의 (관료)자본도 이미 홍콩에 깊숙히 침투하였다. 반환 당시에 홍콩내 중국계 기업은 1천 8백여개, 비공식 기업까지 합치면 7천여 개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홍콩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홍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왔다.

일국양제에 있어서 더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이다. 다시말해 중국의 일당체제와 홍콩의 자유주의적 전통간의 갈등 가능성이다. 최근에는 홍콩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1995년 9월에 정권 60명의 입법국(입법국)선거에서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전체의석 18석 가운데 17석이 반(反)중국적인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것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기본법」에서 중국 정부는 직선에 의한 입법국 위원수를 제한하고 자치구의 책임자 즉 행정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스스로 보유함으로써 홍콩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을 유지하였다. 중국은 반환 전에

이미 임기 4년의 입법국을 해체시키고 대신 친중국적인 인물들로 구성된 임시 입법회(臨時立法會)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임시 입법회는 중국의 입장에 상응하는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를테면 민주세력들과 서방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 개최를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바꾸고 홍콩단체와 외국 단체와의 정치적 연대를 금지하는 사회단체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반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 입법국에서 통과된 법률들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추구하고 있다. 거기에는 근로자 집단 교섭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조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노조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등 노동관련 법규들이 해당되고 있다. 중국측의 시각에서 이러한 법률들이 과거에 홍콩인들에게 거절되었다가 반환에 즈음하여 줄속으로 처리된 만큼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임시 입법회는 글자 그대로 임시적으로 존재하며 동건화(董建華) 초대 행정장관도 98년 상반기에 민주선거를 실시하기로 공약하였다. 1990년의 「기본법」에 따르면 반환 후에 전체 60명인 입법회는 직선 20석, 직능 30석, 선거인 단선출 10석으로 구성되며, 2003년부터는 직선과 직능을 각각 30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입법국 선거에서 민주세력들이 내년 입법회 직선에서 다시 등장할 것인가는 매우 의심스러운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미 한정된 소수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이러한 비민주적 조치들에 대해서 홍콩인들이나 민주세력들이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1991년 9월 입법국의원 일부에 대한 최초의 직선제 도입 등 민주화 노력은 영국에 의해서 의

도적으로 추진 되었을 뿐이었다. 실제 최근까지 홍콩인들은 시위나 집회에 있어서 사전 허가제, 외국단체와의 정치적 연대의 금지 등으로 정치적으로 거의 배제되어 있었다. 또한 그에 대해서 거의 저항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그리 높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행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은 중국이 임명하는 홍콩내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800명의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임명한다. 동건화씨의 경우 절대다수가 친중국계인 150명의 홍콩 특별행정국주비위(籌備委)가 선출하는 400명의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의 임명을 받는 절차를 밟았다.

재정에 있어서 홍콩은 독립된 재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중앙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못박아 두고 있다. 그러나 비록 자발적인 기부형태를 띠기는 하겠으나 반중시위 등 돌발적인 사태로 현재 6천명에 해당하는 홍콩 주둔군의 수를 늘리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고 만성적인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중앙 정부를 지원해야 할 지도 모른다.

물론 일국양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으로도 노골적으로 억압적인 정책을 쓰기란 곤란하다. 천안문사건을 비롯하여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은 홍콩에 많은 지원세력들을 갖고 있었다. 홍콩은 또한 몇몇 반체제 인사들에게 망명처를 제공하였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지만 주권반환 이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불법 연행이나 대대적인 추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비록 민주세력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기는 하나 노골적인

탄압은 자제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홍콩의 자치문제는 1999년 반환될 마카오 그리고 특히 대만과의 통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홍콩인에 의한 통치"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절제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국의 일차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을 결합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상당 부분 판철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환 후에도 홍콩의 주식은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어떤 갈등도 제기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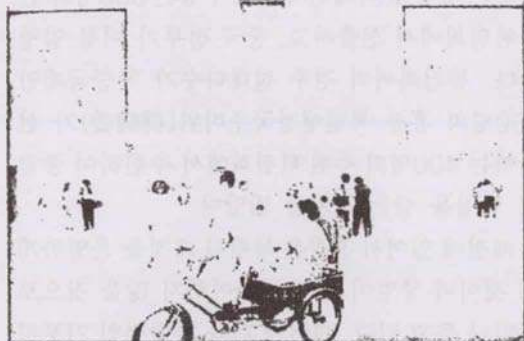
5. 새로운 문제들

다만 열렬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도 홍콩인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과 함께 무엇보다 과거 홍콩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identity)과 사회적 결속력의 약화로 요약될 수 있다. 홍콩인들은 비록 정치적으로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만 경제적 자유와 개방의 환경에서 번영을 구가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전반의 절대적 생활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계층간, 인종간의 갈등이 억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홍콩을 떠받치고 있던 이념적 요소들은 새로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영국의 통치 하에서 실제 주인과 객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제 중국의 주권 하에서 홍콩의 주인은 바로 중국제이다. 이미 중국제와 비중국제간의 갈등은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중국인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의식해서 기본법은 입법의원 가운데 20%는 외국 국적을 가진 홍콩 거주자에게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본토인에 대한 홍콩인들의 배타적인 정서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반환 이후 많은 중국인들



< 천안문광장에 세워진 기념 아치 >

없다. 중국은 이제까지 현재의 제도들을 기본적으로 유지시키고, 대신 그 역할 담당자들을 친중국계로 채우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홍콩의 통치와 관련하여 등소평은 "1997년 이후 홍콩을 관리하는 사람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가 애국자여야 한다는 것이다."고 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 홍콩의 통치자는 홍콩과 중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초대 행정장관 둥건하씨는 "아시아적 가치는 질서를 좋아하고 지역공동체의 욕구가 개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것을 안다는데 있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권위주의적 가치의 신봉자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의 반환은 정치·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

이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위해 홍콩에 밀려들고 있다. 임시 입법회는 반환 이후 이민자수를 어린이 45명을 포함하여 1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밀입국자는 이미 15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부모가 홍콩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식들의 이민까지 제한하고, 밀입국된 이들의 강제추방을 단행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홍콩의 인구는 현재보다 2백만명이 늘어나 8백 50만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토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빈민계층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6. 홍콩과 한국

한국이 처음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형성할 때 홍콩은 중요한 간접무역경로 역할을 하였다. 1992년 8월 한·중국교 정상화로 직접적인 관

계가 설정됨에 따라 그 역할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여전히 아시아의 경제, 무역, 금융의 중요한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고, 반환 이후에도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 홍콩의 중요성은 계속 남아있다.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해 온 한국은 홍콩과도 긍정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홍콩반환은 한반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일국양제는 상이한 체제간의 통합에 중요한 실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패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의 대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심각한 체제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통일과정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의 위기 상황 하에서도 홍콩반환에서 한반도는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수의 탈북자



< 홍콩에 입성하는 인민 해방군 >

들이 이제까지 홍콩을 경유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감으로써 홍콩이 탈북경로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중국에 떠다니고 있는 1천5백여명의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콩반환은 반가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홍콩반환은 중화 민족주의를 부채질하면서 장기적으로 주변국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미 홍콩반환을 계기로 중국인들 사이에 중화민족주의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는 "홍콩의 주권회복은 구시대가 끝나고 중화문명의 새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언급에도 반영되고 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조차 2030년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발표하

였다.

중국은 홍콩반환의 여세를 몰아, 대만과 동남아의 화교경제를 포괄하는 대중화경제권을 형성할 태세이다. 나아가 과거 아시아에 있어서 중주권을 행사해 온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경제력을 정치영향력의 확대로 이어갈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위협론」이 심심치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삶의 질이다.

더욱이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선도 날로 허물어져가고 있다. 많은 문제들은 한 나라에 의해 처리되기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 반환된 홍콩은 중국에 민족적 자부심과 함께 홍콩 주민들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중문**

대위 이동혁

탈냉전기 동북아 패권각축과 우리의 대응

허 영 제
증위/교육사령부 정훈처



I. 서론

탈냉전기의 국제질서를 많은 학자들은 '新 국제질서 (New international Order)' 라고 부르지만, 과연 무엇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신 국제질서라는 것이 동서 군사대결과 이태올로기의 경쟁이 없는 탈냉전기의 질서라는 데에는 일정한 동의가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 이 질서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양극 체제로의 회귀, 다극체제, 삼극을 지닌 경제 블록화, 단극패

권 질서 및 다원주의 상호 의존의 심화 등이 그런 것이다.¹⁾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현재 재편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일면만을 부각시켜 모델링한 것으로서 포괄적인 설명력은 지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제질서는 구질서와 신질서를 함께 내포한 과도기적 상황이며 그 전망은 결코 확실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탈냉전기의 '불확실성'이 가장 첨예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지역이다. 탈냉전기를 특징 짓던 군사적 동맹 중심의 '패가름'식 대결구도가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축의 소멸로 인하여 깨어지고, 냉전질서 속에서 나름대로 구축되어 있던 질서가 미국, 중국,

1) 냉전 이후 등장한 이러한 '신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은 J.S Nye 가 1992년 「Foreign Affairs」誌에 발표한 "What New World Order?"에 따른 것으로 그는 이 글에 통하여 미국이 탈 냉전기 유일한 패권국(Hogemon)으로 남게 되었음과 일본, 중국, Eu 등의 도전을 전제로 '발생 가능한' 다섯가지의 신 질서를 상정해 보고 있다.

일본이라는 트라이 앵글 모양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으며, 그 전망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탈냉전기 동북아의 패권각축을 고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특히 전후 패전국으로서 미국의 그늘 아래 숨죽이고 있던 일본이, 최근 군사적·정치적으로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과 중국 및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양상을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결론에서는 이와 같이 역동적인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응자세는 어떤 것인지 생 각해 보기로 한다.

II. 본론 : 탈냉전기의 동북아

냉전시기 동북아 지역의 전략질서는 전세계적 구조와 지역적 구조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우선 2차 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하는 동서진영 간의 경쟁과 대결이라는 전세계적 요소가 이 지역의 전략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즉, 이 지역의 전략질서는 기본적으로 동서 간의 충돌과 경쟁에 맞게 짜여져 나름의 안정성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 지역내의 모든 갈등은 초강대국의 개입을 가져 올 가능성을 수반했고, 이러한 초강대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는 이 지역의 갈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동북아의 냉전질서는 유럽과는 다른 여러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특수성

은 NATO와 WTO로 대표되던 유럽의 집단 안보체제²⁾와는 달리, 이 지역의 전략구조가 쌍무적 안보관계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일본, 한국과의 쌍무적 안보조약을 유지했고, 소련은 북한,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서방진영에 대항했다.

냉전 시기 동북아는 동서대결이라는 전세계적 갈등구조 외에, 지역규모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요소도 내포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중소분쟁과 그에 따른 미·소·중 3국간의 이른바 전략적 삼각관계 (strategic triangle)는 동북아 지역질서를 유럽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그 외에도 남북한의 대결, 중국과 대만의 대치, 그리고 영토문제를 둘러싼 소련과 일본간의 갈등과 경제 등이 동북아 주요 긴장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불어 닥친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1989년 동유럽 공산국가의 몰락과 1991년 소연방 해체로까지 이어지면서, 마침내 2차 대전 이후 40년간이나 유지되어 온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국제질서의 구조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제2차 전략 무기감축협정 (START)에 서명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축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을 유지시키기 위한 후견인 역할까지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동북아에도 영향을 미쳐,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한국의 대(對)러·대(對)중 수교, 그리고 러중 관계 개

2) 집단 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이란 집단 내의 모든 회원국들이 대내외적으로 일어나는 국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상호 간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일련의 국가 간의 관계를 제도화시킨 것이다. 집단 안보는 대립적인 국가까지도 집단 내에 포괄하여 안전에 대한 약속을 '집단 적인 힘'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세계균형'이나 '동맹'과는 구별된다.

선 등의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이라는 독립 변수가 동북아 평화정착으로 직접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냉전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군축이 실현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이유는 첫째 소련의 몰락에 따라 미국이 이 지역에 있어서 더 이상 패권국³⁾으로 남기 어려운 '힘의 공백' 현상에 기인한 일·중 패권 각축 양상이 보여지고 있으며 둘째, 냉전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상정하는 '적'은 여전히 존재하거나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셋째, 북한이 권력세습 이후에도 예측 불가능한 정책결정을 계속하고 있어 그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다는 사실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의 중요한 목적은 이와 같은 탈냉전기 동북아 질서를 전망하는데 있다. 따라서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동북아의 전반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여, 이제부터는 냉전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먼저 분석해 보고, 이어서 홍콩반환 이후 더욱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의 성장과 도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아시아 맹주」를 꿈꾸는 일본

다음 달 작성 완료될 극비 작전계획 「코드명 5052」, 즉 미·일간 '신 방위협력지침'은 전후 일본 방위정책을 크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는 「코드명

5052」에서의 일본자위대의 행동반경을 종전의 「일본침공시」에서 「일본주변지역 비상사태시」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지역」은 직접적으로는 한반도를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 78년 구 방위협력지침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코드명 5051」와 크게 대비된다는 점에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전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5051」이 냉전 당시 구소련의 일본침공에 대처한 군사작전 계획이라면 「5052」는 냉전종식 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분쟁양상과 자위대의 역할증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패권주의'의 시작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일본주변 지역 비상사태시 경제 제재, 대상국 선박 입검, 분쟁지역에서 자국민 철수, 공해상에서 기뢰 제거, 미국에 대한 물자보급 및 수송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의가 아니더라도 분쟁에 깊숙이 개입, 일본이 안전을 위협받을 때 교전까지 이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과거 일본 방위정책의 대원칙이었던 '전수(專守)방위'가 막을 내리고 지역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위정책의 일대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난 92년 유엔 평화유지군(PKF)의 해외 파병을 명시한 국제평화협력법을 제정한 데 이어 94년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의 긴

3) 최근 R. keohane을 비롯한 국제 정치학자들의 패권(Hegemony)에 대한 논의는 군사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이란 "일국이 독자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그것을 강요 및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구비한 상태"라는 통상적인 정의는 군사적 측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군사적 패권'이란 자국에 대한 침략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지만 질서 변화에 대하여 가능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사강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급사태시 자위대 수송기를 동원, 자국민수송을 가능토록 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 사태를 명분으로 패전 후 처음 자위대 수송기를 태국에 급파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 95년 제정된 신방위계획대강(大綱)과 96년 미일공동안보선언은 일본의 역내안보 질서와 국제공헌에의 적극 참여를 구체화했다. 일본방위정책의 이같은 흐름은 냉전종식 이후 힘의 공백상태에 빠져있던 아태(亞太) 질서의 새맹주(盟主)로 등장하겠다는 구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구심은 새 방위정책의 버팀목인 일본 자위대의 막강한 전력에서 비롯된다.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는 해상 자위대는 일본 군사 대국화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활동영역은 70년대 설정한 1천해리 해상교통로 확보선을 넘어 신방위대강 이후 2천해리에 이르는 호주와 말라카해협까지 확장되고 있다. 일본 해군력의 상징은 급세기 최고의 전함으로 불리는 7천2백톤급의 이지스함인데, 현재 3척이 실전 배치됐으며 1척은 취역 준비중이다.⁴⁾ 미일 안보 동맹에 의해 보유가 금지된 항공모함도 교묘한 형태로 건조됐다. 일본은 9천t급 대형수송함 2척을 건조, 이중 1척이 내년에 취역할 예정이다. 유사시 비행 갑판만 깔면 경항공모함으로 즉각 개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지스함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함모기동 함대를 갖출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공 자위대도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본이 자체 생산한 세계 최강의 전투폭격

기인 F15J와 F4EJ는 미국이 개발한 F15C/D와 F4E에 비해 성능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중조기경보기로는 4백80km 공역의 적 항공기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E2C 기종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능이 보다 뛰어난 E767기종 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미국이 방위부담의 일부를 일본에 떠넘겨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늘어나고, 특히 일본이 유사시 미군의 전투행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지 제공과 재정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21세기 동북아 안보에서 미국과 일본의 부분적인 '임무 교대'를 의미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이 지침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헌법 9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를 놓고 국내적인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가 급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로 대표되는 이른바 신보수주의 세력의 오랜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장의 헌법 논쟁에서 어떤 결말이 나오는데에 관계없이 '아시아의 맹주'를 꿈꾸는 '군사적인 일본'은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미·일간의 신방위협력지침 작성의 결과가 '군사적 일본'의 출범을 앞당기는 것이라면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각축과 일본과 한국과의 긴장관계 고조는 당연히 전망할 수 있는 일이다. 동북아의 역사적·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도 이 지역의 안정

4) 이지스함은 탑재된 첨단전자방어체계로 적폭격기나 미사일등 1백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추적하며 사거리 1백km의 함대공 미사일로 12개의 목표를 일시에 격추시킬 수 있다. 현재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뿐인데, 일본은 4척의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에 신보수주의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일본이 미국의 대역(代役)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정방위협력지침의 대상국 중 하나인 중국은 이미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냉전 종식 후 '거대 중국'건설을 목표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중국의 움직임과 러·중 협력이라는 돌출 변수에 대해 살펴보자.

2. 중국의 군비증강과 러중협력

지난해 3월 李鵬(이봉)총리가 전국민 인민대표 대회에서 제시한 2010년의 장기목표를 보면 '거대중국'의 모습이 실감난다. 이총리는 "국민총생산(GNP)을 2000년의 두배로 늘리는 등 종합 국력과 인민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중화민족 자립자강의 용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같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0년부터 국방비를 연평균 14%씩 늘리고 있으며 대부분 군현대화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전략 핵무기의 개발은 물론 러시아로부터 1백20억달러에 달하는 수호기 27과 30를 도입하는 등 공군전력을 최첨단화하고 특히 21세기 초 항공모함 등 원양함대를 보유, 해군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데 당정군(黨政軍)이 합의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은 눈부신 경제성장에서 비롯

된다. 지난 92년 한중 수교 이후 5년간 중국은 내리 두자리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 등장했다. 이같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21세기에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의 건설한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⁵⁾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대중화권(大中華圈)

건설을 목표로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및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이미 이 지역의 패권국으로 군림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은 이 지역에 어느 일국이 패권을 지니는 것을 인정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는 90년대 이후 매년 평균 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해공군력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하는 원양함대의 창설 추진, 9기의 군사위성 운용과 2백대의 SU27 전폭기 도입 및 9백기의 SA300 지대공 미사일 보유 등 러시아와 프랑스 등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최첨단 무기를 수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경연안방어에서 벗어나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사군도 등 남중국해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무역급증에 따른 해상 수송로 보호 등 작전지역을 아시아는 물론 태평양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속된 홍콩도 남중국해 일원에서 작전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안고 있다.

중국의 대미정책은 '장기도전 전략'이다. 특히 미일이 공동으로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것

5)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21세기 중국은 자연스럽게 군사·정치대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보편적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연평균 8~10%의 평균성장률을 보일 경우 중국 경제는 2010년에 일본을,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2050년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백83조 달러에 달해 미국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으로 보고 있기에,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배후 안정화 작업을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96년부터 정상회담 등을 통한 관계개선, 국경병력 감축 등 전략동맹을 구축하고 전통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던 인도를 지난 해 강택민(江澤民) 국가 주석이 방문, 협력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도 대미 견제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4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양국이 세계의 다극화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을 증진키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부분이다.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어느 나라도 패권정치를 행사하지 않고 국제문제를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러중이 말하는 다극화라는 것은 물론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중국은 소연방 붕괴 이후 미국의 세계지배에 우려를 갖고 미국의 그 같은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에 대응키 위해선 국제질서의 다극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독점 움직임에 우려를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비난해 왔다. 중국이 최근 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나온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강화가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이 필요해 진 것이다.

Ⅲ. 결론 : 동북아의 역동성과 우리의 대응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악수, 일본의 다각 외교 등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또한 이 글을 통해 살펴 본 '힘의 공백'을 틈 탄 중일간의 패권각축 분위기는 동북아 평화유지에 더욱 그림자를 지우는 현상이다. 김일성 사후 남북한 문제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윌리엄 코언 미국방 장관은 클린턴 집권 2기의 방위전략과 전력구조 대강을 담은 '4개년 방위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21세기 안보 환경, 위협평가, 군사 전략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전력규모의 하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코언 보고서는 93년 이후 클린턴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탈냉전 시대의 군사력축소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될 수 있다. 85년 4천억 달러에 달하던 미국 국방비가 97년 2천5백억 달러로 감소했고 2001년 까지 이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국방 예산감소와 더불어 미국의 전력 역시 크게 축소됐다. 육군은 18개 사단에서 10개사단으로, 해군은 15개항공모함 전투단에서 11개항공모함 전투단으로, 공군은 24개 비행전투단에서 12개로 각각 감축된 바 있다. 이는 냉전전력과 대비할 때 35% 정도의 감소를 의미 한다.

이 보고서는 클린턴 집권 1기의 방위구상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92년에 발간된 랜드 연구소의 한 보고서에서도 지적돼 있듯이 현재의 전력으로는 '원-

원'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쟁주역의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력을 증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중국의 잠재적 도전국으로 암시한 대목도 문제시 된다. 과거 냉전시 소련이라는 주적(主適) 때문에 국방비 증가가 용이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논리에서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는 '신방위 협력지침'을 통해 동북아의 주역경찰로 성장시키고, 중국은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중국의 반발을 유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지역 패권 야욕을 가속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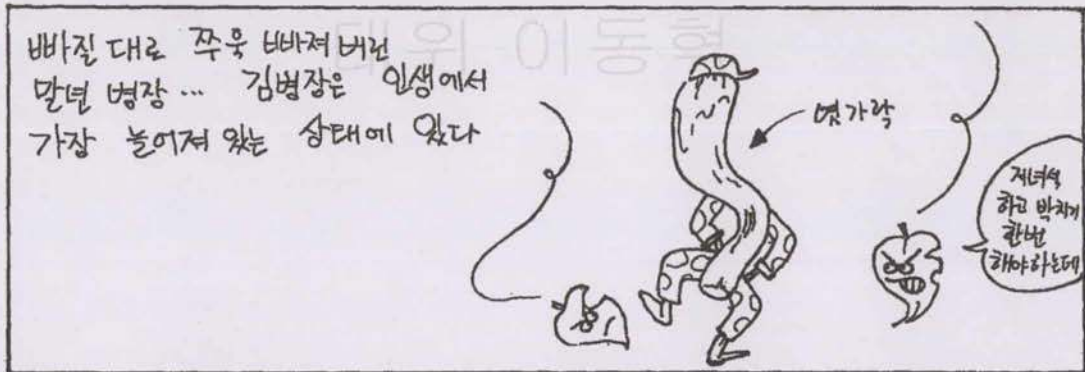
미 방부가 '원-원' 전략의 지속적 고수를 공포하면서 북한을 하나의 중요한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 내의 정치와 외교정책의 가변성, 동북아 전진배치 전력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성, 그리고 방위비 분담 압력 등을 감안할 때 아직도 불확실성의 여백이 남아 있다 하겠다. 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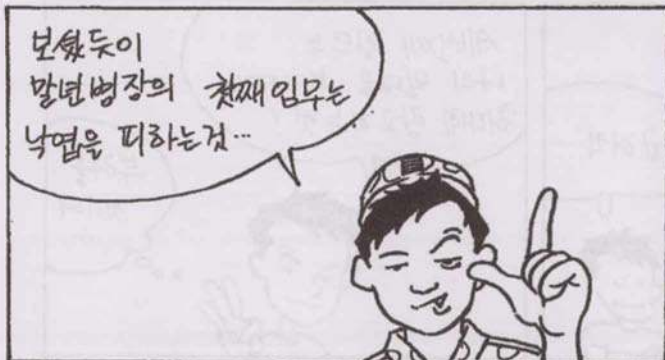
미국의 전략구상에 관계없이 자주 국방의 기틀을 성실히 다져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중일양국은 각자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까지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와 기타 지역국가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군사력 증강이 양국의 본격적인 군비경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미국과 구소련을 양축으로 하는 '동맹질서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중일 양국의 군사관계를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지난 94년 한승주 전 외무장관이 「아시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제안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기구(NEASD)」 등의 다자간 안보 협력 기구들이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때, 이러한 '협력적 안보'의 실천은 가능해 질 것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평화적인 남북통일과 통일 후를 위한 자주적인 국방력의 완성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regime)'의 창설에도 앞장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동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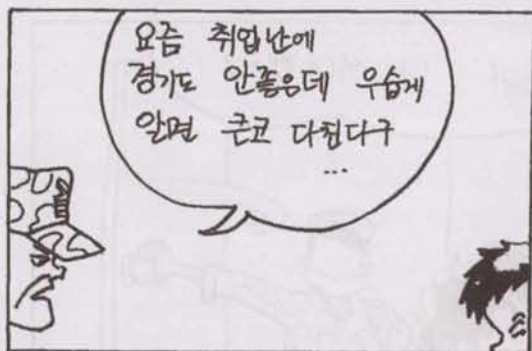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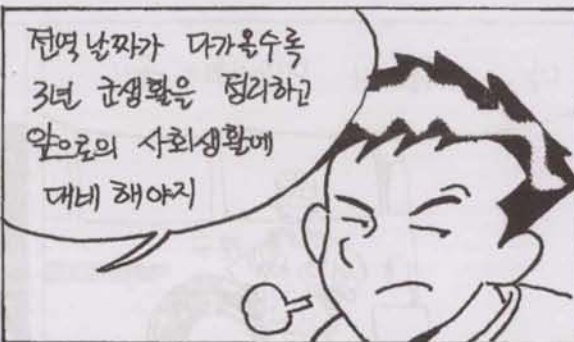
말년의 임무 (?)

고석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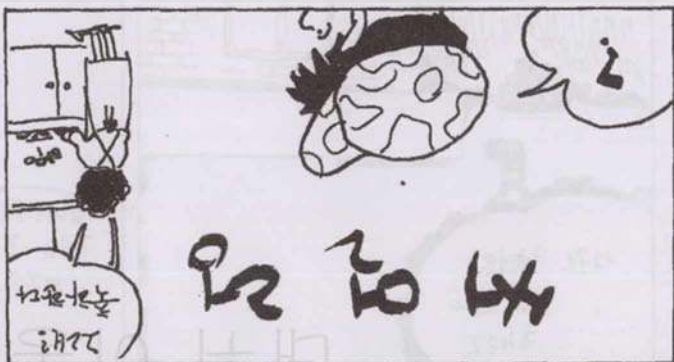








어디가 ... 100% ... 100%



어디로 ...



어디 ...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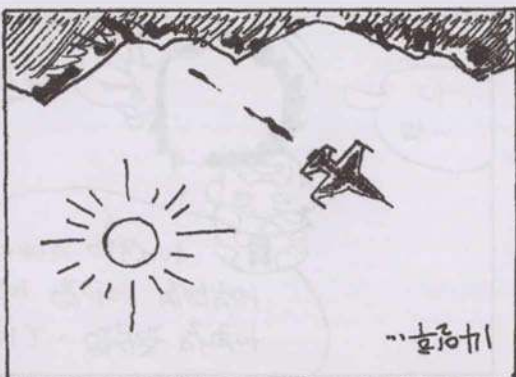
어디로 ...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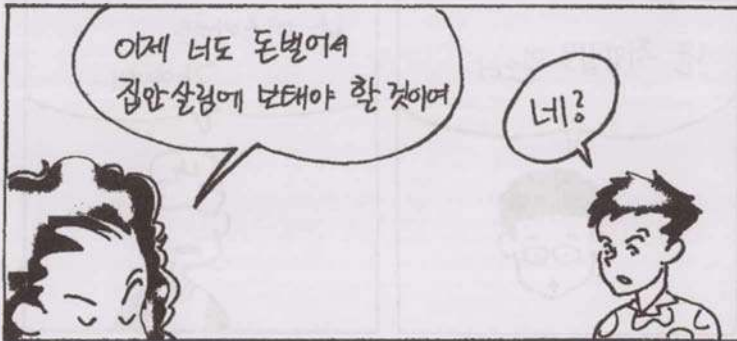
어디로 ...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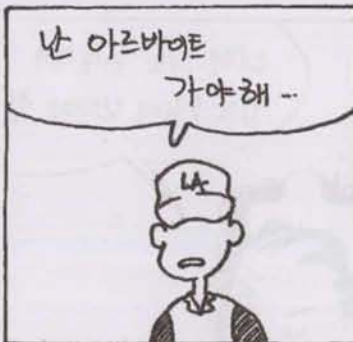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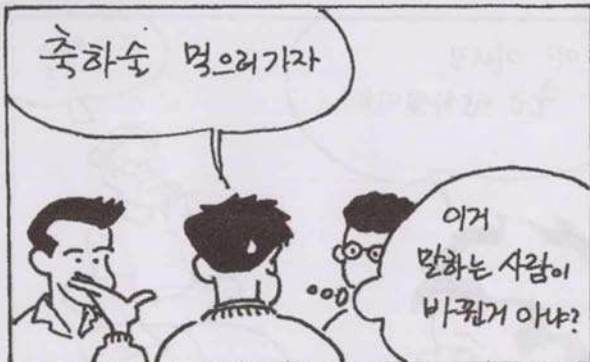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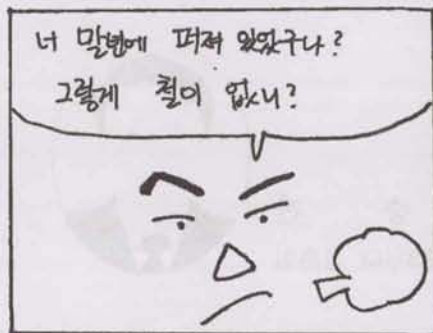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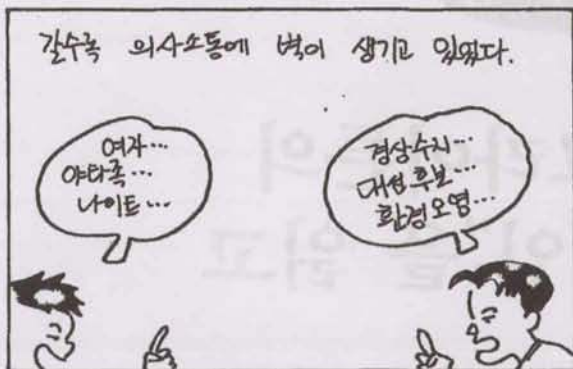
어디 ... 100% ... 100%



어디로 ... 100% ... 100%







마이클 크라이튼의 “에어프레임”을 읽고

홍 승 진

중위/제3173부대 정훈실



지난 8월 6일 0시 55분 대한항공 보잉 747-300기가 미국령 괌의 아가냐 공항에 착륙 도중 추락, 탑승객 225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에 대하여는 기체 이상, 관제실수, 조종사의 미숙 등 여러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으나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시의 적절하게도 항공기 사고를 소재로 하고 있는 히트작가 마이클 크라이튼의 최신소설 “에어프레임(Air Frame)”이 국내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목이 Air “plane”이 아니고 Air “Frame”이다. 작가는 제목에서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 기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항공사고에서 비행기 제작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 이 소설은 오늘날 버스만큼이나 대중화·보편화 된 비행기의 안전사고와 대기업의 권력압박, 황색 저널리즘의 행태 등이 다중으로 얽

힌 매력적인 추리물이다.

어느 월요일 새벽 홍콩 국적의 민간항공기가 미국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다. 미연방항공국(FAA)에 보고된 최초상황은 「사고(Accident)」도 아닌 「사건(Incident)」.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연방 항공국 요원은 사태가 조종사가 보고 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음을 직감한다. 사망자 3명, 부상자 56명의 참사를 빚은 이 비행기는 수령이 겨우 5년 밖에 안된 미국 항공사 노턴이 제작한 N-22 와이드바디 여객기였던 것.

항공기 제작사인 노턴항공사는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사고는 엔진폭발이나 공중 폭발, 착륙실패 등 보통 볼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 기체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졌다가 수직으로 강하하는 “들고래 쇼”를 거듭해서 기내에 있는

승객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여객기는 상승/하강시 3내지 5도의 비행각도로 비행하는데 무려 23도 이상 급강하/급상승이 이루어졌던 것. 기내의 승객들이 견뎌낼 리가 없다.

여기에 주인공이 등장한다. 크라이튼 작품 중에는 드문 여자주인공, 케이시 싱글턴은 노턴항공사의 품질보증부 부사장, 사고 조사팀을 이끌어 사고의 원인을 찾는 임무를 맡는다. 때마침 노턴항공이 중국과의 대규모 항공기 판매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기체의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판매계약의 전망은 어두워질 것은 당연한 일. 회사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린 것이다. 중국과의 계약체결이 임박한 시점이라 단 1주일 내에 사고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주요 부품제작 기술을 한국으로 빼돌릴 것이라는 루머가 나와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노조원들이 동요하고, 홍콩항공회사에서는 무엇인가를 계속 감추려고 한다. 석연찮은 조사관들, 산업 스파이, 그리고 뭔가 쇼킹한 뉴스거리를 찾는 황색 저널리즘에 몰든 뉴스 프로듀서 등이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몰아간다. 여기에 사고당시 우연히 탑승객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기체 내부의 비디오가 방송국으로 흘러 들어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다. 심지어 유명한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라인'은 토요일 특집으로 사고 기종을 "날아다니는 판"으로 매장시키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사고원인은 엉뚱한 곳에서 밝혀지지만 문제는 노턴 항공사내의 경영권 다툼이 이번 사건을 이용한 것. 결국 우리의 주인공 케이시 싱글턴은 마지막 날인 토요일, 대반전을 시도하는데, 마지막 주인공의 역전승이 흥미

롭다.

작가는 가상의 항공기 제작사로 "노턴"항공사를 설정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시장은 동구권을 제외하면 크게 보잉, 맥도넬 더글러스, 에어버스 3개사가 과점(寡占)하고 있다. 96년 말 현재 시장 점유율은 보잉 6, MD 1, 에어버스가 3 정도라고 한다. 삼성에서 인수설이 나돌았던 포커 항공사나 L-1011 트라이스타라는 3발의 여객기를 마지막으로 민간여객기 생산에서 손을 떼록히드의 몰락(물론 민수용 시장에 국한된 이야기다. 록히드-마틴사는 군용항공기의 선두주자이다.)은, 최근 발표된 보잉과 MD의 합병 소식과 더불어 이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잘 대변하고 있다. 저자는 노턴과 에어버스의 시장 쟁탈전을 상징하고, EU의 불공정 행위를 꼬집음으로써 자신이 미국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다.

작가는 요즘 즐겨 다뤄지는 화두인 "언론에 대한 불신"도 빼놓지 않는다. 그는 성급하고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우수한 여객기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가 있는 예로 DC-10의 경우를 거론한다.

"시카고를 떠나 로스엔젤레스로 가던 아메리칸 항공편이었어요. 1979년 5월... (중략)...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왼쪽 날개엔진이 떨어져... 탑승객 전원이 목숨을 잃었어요...(중략)...언론은 흥분해서 DC - 10을 "날개 달린 판"이라고 불렀죠... 더글러스사는 그 뒤 DC-10을 한 대도 못 팔았죠."(P 219)

물론 한 대도 못팔았다는 것은 과장이지만, 맥도넬 더글러스는 서둘러 MD-11이라는 개량형을 내놓아야 했다. 제목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제작사는 "기체"만을 만들어서 납품할 뿐이

다. 완성된 기체에 플랫폼 휘트니나, GE, 몰스 로이스 엔진 중 어느 것을 달던 그것은 항공운항사의 자유이며, 이로 인한 사고나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 항공기(기체) 제작사의 책임 영역 밖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내용일 수 있다. 1989년 7월 27일, 대한항공의 DC-10기가 서울을 떠나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 안개로 시정이 불량한 가운데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다가 폭발사고를 일으켜 추락, 82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빚었다. 이 사고는 기장의 무리한 착륙시도로 인한 인재(人災)였지만, DC-10은 역시 '어딘가 좀 점잖은 여객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항공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DC-10이 추락했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항공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DC-10기종을 매각해 버렸다.

또한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현장에서 미당국이 취한 현장통제 및 구호조치의 합리성이다. 그들은 언론사의 취재경쟁이 가져 올 구조지연이나 진상파악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에 익숙해서인지 합리적인 범위에서 현장접근을 통제하고 중상자-어린이-여자 순으로 차근 차근 구조작업을 꼼꼼히 실시했다. 93년에 일어난 목포 아시아나 항공 보잉 737기 추락사고나 95년 6월 29일(공군사후 94기 임관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무분별한 취재경쟁으로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여과 없이 안방까지 배달된 일이나 전문 구조지식 없이 항공기 사고자를 해군 전투헬기로 달아올리는 상식 밖의 구조방법으로 경상자를 중상자로

만드는 그런 식의 아마추어적인 사고처리방법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원시적인 현실과는 너무나 비교되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번 소설 에어프레임은 「쥬라기 공원」으로 널리 알려진 크라이튼이 95년 「잃어버린 세계」 집필 이후 1년여 만에 출간한 이 소설은 지난해 12월 중순 발간되자마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과 잡지를 통해 전세계 6백여개 신문사에 베스트셀러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 전문지 「버블리셔스 위클리」(<http://www.bookwire.com>)는 울들어 소설분야 1위로 줄곧 이 작품을 꼽고 있다. 저자는 발간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정교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기 제조업과 진실을 밝힐 수도 또 조작할 수도 있는 언론에 관한 이야기를 한데 엮어보고 싶다는 것이 집필의도였다.』고 밝혔다.

이 소설의 출간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었는데, 96년 발생한 미국 TWA 보잉 747여객기 추락사고로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일반의 우려가 절정에 이른 시점에서 항공기의 구조적 결함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미스터리를 다루고 있어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것이다. 재빠르게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 그들이 읽지 않고는 못배길 소설을 써내는 마이클 크라이튼의 민첩함은 경탄할 만하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대한항공기 추락사고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작품이 매년 최고의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화제가 되는 것은 그때 그때 최고의 이슈가 되는 것을 그대로 작품소재로 하는데다가 이를 재미있는 내용으로 풀어 나가는 작가적인 역량

에 고고학과 의학을 전공한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포장해 내는 데 있다. 그의 처녀작 「안드로메다스트레인」(1969)은 인간이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당시 우주의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시기가 비슷했고, 또 미국에서 일본 경제력이 나올 때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비판한 「떠오르는 태양」(1993)를 내놓았다. 유전자 공학이 논란거리로 떠올랐을 때는 「유라기공원」(1993)을 선보였다. 「폭로」(1994)도 미국 연방대법관 인준을 앞둔 토마스 판사의 성희롱 문제가 핫이슈가 됐을 때 내놓은 작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소설 어느 한구석에도 출판시기를 맞추느라 서둘러 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품을 위한 치밀하고 꼼꼼한 정보수집 능력은 그의 작품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진정한 원동력일 것이다. 사실 이 소설은 단 일주일간에 걸쳐 시간 순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건 전개와 마지막의 반전이 매력적이지만,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치고는 그다지 엄청난 극적 긴장감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 기업체 내부의 암투를 주인공이 풀어나간다는 기본 구조를 따르고 있는 점에서는 전작 「떠오르는 태양」(Rising Sun)과 비슷하고, 주인공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반전하여 승리한다는 점에서는 「폭로(Disclosure)」와 유사한 점

이 있다. 한가지 뿌듯한 점은 이제 국제항공시장에서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소설 속에서도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로 항공사고를 다룬 비슷한 작품을 소개 하면 토마스 블랙의 「메이데이(Mayday)」를 들 수 있다. 승객 300명을 태우고 가던 초음속 여객기가 고고도에서 미사일 요격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인데 약간 진부하긴 하지만 꽤 잘된 소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94년에 번역 출간되었다.

덧붙여 국내 번역판을 살펴보면, 역자는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하게 원작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전문용어 사용을 몇 군데 지적하자면, 「Proximity sensor」를 「근접 감지기」로, 「Airworthiness Directive」를 「감항성지시」로 번역한 것은 검증이 필요한 한글 옮김이고 특히 「Compressor Disk」를 「압착 디스크」로 「Off set」를 「부품공여」로 옮긴 것은 전문번역가의 습씨치고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도 영문판 페이지백을 구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공군지 독자는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또한, 최소한 항공 전문용어 정도는 한자를 병기하고 난해한 내용은 역주를 통해 설명 해주는 세심함이 아쉬웠다. **등급**

사람들이 모이는 테마파크의 비밀

김 종 진

상병/방공포병 사령부 통신지원대대



이 책을 읽어 가면서 과연 테마파크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저자는 테마란 이성과 감정, 변하지 않음과 유행, 향수와 유희를 포함한 컨셉이라 했다. 그리고 그러한 컨셉에서 특정의 테마가 생겨나서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했다. 그렇게 창조된 세계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환상적이거나, 꿈에서 그러 보았던, 내지는 상상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세계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가공의 환상적인 세계를 현실의 테마파크로 존재시킨다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환상적인 세계를 현실화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어쩌면 순수한 의도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꿈과 낭만, 그리고 사람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려 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순수한 목적이 상업과 연결되면서 관광자원으로써 충분

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모이는 테마파크의 비밀"은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속에서만 존재했던 세계를 현실화해서 그곳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우리가 어떠한 상상력으로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테마파크의 목적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은 꿈과 낭만의 월트디즈니이다.

따라서 월트디즈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살린 우리만의 테마파크, 그러나 결코 한정되어 있거나 편협되지 않는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설계해 보면 어떨까?

월트디즈니가 테마파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에 저자가 밝힌 세 가지 비결이 있다.

첫째는 교육에 관한 것이다. 교육이라고 하여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교육과는 다르며, 지식을 주입 시킨다든지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것은 아니다. 디즈니랜드에 와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낸다면 무엇인가에 흥분되기도 하고, 흥미를 갖기도 하며 때로는 생각할 수 없는 감동을 받기도 한다. 그러한 자기자신을 접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숨은 능력을 일깨워 주기도 하고 끌어내기도 한다. 저자는 이를 교육이라 생각한다. 월트디즈니는 스토리성이 있는 공간, 세심하게 신경써서 지어 놓은 건물과 매력물, 색깔, 청결한 환경, 순수한 동심을 느끼게 하는 연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정감,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정성스럽게 다루는 것이다. 손님들은 즐기는 규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즐기는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훌륭한 추억거리로 기억할 것이다.

둘째로 애국심은 향수의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커다란 요소이다. 똑같은 디즈니랜드라고 하더라도 올랜도에서 손님들이 자아내는 분위기는 동경디즈니와 유로디즈니와는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다. 손님들의 마음과 공원이 하나가 된 것같은 느낌이어서 동경디즈니와는 상당히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친숙해진 향수라고도 불리는 세계의 지배적인 분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분히 미국인들밖에 이해할 수 없는 자부심이며, 그들의 애국심을 부추기는 궁지가 그리움과 어울어져 자아내는 듯하다. 미

국인들이 좋아하는 기질이 공원에 충만해 있는 것이다. 손님들이 공원과 일체가 되어 발산하는 미국인의 기질은 손님들끼리 연대감이라고 하는 편안함을 부여하고 있다. 디즈니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국가의 신봉자이며 강한 애국자였다.

디즈니랜드에도 이러한 사상은 일관되어 있다. 많은 손님들은 꿈과 이야기의 나라에서 향수를 느끼고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은 '멋진 미국', '우리들의 궁지 드높은 미국'을 무의식적으로 느껴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월트디즈니 자신의 동심이다.

그것은 기관차에 집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월트디즈니가 15세때 캔자스시에서 철도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철도의 세계는 낭만으로 충만한 것으로 6개주를 기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었다. 박람회에서는 미국의 철도 발전을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로서 실물의 큰 열차가 달리는 거대한 무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링컨대통령의 장의 열차는 남북전쟁 시대의 증기 기관차가 검은 커튼이 드리워진 차랑을 천천히 끌고가고 있고, 그 사이를 흑인 남녀 한쌍이 슬픈 모습으로 걸어갈 때 '공화국 찬가'가 조용히 울려 퍼지게 하는 연출이었다. 월트디즈니는 이 링컨 열차가 무대를 지나갈 때 마다 눈물을 머금곤 하였다고 한다.

이와같이 저자가 훌륭한 성공작으로 뽑고 있는 디즈니랜드의 성공비결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문화로 테마파크를 설계해 본다면 어떨까?

첫째로 단순히 상상속의 나라, 꿈과 낭만의 나라가 아니라 그곳에는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를 통해서 살아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법이다. 우리의 전통문화,

문화적 산물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은 흔히 우리의 것을 소홀히 하거나 우리 조상들의 전통문화 그리고 그 속에 살아 있는 혼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외면 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순간이었던 일제시대가 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쉽지 않게, 그러나 어쩔수 없이 우리의 많은 전통문화를 잃어 버렸다. 그리고 일제시대가 끝난 뒤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것들을 되찾기도 전에 전쟁이라는 아수라장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 한다. 물론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것을 지켜온 위대한 선인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그런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훌륭한 선인들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루한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혼을 느낄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지극히 한국적인 곳이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거리에 나무 한 그루, 건물의 한 모퉁이, 거리에서 파는 음식물조차 다분히 한국적인 것이어야 한다. 마치 정월 대보름과 같은 설레임과 하나됨, 내지는 풍성한 가을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됨을 이룩하지 못한 채 분열된 조국을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다. 우리의 손으로 테마파크를 만든다면 갈라진 우리 조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만 된다.

셋째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느낄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갈수 있다고 했다. 결국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곳, 그러니깐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어느 책에선가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으로 큰 인물이 난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의 테마파크는 종교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로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다분히 한국적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세계적이다. 그러니깐 국수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문화를 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결코 내것만 아는 용고집이 아닌 여러 가지로 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테마파크를 만든다면 잃어버린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면서 지극히 한국적이면서 또한 지극히 세계적이어야 하고, 그곳에 모인 이들이 일체된 하나됨을 느낄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분단된 우리의 조국을 하나로 이끌수 있어야 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매개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만의 테마파크가 있다. 그곳은 대둔산에 있으며 달이 유난히 밝아 월명동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나 자신은 그곳에 갈때마다 이곳이 내가 느낄수 있는 최상의 테마파크, 즉 지상천국이라 느낀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가장 이상적인 테마파크가 지상천국이 아닐까? **등문**

만성 질환 환자의 생활 관리



김 성 진
중위/교육사령부 항의전대

1. 치 질

가. 자세 변화

점차 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생활자세 또한 주로 의자에 앉거나 서서 일하는 좌식 내지는 입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생활 자세의 변화로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 같은 질병도 전에 없이 만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치핵도 그런 질병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치핵은 변비 혹은 설사, 항문 주위의 염증, 임신 그리고 출산 때문에 생길 수 있고, 간경변증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선채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는 변화 없는 자세의 직업인과 복부에 힘이 가해지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로 생긴다.

곧게 앉은 자세일 때 옆으로 누워있을 때 보다 직장부위의 정맥압이 3배 정도 높아지므로 항문 주위의 정맥에 피가 몰려 치핵이 생기게 되는 것

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치핵은 운전사, 교사, 사무원과 이·미용사들에게 잘생기고, 엉뚱하게도 배에 힘이 크게 가해지는 성악가, 관악기 연주가 및 골퍼, 스키어, 씨름선수에게도 많이 생기는 직업병적 성격을 띤 질환이다.

나. 항문 청결과 배변의 습관

매일 목욕이나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항문주위를 청결하게 한다. 변비는 주로 수술후 장과 장이 서로 붙어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거나 종양으로 인한 장협착증 등으로 생긴 기질적 변비와 장기능 이상으로 인한 기능적 변비로 구분한다. 기능적변비는 대변이 굳어짐으로써 배변이 고통스러운 이완성 변비가 있으며, 주로 젊은층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대장이 과민성 상태에서 생기는 경련성변비가 있다. 출근이나 등교시간에 쫓겨 배변을 참아 버

리거나 아침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변비를 악화시킨다. 변은 주로 아침식사 후에 흔히 일어나므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변비를 악화시키며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배변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물론 식전에 물이나 우유를 마시고 산책, 복근운동이나 복부 마사지를 하면 도움이 된다.

다. 식이요법

식이요법으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술·후추·고추·소금 등 맵고 짠 자극성 음식과 탄닌산이 많은 썩, 바나나, 딸은 감, 덜 익은 사과, 홍차, 커피 등을 피하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섬유질은 물을 많이 흡수하여 소화관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장내의 유해성분을 흡착해서 대변량을 증가시키므로써 배변을 쉽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섬유질이 많은 식품으로 현미, 옥수수가루, 밀 등의 곡류, 감자, 고구마, 마 등의 감자류, 팥, 콩 등의 두류, 유자피, 딸기, 무화과, 살구, 자두, 사과 등의 과일류, 무잎, 파슬리, 우엉 등의 채소류와 우무, 다시마, 미역, 김 등의 해조류가 있다.

그러나 유의점으로 고섬유 식품은 이완성 변비에는 효과적이지만 경변성 변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장점막을 자극해서 장을 긴장시키므로 피하는게 좋다.

이런 섬유질 외에도 꿀은 당분과 유기산이 많아 옛날부터 변비에 좋은 식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참기름, 버터, 마요네즈와 마가린 등의 지방은 배변시에 윤활작용을 촉진시키고 지방의 분해로 생긴 지방산은 장벽을 자극해 연동운동을 돕는다. 또 구미에서는 어머니가 갓난애를 기를

때 자신의 손으로 당근을 갈아서 스푼으로 떠먹여주는 습관이 있다. 당근에는 장안에 침입한 유해한 균의 활동을 막고 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비피더스균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비피더스인자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비피더스균을 첨가한 요구르트로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당근을 먹는 것만으로 비피더스균이 불어나는 데는 충분치 못하다. 균이 발육하려면 그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필요한데 여기에 적합한 당분은 우유제품에 많은 유당이다. 따라서 당근을 갈아서 우유와 함께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또 우유에 포함된 유당은 대변을 묽게하고 장내세균이 유당을 분해하여 만든 유기산이 장을 자극하므로 이른 아침에 마시는 한 컵의 우유는 배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극성 하제(흔히 설사약이라 함)를 함부로 사용하면 대장을 자극해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능을 약화시켜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킨다.

2. 위염과 위궤양

가. 흡연

흡연은 폐암 뿐만 아니라 위궤양에 있어서도 궤양과 합병증을 야기시키는 위험요소이며 더욱이 궤양의 치료를 방해하고 재발을 조장한다. 담배의 성분이 위 점막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인성 프로스타 글란딘의 생성을 감소시킨다.

나. 알콜과 알콜성 음료

많은 환자들이 금주하도록 권고 받고 있으나 적당한 양의 알콜섭취가 궤양치유를 방해한다는 증거는 없다. 반대로 적당한 음주는 궤양치료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알콜의 남용은 환자로 하여금 의사의 지시를 따라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케양치료를 방해한다. 한편 포도주, 맥주, 커피, 카페인 이 없는 커피, 알콜성음료는 위산의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알콜은 위 점막에 상처를 주므로 위궤양 치료중인 환자 중에서 꼭 소량에 국한되어 허용되어야만 한다.

다. 식 사

식사에 의한 치료는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소량씩 자주식사할 것을 권했으나 이는 소량의 식사로 위장의 확장을 줄여 위산분비를 억제하여 실제로는 지속적인 위산분비를 자극, 유발한다고 한다.

또한 우유는 그 특징상 위점막을 보호해 위궤양 치료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물로 생각되어 왔지만 우유 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 칼슘과 단백질 때문에 위산분비가 강력히 자극되어 우유자체의 위점막완충작용보다 위산분비가 더 많게 되어 결국은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라. 기능성 소화불량(비궤양성 소화불량)

상부 소화관에 어떤 기질적인 병변(소화성 궤양, 식도염, 악성종양 등)이 없는데도 오심, 구토, 심와부 동통, 식후 팽만감, 조기 포만감, 식욕부진, 가슴앓이 등과 같은 상부 소화관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흔히 신경성위염이나 신경성 위궤양 또는 위하수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식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관련이 의심되는 음식물을 피하도록 하면 비교적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음식은 주로 신음식이나 지방질이 다량함유된

음식으로 삼가도록 한다. 조기 포만감이나 식후 상복부 팽만감 또는 구역질이 주된 증상일 경우에는 지방질이 적게 함유된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분복케 함으로써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커피를 삼가며, 금연이나 금주도 증상의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아스피린이나 소염진통제 등의 복용은 통상적으로 피하도록 한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유발에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규칙적인 운동이나 충분한 휴식, 수면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치료 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위장기능 촉진제 등의 약물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3. 간염의 식이요법

급성 간염환자들은 민감한 미각변화와 위염 등을 수반하므로 메스꺼움을 느끼면서 밥맛이 떨어진다. 고단백 저지방 식이요법은 급성간염 경과의 20% 단축시킨 다는 보고가 있으나 폭식은 이로우보다는 해로움이 뒤따를 수도 있어 회복기 이후나 만성간염환자들에게는 균형있는 식사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 간질환 환자들의 금주란 절대적이어서 음식 맛을 내기 위해 조리 중에 첨가하는 어떠한 알콜도 간세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해롭다.

급성간염에서는 간 피사에 따른 간재생이 일어나므로 간재생을 위한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오심이나 식욕부진은 하루 중에 오전에 경미하므로 하루열량의 대부분을 아침식사에서 취하도록 하고 점심과 저녁

은 가볍게 하도록 하되 소나기씩 식사형태는 피하도록 한다. 고열량 유동식섭취가 권장될 경우도 많다. 그래도 오심, 구토가 심하고 밥맛이 없으면 수액요법을 실시한다.

급성 간염시 수분배설 등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나친 수분과다 섭취는 주의를 요한다. 지방질은 동물성보다는 낙농 지방분의 섭취가 좋다. 또한 비타민 섭취를 병행하는 것을 잊지 말자. 특히 황달이 심해 가려움을 동반한 담즙 정체성 급성 간염 때는 혈중 구리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루 1~2mg 이하의 저동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리의 함량이 많은 차, 코코아 등의 음료수를 피해야 하고 구리의 함량이 낮은 커피나 레모네이드가 제한량(350cc 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 경우 모든 육류는 물론, 굴, 조개, 새우, 바다가재를 위시한 모든 어패류, 또한 거위와 오리 등에 구리함량이 높으므로 그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연어 등의 해산물과 땅콩으로 만든 버터도 구리가 상당량 들어 있으므로 삼가야한다. 그 대신 치즈, 달걀, 소고기 등 구리량이 낮은 음식을 택한다. 식물성지방으로는 호도, 밤 등의 열매류에 구리 함량이 매우 높고 올리브에도 상당량의 구리가 함유되어 있다. 우유의 경우 초코렛 우유, 녹말류를 말린 콩, 맥아당, 밀기울, 프렌치프라이, 옥수수, 완두콩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 있는 편이다. 반면에 쌀밥, 빵, 감자, 크래커, 파스타에는 구리가 매우 적게 들어있다. 시금치, 토마토, 말린 열매, 버섯, 아스파라거스, 코코넛, 바나나, 망고, 딸기, 체리, 사과소스 등에 비교적 많은 구리가 들어있다. 그 밖에 설탕, 꿀, 잼, 젤리, 캔디 및 소금과 겨자, 피망, 냉이 등에는 매우

적으나 고추는 하루 1/2스푼 이하로 제한 되어야 한다. 카레요리와 한약재에 많이 있는 감초류는 절대 금하는 것이 좋다.

급성간염의 회복기나 만성간염의 경우 지나친 고단백이나 과식의 중성지방의 축적과 교원질의 침착을 조장하여 간섬유화가 촉진되어 만성화될 소지가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간장약은 대부분 비타민, 간대사 개선제, Cholin 등을 함유한 필수영양제 등의 간세포 구성성분 보완제 그리고 담즙산제제들이다. 이들은 그 자체가 간염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약제가 아님을 명심하고 약제에 대한 맹신은 금물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4. 건강보조식품의 필요성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되도록 저장, 조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을 자연식이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섭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그때 그때 재배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기생충이나 세균인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조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인간은 개체차가 있어서 아무리 영양을 균형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 인체가 특별히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경 공해 및 개체차, 음식물의 저장조리로 인한 영양의 손실과 부족을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식이요법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음식을 특별히 많이 섭취하는 요법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함유된 음식을 건강식품이라고 흔히 말하며,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

는 식품을 일반음식만큼 섭취해서는 필요한 영양소가 보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에 의해 여러 가지 유독성 금속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는 영양소로서는 콩에 함유된 인지질을 들 수 있다. 이 인지질을 하루 2~3스푼 먹기 위해서는 콩을 하루에 한 말끔 먹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 제품화한 것이 건강보조식품이다. 완전곡류(통밀, 현미등 껍질이 붙어있는 곡류)의 식이요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섬유질의 보충을 위해 해조류를 자주 섭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해조류를 제품화한 것이라도 섭취해야 할 것이다. 가공식품을 과다 섭취하여 칼슘결핍이 되면 칼슘이 함유된 음식(콩, 우유 등)을 상복하거나, 여의치 못하면 칼슘제로 보충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조상대대로 유목민족이 아니고 농경민족으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함으로서 저산증 체질이 많다. 위산이 적으면 단백질 소화

능력이 저하되므로서 평소에 식사를 통한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맥주효모를 복용하기도 한다. 과다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 증가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중성지방을 빨리 에너지화시키는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불포화 지방산을 제제화하여 복용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면역기능을 증가하는 데는 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Polysaccharide가 유효하므로, 버섯을 가공 제제화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면역능 증강의 목적으로 복용하면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항산화물질이 많이 함유된 우유를 상복하던가, 항생제를 많이 투여한 사람은 장내세균 총 수의 감소에 의하여 여러가지 장점막 질환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때는 유산균 제제를 투여하여 장내세균의 균형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인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당분**

대위 이동학

늦쇠대야의 미소처럼



이 상 규

대위/공군본부 본부사령실

요즘은 새벽녘에 뒤척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그럴 때마다 누에고치처럼 텅빈 이부자리를 등 뒤에 남겨두고 향하는 곳이 있다. 한평 남짓한 베란다가 바로 그곳이다.

멀리 보이는 계룡산 자락은 여유롭게 단잠을 즐기고 있다. 시선을 가깝게 옮겼을때 차가운 새벽 공기가 벌써부터 바람물결을 출렁이며 마음 속에 쌓여 있던 근심의 모래톱을 말끔히 거두어 간다.

그래서 새벽은 우연한 기회에 빛 바랜 사진을 발견했을 때처럼 설레임을 전해 주기에 충분하다

베란다 귀퉁이에는 황토 빛깔의 늦쇠대야가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반겨준다. 그가 품은 방울토마토 두그루와 피망 한그루가 오늘에 따라 유난히 싱그럽다.그리고 보니 방울토마토는 어느새 대여섯개의 열매를 맺어 놓았다. 피망은

진딧물이 끼어서인지 꽃이 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늦쇠대야, 방울토마토, 피망……. 그들도 어느새 내몸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잠시 귀 기울이면 알알이 맺힌 방울토마토가 도란거리는 소리가 정겹다. 피망은 열매 맺기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다. 결실을 위해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피망의 거친 호흡이 내숨결 속에 용해 된다. 그런 순간의 상상은 나를 상쾌하게 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걸음에 대한 적잖은 자신감도 다름 아닌 이들에게서 찾으려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공군관사로 이사오던 날, 불품없는 늦쇠대야에 유난히 집착을 보이는 나의 모습에 아내는 불만을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삿짐을 꾸리느라 바쁜 와중에 대단한 가보라도 되듯 늦쇠대야를 챙기는 내모습이 그 어찌 좋게 보였겠는가!

한술 더 떠서 녹이 쓴 대야를 붙들고 광을 내는 내 모습이 불만 했을 듯 하다.

지금도 아내는 낯쇠대야 얘기가 나오면 얼굴을 붉힌다. 아직도 탐탁지않은 모양이다. 배란대를 청소할 때마다 그나마 비좁은 공간을 꼭 메우고 있는 낯쇠대야는 언제봐도 불만인 것이다. 마음의 암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고 한걸음씩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것은 낯쇠대야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방울토마토와 피망으로도 알 수 있다.

어느 날인가 아내는 관사공터에서 금요일마다 열리는 시골장터에서 방울토마토와 피망 모종을 구해 온 것이다. 그것은 아내와 나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평화협정(?)이었다. 더 이상 낯쇠대야를 손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건부였다.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날부터 낯쇠대야는 방울토마토와 피망을 한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낯쇠대야가 나의 마음을 끄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우선은 요즘처럼 기계로 쉽게 찍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매끈하지 못한 외형만 보더라도 어느 대장장이의 손질로 탄생한 방짜라는 것이 분명하다. 처음엔 쇳덩어리의 원시적인 형태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대장장이의 그 어떤 억제할 수 없는 창조의 본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것이다. 원형을 깨뜨리는 망치질과 고온의 숯불 위에서 달궈지는 동안에 행해지는 일련의 고통도 감수했으리라. 분명 기만과 무관심-창의성을 저하시키는 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유감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낯쇠대야의 그런 무조건적인 반사신경은 내자신을 더욱 작게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투박한 그 모습은 그저 바라만 봐도 정감을 느끼게 한다. 그 모습이야말로 인간이면서도 참 인간으로의 부활을 꿈꾸는 인간의 염치없는 양면성과 차별되면서 커다란 가르침이 아닐 수 없으리라. 직업군인이라는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는 더욱 더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방짜로 탄생한 순간부터 영원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낯쇠대야를 은은한 빛깔은 유년의 추억들을 생생하게 보여 주기도한다. 그의 얼굴빛은 생전의 할머니의 부드러운 미소를 닮았다. 그래서인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녹이 쓴 대야에 광택을 내다보면 광채가 살아나는 동시에 할머니의 온기마저 되살아난다.

녹이 쓴 낯쇠대야를 손질하는 동안 할머니를 연상하다 보면 아련한 유년의 못난 내모습도 선명하게 알몸을 드러낸다. 고삿풀린 망아지처럼 철이 없던 말썽꾸러기였던 나를 할머니는 늘 따뜻한 품으로 보듬으셨다. 그분의 너그러움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를 무시하고 외면하기 일쑤였다.

우선은 할머니의 땀냄새 나는 체취와 까칠까칠한 손바닥의 촉감이 싫었다. 할미꽃이 되어버린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은 더욱 창피했다. 한번은 허름한 우산 하나를 받쳐들고 초등학교 정문에서 나를 반기시던 할머니를 모른 척하고 지나치기까지 했다. 할머니께서 영면하신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후회로 남을 것이 분명하리라.

장마가 한창일 때로 기억한다. 할머니는 새벽녘에 눈두렁에서 잠은 우렁이를 저녁식탁에 올려 놓으시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으셨다. 그때에도 낯쇠대야는 우렁이의 흙물을 우려내는

훌륭한 용기가 되었다. 우물물이 반쯤 채워진 낚시대야에 우렁이를 담아 놓으면 해질 무렵에는 맑았던물이 뿌옇게 변하고 어느새 우물가에까지 얼굴을 내민 노을 빛은 대야 밑에서 반짝이는 사금파리의 황금 빛을 즐기곤 했다.

무엇보다도 낚시대야가 나에게 주는 기쁨 중에는 비생명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겸허한 모습이다.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비합리적인 그림자를 만드는 모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의도된 행동과 자축할 줄 모르는 헛된 집착을 발생시키는 원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사랑 받길 원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통하여 그 어떤 것을 찾다가 끝내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 사랑을 확인 못하면 절망에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비록 낚시대야가 한낱 불품없는 용기일지 몰라도 적어도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결코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도 없거니와, 그저 자신의 쓰임새 자체로 인간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자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은 분명하리라. 비로소 시생명적인 속성들이 발산한 합리적인 힘이야말로 인간을 잣대로 설정해 놓은 그 어떤 가치 기준보다도 진리에 근접해 있으리란 확신을 가져본다.

어머니께서 낳 낳으실 때에도 할머니는 그 낚시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출산을 도왔다고 하신다. 그리고 보면 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울 때까지 육조역할을 담당했던 낚시대야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었음이 확

실하다. 그때만큼은 현재의 모습처럼 다소 과장된 이성을 실체화하려는 욕심이나 비겁을 몰랐던 때이라.

물론,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융통성도 필요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어른이 다 된 지금에 와서 다소 기형적인 의식과 세속적인 일상의 공간의 낚시대야와 연관된 유년의 시절을 폐기처분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는지…….

이제 내 나이 서른,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의 중간 고개를 일추 넘어서고 있다. 혹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열정은 반비례하여 점점 식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선다. 앞만 보고 내달려도 불확실하기만한 나의 인생 항로에 유독 '추억'이라는 이름 앞에는 잠시 쉬어가고픈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 아마도 닦으면 닦을수록 낚시대야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미소가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힘을 되어 줄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

어느새 계룡산 자락을 두어 번 휘어감은 햇살이 나의 순수함과 부드러운 미소의 부활을 간청하며 내 발목을 잡는 출근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낚시대야의 미소'를 화두로 삼아 부끄럼 없는 일상을 채웠으면 좋으련만……. 낚시대야의 미소처럼 내마음의 고향인 공군에서 보다 최선을 다하고 배려할 줄 아는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소망해 본다. **[공군]**

사랑과 전쟁의 서사시, ENGLISH PATIENT를 보고

신 경 주

공군본부 6급 이인호 부인



"전쟁과 사랑"은 영원한 영화사(映畫史)의 한 주제이다.

전쟁과 사랑은 서로 반대편에 있으며 사랑은 전쟁 속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로 작용한다. 둘 다 인간들이 일으킨 일이지만 전쟁과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빠져드는 운명적인 속성이 있다.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라면 그 역사 속에는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은 많은 사람을 감동케도 했고, 전쟁 중의 공포를 이겨내는 희망이기도 했다. 또한 전쟁과 사랑은 예술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의 주제이기도 했다. 글로, 그림으로, 연극으로 이 소재를 다루어 왔다. 호머의 일리아드 이래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있거라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이 이 주제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영화가 탄생한 후

에는 100년동안 아마도 이 주제가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을 것이다. English Patient도 이러한 영화 중의 한 편이며 최근 가장 감동을 주는 영화의 하나일 것이다. 이미 아카데미상 9개를 받아 그 영화의 진가를 발휘했지만, 특히 주라기공원, 콘에어처럼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자들의 거대한 자본 없이 제작된 소규모예산 영화라는 점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한다. 감독 안소니 멩겔라의 섬세하고 세련된 연출력, 환상적인 촬영,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 그리고 사랑과 시대물의 적절한 조화로 인한 사람들의 관심 등으로 '97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 받게 했다.

이야기의 무대는 사하라 사막, 이국적인 헝가리 음악(꼭 아랍풍의 음악과 비슷해 배경무대인이집트와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3차 세계 대전이 배경인 잉글리쉬 페이션트의 주제는 사

랑과 전쟁, 배신, 복수, 전쟁의 상처로 부서진 인간들과 그 상처를 기록하려는 인간들의 이야기다. 여자의 나신(裸身)같은 사막 풍경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비행기에서 보는 그로테스크한 사막풍경도 멋지다. 끝없는 사막에 경비행기(복엽기)가 떠가고 있다. 죽은 여자와 절망에 빠진 남자를 태운 비행기는 대공포에 맞아 추락한다. 추락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남자가 바로 잉글리쉬 페이션트이다. 잉글리쉬 페이션트란 그가 중상을 입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이름과 과거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다.

중군 간호사 한나(줄리엔느 비노쉬; 이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로 인해 프랑스 언론이 흥분했다. 비노쉬는 대사가 많아 배역의 성격이 잘 나타나야 출연하겠다고 출연 조건을 걸었다고 함.)와 함께 폐허가 된 이태리 수도원 교회에 남게 되는 잉글리쉬 페이션트.

한나는 연민을 느끼며 말벗이 되어 주면서 이 환자의 과거를 만나게 된다. 한편 한나는 교회 옆 막사를 친 폭발물 처리장교인 인도인 영국장교 킵과 사랑을 하게 된다. 킵이 촛불로 길을 만들어 한나를 초대하는 장면과 도르레를 통해 로프로 성당의 벽화를 보여 주는 장면은 이곳이 전쟁터인지 평범한 마을인지 잠시 착각 속에 빠트리면서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도 꽃피는 사랑의 영속성을 잘 보여 준다.

또한 한나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상처, 약혼자의 전사통보, 방금 전까지 농담을 주고 받던 동료들의 뜻하지 않는 죽음 등 전쟁이 휩쓸린 평범한 인간들의 가슴 아픈 전쟁의 상처를 보여 준다.

잉글리쉬 페이션트인 알마시는 국제사막클럽

및 지리학회 회원으로 같은 회원이며 친구인 제프리의 아내인 캐더린과 운명적 사랑에 빠진다. 첫 만남의 화두가 사랑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는 캐더린의 말에 관객들은 이들의 운명적 사랑을 예감한다. 열정적 사랑과 죄의식 그러나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두사람의 사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느끼게 한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바로 영화의 매력일 것이다. 이런 불륜의 사랑의 끝은 불행하다는 우리의 통념은 이들의 사랑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자리한다.

질루로 눈이면 캐더린 남편 제프리는 아내를 태운 채 비행기를 알마시에게 들진시킨다. 제프리는 죽고 아내 캐더린은 중상을 입는다. 알마시는 캐더린을 사막동굴에 남겨놓은 채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삼일동안 사막을 뛰어서 연합군의 도움을 받으러 떠난다. 알마시의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캐더린의 기다리겠다는 희망은 관객들의 감동으로 이어지고 이 불륜의 사랑은 사랑의 승화로 관객들에게 남겨지게 된다.

알마시는 3일 동안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연합군에 도착, 도움을 구하지만 독일인이라는 의심과 더불어 체포되어 이송되면서 알마시의 절망은 관람객들의 절망으로 이입(移入)되어 영화는 절정으로 치달아 간다.

캐더린은 동굴 속에서 상처와 추위로 사랑의 글을 남기면서 촛불처럼 꺼져간다.

알마시는 이송 중 극적으로 탈출 후 적국인 독일에게 사막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지도를 주고 비행기를 얻어 캐더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캐더린은 죽어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캐더린과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



English Patient 영화의 한 장면

다. 그에게 이미 명예, 배신, 불륜, 전쟁의 승패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캐더린이 묻히고 싶었던 곳으로 가던 중 비행기는 대공포에 맞아 추락하여 알마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사랑의 이야기는 끝난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두 사람은 진실로 서로 사랑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오직 물편으로 생을 이어가는 잉글리쉬 페이션트 앞에 복수를 위해 나타난 남자 카라바시오, 그는 알마시가 독일에게 넘겨준 지도로 인해 독일군에 손가락을 잘려 복수를 위해 이곳까지 찾아 왔다. 그러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카라바시오, 복수를 못하고 돌아간다.

배신으로 손가락이 잘린 자, 사랑때문에 모든 것을 배반한 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상처들은 결국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잉글리쉬 페이션트는 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사랑을 잃은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 복수하려는 사람,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빠진 사람들 인간성과 사랑을 잃어버린 자, 이러한 것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련된 연출력과 스케일이 큰 촬영, 현재와 과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편집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영상으로 나타난 작품이다.

종영 이후 영화관을 나오면서 몇몇 여자들이 평생을 걸고 한 번 해 보고픈 사랑이라는 대화가 컷가에 맴돈다. **공민**

대위 이동혁

젓가락

정 제 규

병장/제10전투비행단 정훈실



프랑스의 철학자 장그르니에는 저마다의 일생에 있어서, 특히 그 일생이 동 터오르는 여명기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 순간이 있다고 말했다.

나 역시 어린시절에 그런 계시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것은 그전까지와는 사뭇 다른, 그때까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지낸 사실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성질의 것이었다. 더 이상 세상은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나열된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가지런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투명한 의문들로 어린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학교에 다녀오셨다. 아버지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뵈고 온 이상 나는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는 학교에 돌아오신 후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나는 점점 초조해져 갔다. 내

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교작 안방에서 들려오는 기척을 살피며 이불 속에서 쇠젓가락 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뿐이었다.

“동팡아! 이리 건너 오너라.”

이윽고 아버지의 나즈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른 젓가락을 장롱 밑으로 숨겨놓고 안방으로 건너갔다.

“거기 앉거라.”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앞에 앉았다.

“선생님께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 보아라.”

나는 잠시 머뭇거리고는 방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생님께선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가지 씩 앞에 나와서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래, 동광이 너는 친구들 앞에서 무얼했지?”
 “저는 ... 아버지. 저는 칠판에 다 져가락을 던졌습시다.”

내가 져가락을 던진 것은 내 또래 나이의 철없는 장난끼가 발동해서 저지른 일은 결코 아니었다.

아버지는 해마다 봄이 되면 집을 떠나셨다가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어린 나에게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기 시작한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였으니깐 굳이 이유를 불히자면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빈 자리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어린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동광아! 할머니 들르시거든 잘 모시거라!”

자식 하나를 두고 긴 여정을 떠나는 아버지의 작별 인사치고는 너무나 간결하고 그때의 아버지 얼굴이란 차갑고 무뎠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미처 흘러 내리기도 전에 아버지는 등을 보이시고는 이미 저만치에 몇 발걸음 옮기고 계셨다.

나는 좀 더 오랫동안 아버지를 바라보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까지 단숨에 뛰어올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벌써 마을입구에 다달아 어린 나의 눈에 한점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만 언제나 혼자였다. 마을에는 몇 안 되는 동네녀석들이 있긴 했지만 해마저 산 아래로 지고 가면 아버지가 없는 빈 집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밤이 가져다 주는 적막은 어린 나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바람이라도 심하게 부는 날이면 뼈적거리리는 대문

으로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와 부엌으로 숨어들어간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마당에 어슬렁거리리는 들고양이라도 신음섞인 울음을 길게 늘어뜨리는 날에는 온통 신경이 곤두서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이루기가 일쑤였다.

그럴 때 마다 나는 이불속에서 쇠져가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떠나던 날 대문 앞에 떨어져 있던 짝을 잃은 져가락이었다

아버지는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왜 하필 져가락을 던졌는지 그 이유를 물으셨다.

“저는 오래 전부터 져가락을 던지며 나무에 꽂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져가락이 나무에 꽂히는 경우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물론 져가락이 나무에 수직으로 꽂혔을 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재미도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져가락을 반드시 나무에 꽂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길 때면 져가락은 영락없이 나무에 튕겨 바닥으로 나뿔었습니다.

그 순간엔 아무리 던져 보아도 모두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쉽지 않았지만 져가락을 던지는 순간에 생기는 욕심이나 잡념을 떨쳐 버리려고 한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엔 제스스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익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너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잡념을 비울 수 있었던 말이나?” 나는 전보다 말이 빨라졌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흥까지 나기 시작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처음엔 순간 순간 떠올리게 되는 생각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생각의 흐름들은 결코 연속적이지 않고 아주 작은 틈으로 마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는 작은 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은 결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일 뿐입니다.” 그 공간을 습관적으로 주의깊게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처음보다는 점점 영역이 확대되면서 점차 긴 시간 동안에 뇌리에 스쳐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여러가지 욕심, 잡념 따위들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지요. 결국엔 그 어느 때보다 텅빈 채로 머리속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던지는 쇠 젓가락은 정확히 사물에 꽂히고 맙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쓸데없는 욕심이나 잡념 따위를 떨치고 텅빈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깨닫게 된 이후로 단 한번도 젓가락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턱을 피고 있던 손을 푸시고 내 이야기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시고는 다시 물으셨다.

“그런데 그날 학교에서 던진 젓가락은 어찌 되었느냐?”

나는 난감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좀더 그

전에 상황을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좋을 것 같았다.

“제가 어느 정도 터득한 방법으로 던지기에 익숙해 진 후로 저는 되도록이면 사람들에게 저의 젓가락 던지는 솜씨를 알리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칫하면 저의 능력이 사람들의 눈요기로 끝나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밀을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때가 되면 언제라도 나의 젓가락 던지는 솜씨를 근사하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 주리라 마음먹고 오랫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칠판을 향해 던진 젓가락은 선생님의 이마를 긁고 교실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교실은 아이들의 함성과 웃음으로 이수라장이 되었고 선생님은 이마에 맺힌 피를 손으로 훔쳐내면서 교실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나에겐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나의 젓가락 던지는 솜씨가 그것도 선생님과 아이들 앞에서 보기 좋게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나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단 한차례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신기에 가까운 나의 능력이 가져다 준 배신감은 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는 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제법 오래 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는 자주 아이들을 모아 놓고 젓가락을 던졌지만 그때마다 모두 헛수고였다.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은 내손에서 젓가락을 낚아채어 간간히 나무에 적중시키고는 보란듯이 어깨를 들썩거리며 으시대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몹시 시무룩해져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날도 역시 젓가락때문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한참을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별떡 일어나 신발을 구겨신고 나는 씩씩거리며 느티나무 아래로 쏙살같이 달려갔다. 거친 숨을 어느 정도 가라 앉혔을 때 주위에는 어떤 소리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젓가락을 힘껏 집어 던졌다. 젓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깊숙이 나무에 박혀버렸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계속 되고 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분명 젓가락은 남들의 시신속에선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집을 나온 건 그로부터 몇 일 뒤였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던 자리에서조차 젓가락이 힘없이 꼬꾸라지고 나서 나는 무작정 집을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아버지는 그보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곧잘 관심을 갖고 귀담아 들어 주시긴 했지만 하찮은 젓가락 따위로 인한 말도 안 될 법한 현상들까지 이해해 주시리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나조차도 그런 건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으니까!

마을 끝에서 시작되는 큰 길을 따라 나는 거의 한나절을 걸었다. 땀 한푼도 없는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란 젓가락 하나가 고작이었다.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할퀴고 지나갔다. 하늘은 시커멓게 변해 금방이라도 함박눈을 퍼

부울 기세로 심술궂게 기회를 엿보며 대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이따금씩 바닥에 주저앉아 신발을 옆으로 벗어두고 발을 손으로 감싸 보았지만 이제 발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얼어있었다. 이대로 계속 건다간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손으로 양쪽 귀를 틀어막고 어느 정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 손을 다시 겨드랑이에 파묻기를 번갈아하면서 정처없이 걷기 시작했다.

"이 정도 추워썩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구!"

나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 보았으나 역시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다.

내가 아주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작 젓가락 때문에 집을 뛰쳐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었다. 하지만 생각만 해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혼자 있을 땐 단 한번도 실패해 본적 없는 나의 젓가락 던지는 솜씨가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만은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으니 세상 어디에 그런 일이 있거나 한 일인가. 아니 꼭 젓가락 던지기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는 가능하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불가능한 경우가, 그런 비슷한 일이 세상 또 어디 있던 말인가!

내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은 처음부터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번도 실패하지 않고 정확히 나무에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건 그대로 남몰래 비밀스럽게 간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설사 남 앞에서 꺼내 보일 수 없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비밀인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오래 전부터 간직하고 싶었던 비밀은 그런 게 아니었다. 눈가에게 들켜버릴까?를 염려하여 조마조마하며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이란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일인가!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내가 가진 비밀이란 아무리 사람들에게 꺼내 보이려 해도 내맘대로 꺼내보일 수 없는 어쩌면 영원히 나의 존재 속에 머물러 내안에서 나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늙고 함께 죽어 결국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다.

날씨는 전보다 더 추워지고 주위는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서 되도록이면 가장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큰길에서 벗어나 좁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조금 더 건다보니 나무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서너개의 불빛이 띄엄띄엄 산허리를 밝히고 있었다. 나는 그중에 유난히 노란 불빛 하나를 골라 그 곳을 향해 걸었다. 불빛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멀리서 바라본 불빛은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도 아니고 마을 골목을 밝히고 있던 외등도 아닌 바로 죽은 사람집의 대문을 밝히고 있는 상등이었다.

나는 멀치감치 떨어져 집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초상집치고는 꽤나 조용한 편이었다. 대문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안채를 살폈지만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등뒤에서 한 여자가 아주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거기 누구여?”

“금옥이 친구냐?”

나는 순간 그 여자의 딸 이름이 금옥이 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놀란 나머지 그만 엉겁결에 ‘예?’ 하고 되물었지만 그 여자는 제대로 못들었는지 다시 물어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상등 아래 비치는 내 물골을 훑터 보더니 가볍게 두뺨을 어루만졌다.

“기여운 것. 날도 추운데 이렇게 얼음꽃이 되도록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여 들어 와”

그리고 여자가 앞장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아가야! 어여 들어오지 않구 뭐허?”

나는 대문에 걸린 상등이 내키지 않았지만 오랜 추위와 배고픔으로 일그러진 내치지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방으로 들어서자 향냄새가 콧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좁은 방 안에서 누렇게 바랜 병풍이 한쪽으로 펼쳐져 있었고 병풍 앞에는 흰 천으로 덮인 상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상 위에는 접시에 올려진 초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두개의 초사이에는 죽은 사람의 흑백사진이 다 낡은 액자에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뜻밖에도 어린 소녀가 어딘지 모르게 약간의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사진속의 그 소녀가 금옥이라는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발을 녹이고 있었을 때 나는 그제서야 눈주위가 보기 흉할 정도로 부어 오른 여자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허겁지겁 부엌에서 상을 내가지고 왔으나 좀처럼 밥을 입에 댈 수가 없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따라서 움직이는 사물의 그림자, 그리고 어설픈 웃고 있는 소녀의 흐리멍덩한 초점, 그리고 슬픔에 잠긴 듯 낮게 드리워진 그녀의 눈꺼풀이 자꾸만 나의 시선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그래, 꼬마야 네이름이 뭐지?”

“동팡, 김동팡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내이름을 반복하며 발음하더니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글쎄다. 이줌마는 동광이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금옥이와는 학교 친구인가보지?”

거짓말을 하기에는 그녀가 몹시도 측은하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할머니 댁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빼고 되도록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쫏쫏! 저런 길을 잃다니. 어린 것이 많이 놀랐겠구나! 중학생은 아닌 것 같고 몇 살이나 먹었니?”

“올해만 지나면 이제 아홉 살이 됩니다.”

그녀는 전보다 눈을 크게 뜨고는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다.

“우리 금옥이하고 동갑내기구나.”

우연히 들른 집에 죽은 아이와 나이가 같다는 건 그리 기분좋은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꾸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오히려 나는 약간 미안해졌다.

그녀는 전날 죽은 딸에 관해서 말을 늘어 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아니라 차라리 울먹임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 울먹이는 말조차도 차츰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내가 기억하는 사실들은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병어리였다는 것, 그러나 언제부터가는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 원래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병어리가 된 건지도 모른다. 아니 일부러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병어리로 사람들을 속여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나는 온종일 추위 속을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여간 피곤한게 아니었다. 난 졸음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안에는 불이 꺼진 상태였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지 방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병풍을 사이에 두고 혼자 죽은 시체와 나란히 누워있기란 어린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금방이라도 병풍 뒤에서 어린소녀가 나를 부르며 손을 내밀것만 같았다.

나는 얼른 주머니에서 젓가락을 꺼냈다. 음산한 기운이 다소 누그러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누운 채로 만지작거리던 젓가락을 병풍을 향해 던졌다.

젓가락은 병풍을 뚫지 못하고 방다닥에 떨어졌다. 자세를 바로하고 다시 젓가락을 던졌다. 그렇지만 또 젓가락은 꽂히지 않았다.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말을 듣지 않던 ‘그럼 그렇지!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었어!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던 거라구. 세상에 수수께끼같은 그런 일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거야!’ 혼자 있을 때만큼은 제 위력을 발휘해 온 젓가락이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바닥에 누워버리자 심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을 괴롭혀 왔던 마법에 풀린 사람처럼 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서둘러그 집을 빠져나왔다. 새벽공기가 싸늘했지만 나의 가벼운 발걸음만큼이나 상쾌했다. 집에서 나를 찾고 있을 아버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그 집에서 나온지 한시간이 지나도록 나는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초행 길인 탓도 있겠지만 아직 동이 떠오르지 않은 터라 앞을 분간하기에 힘들었다.

나는 어느 집 담벼락에 몸을 기대어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아직 집에 가려면 꼬박 한나절이 걸릴 터인데 쓸데없이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 이다. 그런데 기대고 있던 담벼락 너머로 사람들의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밑으로 돌을 하나 꺾고 올라서서 그 집 안채를 살펴 보았다. 나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그 집은 내가 밤사이 머물고 있다가 불과 한시간 전에 빠져 나왔던 죽은 소녀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담벼락에 더욱 몸을 밀착시키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지”

“글세 말이여. 어떻게 죽은 귀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겨!”

“어찌됐든 천만다행이제! 하나밖에 없는 피붙이를 그것도 산채로 땅에 묻을 뻔 했으께”

나는 담벼락에서 내려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를 지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곤 여지껏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연못을 발견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쇠젓가락을 꺼내 연못 속으로 던졌다. 그리고 연못으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내밀었을 때 연못에 비치는 내모습이란.

나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 **중문**

대위 이동혁

수 석 8



전 호 명

준위/제19전투비행단 정비과

수석을 갖고 싶습니다.
 빼어나게 아름다운
 돌덩어리 하나쯤
 내 소유로 갖고 싶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수석은
 돈이 아깝고
 강이나 산골짜기에서 즐자니
 노력의 여지가 없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허송 세월로 쏟은 자취
 밖으로 나서 봅니다.
 내눈에 드는

좋은 수석 하나를 건지기 위해
 기웃거리려 보는 강심(江心)이
 묘하게 비춰집니다.
 거꾸로도 보이고
 흔들거리기도 하고
 좋아보이는 건 이미
 남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심(作心)한 일인데
 그냥 갈순 없지 않아
 노을 몇 점 남기며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겐...



김 세 철
병장/제8988부대 3포대

지금 나에게겐.....
 군화가 다 닳도록
 짧으면 짧고 길면 길어 보이는
 내인생의 중요한 러널을
 이제 지나가려 하네.
 아무 것도 모른 채
 그저 모든 일이 서둘렀던 시절
 바로 잊그제 같더니
 이제는 모두들 나를 향해 경례를 하고
 후임병들의 작은 일까지 신경써야 하는
 그런 어엿한 고참이 되었네.
 마음은 언제나 조국을 지키는
 두 눈과 하나가 되어 있지만
 다른 한구석엔 금방이라도

눈물이 토를 것 같은
 부모님의 주름살 배인 얼굴이
 깊이 새겨져 있네.
 지금 나에게겐 그 무엇이 남아 있는가?
 그저 멋진 추억 한아름 안으며
 쓸쓸히 이곳을 떠나 버린 채
 머릿 속에 적셔진 앨범이 되어
 술 한잔 마실 때 떠올려지는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을까?
 언제가 내 아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자랑스럽고 씩씩한 모습으로
 나를 눈물짓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그랬던 것 처럼 ...

공군 1997년 가을호(통권 제240호)

.....
글을 기다립니다.

구분	내용	분량
보라매칼럼	의식적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	20매 내외
사사, 안보	- 군 전략 및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것 - 군과 관련된 군내의 시사문제	40매 이내
군사지식	공군 및 군대 전반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	40매 이내
공군논단	서사안보를 제외한 연구분석 발표	40매 이내
마음의 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수상록	20매 내외
취미생활	타인에게 권할 만한 취미 소개	30~40 내외
장병문예	단편 소설, 시 등 문학작품	35매 내외
병영이야기	병영생활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	7~8매
기타	- 공군정책 제안 - 부대동정 사진 - 공군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말	

알림

본 도서는
공군장병들의
교양함양과 건전한
읽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
게재된 내용은 공군의
공식전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군

▶기간 : 연중

▶보낼곳 : -각 부대 정훈참모
- (320-919) 공군지 편집실
충남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
* 반명함판 사진 1매, 연락처 명기

▶전화 : (효)6232 (02) 506-6232
(042) 552-6232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원고 송부시 계좌번호 기입 바람)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발행일 : 1997년 9월 20일
■인쇄처 : 인쇄/출판 금성산업
T.(042)254-7434, F256-7434

제12회

공군진중창작전

■ 전시기간

1997.9.26-9.29

■ 전시장소

대전한림갤러리(대림B/D5층)

■ 전시내용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시각디자인, 모형비행기, 공군홍보영상



공군본부

